

城南文化研究

제19호
2012

연 구 소
개소20주년

THE JOURNAL OF SEONG-NAM CULTURE



附設

城南文化院
郷土文化研究所

城南文化研究



제19호

2012



城南文化院

附設 郷土文化研究所

향토문화연구소 개소 20주년에 즈음하여



한 춘 섭(성남문화원장)

성남문화원에 부설로 향토문화연구소가 문을 열게 된 것이 1993년 9월 20일이고, 오늘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남문화원 내에 향토문화연구소가 설립된 계기는 본인이 1992년에 연구소 설립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어 약 일 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 성과였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는 민족문화와 역사발전의 기초 작업인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고장 향토사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그 체계를 정립하며, 성남시 문화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성남시민들에게는 향토애와 올바른 향토사를 인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향토 사료의 발굴, 조사, 수집, 연구, 발표,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향토사료관 운영 및 문화사업의 발굴과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남향토문화연구소는 1993년 문을 연 이후, 학술회의 개최(17회), 학술토론회 개최(10회), 학술세미나 개최, 성남문화 해설사 양성교육(5기) 성남향토문화총서(1호~9호) 발간, 성남시 향토유적지정 청원 성과(1~9호), 2005년 7월 <강정일당, 2005년 이달의 문화인물 지정> 청원(한춘섭), 성남 천림산 봉수지 복원 추진, 2008년 11월 <남상목 의병장-이달의 독립운동가> 지정 청원 등 굵직한 연구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남문화연구』를 창간호부터 금년도 제19호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발행시켜 왔습니다. 여

기에는 20년 동안 총 138편의 연구 논문이 수록되었고, 우리 시와 관련한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성남을 주제로 하는 연구로는 단연코 독보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제19호에는 정성권 위원이 최근 세계유산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남한산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남한산성 발굴성과 고찰> 논문을 수록하였고,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전통문화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성남 관할의 서원(書院)·사당 조사 자료> 연구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전통 가옥이나 사당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방안을 찾아 나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동익 소장이 <성남지역의 선현 묘역> 중 ‘德水李氏 묘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전봉구 위원의 <천림산 봉수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는 지금까지 성남문화원이 추진해 온 천림산 봉수 복원 사업에서 처음으로 복원 설계를 시도한 것으로, 천림산 봉수 복원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연구 성과입니다. 조남두 위원은 <성남지역 특수교육 실태 연구>, 권일 위원은 <성남아리랑의 가치와 작품성에 관한 연구>를 수록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록으로 <향토문화연구소 개소 20주년 기념 좌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전해 온 과정을 회고하는 한편, 미래의 성남문화 발전을 위해 향토문화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연구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성남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의 20년 발자취를 회고해 보면 금년도 제19호 발간은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소가 더욱 더 발전하고, 우리 고장을 위한 역사와 문화 연구에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2012. 9. 20



표지사진

앞면: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이경민 묘표(덕수이씨)

뒷면: 성남아리랑 제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삼학사(성남시립합창단 공연 장면)

목 차

발간사	향토문화연구소 개소 20주년에 즈음하여 한춘섭(성남문화원장)	6
정성권	남한산성 발굴성과 고찰	11
전봉구 · 윤종준 · 김주홍 · 송원흠	城南 天臨山 烽燧 整備 · 復原을 爲한 基礎 調査 研究	39
한춘섭	성남 관할의 서원(書院) · 사당 조사 자료	74
한동익	城南지역의 先賢 墓域 II(덕수이씨)	119
조남두	성남지역 특수교육 실태 연구	150
권 일	‘성남아리랑’의 가치와 작품성에 관한 연구	177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20주년 좌담회		238
성남문화연구 1~18호 연구 논문 총목록		256
부 록	학술회의 1~17회 연구 논문 총목록	261
	학술토론회 1~10회 연구 논문 총목록	265

여 백

남한산성 발굴성과 고찰

정성권

(동국대학교 박물관)

◆ 차례 ◆

I. 머리말

II. 남한산성의 역사

III. 남한산성 발굴조사 내용 및 성과

1. 북문~동장대구간 시굴조사
2. 연주봉웅성 구간
3. 장경사신지웅성(長慶寺信地甕城) 구간
4. 남한산성 행궁지
5. 남웅성2 구간
6. 암문(4)·수구지 일대 구간
7. 남한산성 한흥사지

IV. 맺음말

I. 머리말

남한산성은 우리나라 산성 중 가장 잘 알려진 산성 가운데 하나이다. 남한산성이 잘 알려지게 된 이유는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대피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남한산성으로 대피한 조선 조정은 청군의 포위 공격 속에서도 45일간 함락되지 않고 굳건히 성을 사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 주둔한 조선군은 추위와 물자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지구전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인조는 흔히 삼전도의 굴욕이라 표현되는 정축하성(丁丑下城)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렇듯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역사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굴욕적인 역사가 벌어졌던 장소이기에 그 만큼 강한 인상으로 대중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밖에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의 기억뿐만 아니라 한성백제시기 도읍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주목되어 왔다.

한성백제시기의 도성 위치 문제는 오늘날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유원, 안정복, 정약용 등 조선시대 학자들에게도 매우 흥미 있는 주제였다. 한성백제시기 도성의 위치로 임진강 유역, 삼각산 동록, 장안평 일대, 하남시 춘궁동, 풍납토성, 몽촌토성, 남한산성 등 다양한 지역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이성산성과 남한산성은 방어력이 높은 산성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백제의 도성으로 꼽는 지역이었다.¹⁾ 그러나 몽촌토성의 발굴과 최근의 풍납토성 발굴로 인해 한성백제시기 도성은 이 두 토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풍납토성의 경우 2004~2007년까지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만 수백 박스의 한성 백제기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선별된 유물만도 6,500점에 달하고 있다.²⁾ 이렇듯 발굴조사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한성백제시기 도성의 위치 비정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의 중심무대였으며 한성백제시기 도성의 위치비정을 위한 후보지 중 하나였다. 이와 더불어 남한산성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은 통일신라시기 축성된 주장성으로 여겨지기 때문

1) 심광주, 「민족의 자존을 지킨 남한산성의 역사」, 《숲과 역사가 살아 있는 남한산성》, 경기농림진흥재단, 2008, 16쪽.

2) 국립문화재연구소, 《풍납토성XI》, 2009, 40~41쪽.

이다. 《삼국사기》 문무왕 12년에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으며 둘레가 4,360보라는 기록이 있다.³⁾ 문무왕은 삼국통일 직후인 672년 대당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주장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주장성의 둘레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8km가 된다. 이러한 크기의 산성은 남한산성 이외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남한산성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현재 학계의 활발한 학술 논의의 한복판에 있는 산성이다. 남한산성에 대한 연구는 문헌적 고찰과 더불어 고고학 발굴조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고고학 발굴조사는 문헌자료에서 언급된 사실을 유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남한산성의 역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에 대한 고고학 발굴조사는 1998년부터 13차에 걸쳐 크게 9군데의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는 주로 남한산성 행궁지와 수리보수를 위한 일부 성벽, 옹성 등에서 실시되었다. 발굴보고서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과 중원문화재연구원, 경기문화재연구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발굴보고서는 현재까지 8권의 정식 보고서와 1권의 약보고서가 발간되었다.⁴⁾

남한산성에서의 발굴성과를 실어놓은 발굴보고서들은 해당 발굴 지역에 대한 성과를 이해하기 위한 1차 자료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남한산성내 개별 지역의 발굴성과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만 남한산성 전

3) 《三國史記》 卷7 新羅本記 文武王 12年, “築 漢山州 畫長城周四千三百六十?”

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행궁지-시굴조사보고서》, 199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행궁지-2차 발굴조사보고서》, 200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행궁지-3차 발굴조사보고서》, 200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발굴조사보고서》, 200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행궁지-4·5차 발굴조사보고서》, 200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행궁지-6차 발굴조사보고서》, 2004.

중원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암문(4)·수구지일대 발굴조사》, 200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행궁지-7·8차 조사보고서》, 2010.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광주 남한산성 한홍사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2.

체의 발굴성과에 대해 정리해 놓은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남한산성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남한산성에서 진행된 발굴의 성과를 이해하며 앞으로 고고학 발굴이 진행되어야 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I. 남한산성의 역사

남한산성은 일찍이 한성백제의 도성 위치와 관련하여 조선시대부터 이미 학문적 주목을 받아온 산성이다. 남한산성이 백제 온조왕이 세운 왕도였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고려시대로서 이러한 견해는 조선 시대에 들어 확산되었다. 병자호란 직후인 1639년 남한산성내에 백제 시조 온조왕의 사당이 건립되었다. 병자호란 후 인조는 충남 직산에 있던 온조사당을 남한산성으로 옮겼으며 이 사당은 정조19(1795)년에 숭렬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후 숭렬전에서는 국가의 주도로 중사(中祀) 규모의 제사가 올려졌으며, 현재에는 광주향교 유림들에 의해 매년 음력 9월 5일 제사가 지내지고 있다. 산성내의 행궁 주변에서 일부 백제유물이 출토되었으나 백제가 축성 주체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산성 초축과 관련되어 주목할 사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대당전쟁을 수반함에 있어 한산주에 쌓은 주장성(畫長城)이라는 기사가 주목된다. 《삼국사기》 신라 문무왕 12년(672)조에는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다”라고 하였다. 문무왕 12년은 당 병력 4만 명이 평양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신라를 침범하려던 의도를 보이던 시기였다. 주장성은 이에 대비하여 축조된 성으로 신라 북쪽 변방을 지키는

거점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장성에 비정되는 지역은 한강 이남의 광주시와 하남지역이다. 이곳 일대에는 남한산성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360보에 이르는 성곽은 확인되지 않는다. 규모로 볼 때 남한산성은 웅성부를 제외한 원성의 둘레는 7,545m이다. 4,360보를 척도로 환산하면 1보=6척(1척 31cm)으로 8,109m에 이른다. 성벽의 고저차를 감안할 때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궁지 발굴 결과 조선시대 층위 아래에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와 기와류가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남한산성은 신라 문무왕 때를 전후하여 주장성이란 명칭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⁵⁾

고려시대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광주부사를 지낸 이세화 묘지명에 보면 1231년 몽고별의 1차 침입시 광주군민들은 광주성으로 피하여 몽고군의 공격을 방어하였으며, 1232년 2차 침입시에도 살례탑(撒禮塔)이 이끄는 몽고군의 주력부대가 광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이세화가 물리쳤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광주성은 기록에 맞는 지리적 요건과 유물 등으로 볼 때 남한산성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이세화 묘지명에는 광주성에 대하여 임금이 의지하는 ‘남방의 요충지’로서, 몽고군의 침입시 밤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한산성은 고려시대에도 전략적인 필요에 의하여 부분적인 수개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사의 기록에는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 10만이 침입하여 개경을 함락시키자 공민왕은 안동으로 파천하는 상황 속에서 광주에 수레가 머물렀을 때 백성들이 모두 산성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 광주군민이 올라간 산성동아리 남한산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록된 자료나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양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면,

5) 중원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 성곽보수 정비공사—(남용성2—동문 구간내) 간이조사 보고서》, 《남한산성—암문(4)·수구지일대 발굴조사》, 2007, 19쪽.

고려시대에는 남한산성이 평상시에 많은 주민과 군사들이 거주하며 방어하는 형태의 성이 아니라 외침이 있을 경우 한시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진다.⁶⁾

조선시대에는 전략적 거점으로 초기부터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태종 10년(1410)부터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세종 원년(1418)에도 남한산성을 수축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조선 초기에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북쪽 국경 부근 4군 6진의 진보방어와 함께 왜구 창궐 이후 연해 읍성과 산성 중심의 방어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사정을 반영한다.⁷⁾

남한산성은 임진왜란 때에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 선조 29년(1596)에는 승장 유정(惟政)과 승군 60여 명을 남한산성으로 보내어 산성의 수비와 축성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듬해 발생한 정유재란으로 남한산성 수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어 유성룡이 경기도지방에 산성을 수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경기도 백성을 이주하여 농사와 산성 수비를 함께하는 방안이 제시되자 선조가 이를 명하였다. 광해군대에는 군의 편제를 개편하면서 양남의 군병은 강도(강화도)를, 공흥도(충청도)의 군병은 남한산성을 그리고 경기·강원의 군병은 삼각산성(북한산성)과 파주산성(봉서산성)을 지키게 할 정도로 남한산성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었다. 광해군 13년(1621)에는 남한산성을 보장지(保障地)로 삼았다.

그 후 인조 2년(1624)부터 인조 4년(1626) 사이에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였는데, 수축 결과 성곽은 둘레가 6,297보가 되었고, 여장 1,897개, 웅성문 3개, 성랑 115개, 문 4개, 암문 16개, 군포 125개를 설치

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발굴조사보고서》, 2002, 46쪽.

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위의 책, 47쪽.

하였다. 또한 행궁이니 상궐과 하궐, 객사인 인화관 등을 건립하였으며, 산성 수어를 위하여 성내에 9개의 사찰을 두어 팔도에서 올라온 승군이 숙식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

성내에 9개의 사찰을 둔 내용은 고종 11년(1874)에 법홍(法弘) 스님이 편찬한 《남한가람지(南漢伽藍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남한산성 내의 아홉 사찰은 실제로 성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남한가람지》에, “이곳의 9사는 남한산성 수성을 위해 지어진 것이므로 본래 오래된 고적은 없다. 하지만 승려들의 거처는 공공관서와 같고, 승려들은 모두 군제에 속해 있었다”고 하여 남한산성 내 사찰의 성격에 대해 뚜렷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어서, “그런즉 다른 사찰과 비교하여 더욱 그 기록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이 책을 짓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알려주고 있다. 남한산성 내의 9사는, 남한산성 안에 팔도에서 소집된 승군들의 신행과 거처로서 8개의 사찰이 지어지고, 이들의 총본부인 개원사가 창건되어 총 아홉 개의 사찰이 자리잡게 되었으므로 《남한가람지》에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다.⁹⁾

남한산성은 병자호란(1636~1637) 이후 전쟁으로 인하여 무너진 성벽의 보수 및 증·개축과 함께 남웅성 3개가 신축되고 연주봉웅성을 비롯한 4개의 웅성에 포루를 설치하여 병자호란에서 청나라가 사용한 홍이포라는 공성무기에 대비한 방어력을 증가시켰다.

숙종 12년(1686)에는 봉암성을 신축하였으며, 숙종 17년(1688)에는 궁실에 따른 제사공간인 재덕당(在德堂)을 세우고, 숙종 19년(1696)에는 한봉성을 신축하였다. 숙종 37년(1705)에는 봉암성에 2개의 포루를 설치하였고, 45년(1719)에는 남격대(신남성)를 신축하였다. 숙종 37년(1711)에는 종묘를 봉안하기 위한 좌전과 사직을 봉안하기 위한 우실을 세웠으

8)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광주 남한산성 한홍사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2, 8쪽.

9) 전보삼,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대한불교진흥원, 2010, 191쪽.

며, 정조 22년(1798)에는 행궁의 문루인 한남루를, 순조 17년(1817)에 유수의 집무처인 좌승당과 유차산루·이위정·이명정·옥천정 등의 누정이 건립되고, 순조 29년(1829)에는 집무처인 일장각이 세워지고 인화관이 수리되었다.

정조 3년(1799)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수축작업이 이루어져 4대문을 수축하고, 기와로 쌓았던 여장을 벽돌로 개축하여 수축된 성의 안둘레는 6,290보, 바깥둘레는 7,295보로 23,666척이 되었다. 여첩은 1,940타로 모두 벽돌로 하였으며, 4개의 문에는 물루가 있고 웅성이 4개 암문이 9개이며 군보가 125처이며 사방에 장대를 세웠다.¹⁰⁾

III. 남한산성 발굴조사 내용 및 성과

남한산성은 해발 497m의 청량산과 북쪽의 연주봉(466m), 동쪽의 별봉(541m)과 망월봉(502m) 및 남쪽의 봉우리와 능선을 연결하여 만든 산성이다. 남한산성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광주시가 포함된다. 3개시의 행정구역 경계가 만나는 지점은 산성터널에서 서쪽 능선 방향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해발 454.6m의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남한산성의 행정구역은 대부분 광주시 중부면에 포함된다. 다만 북쪽 별봉 일대의 성곽이 하남시에 포함되며 남문과 남문 일대 약 500m 정도의 성곽이 성남시에 포함된다. 남한산성 내의 발굴조사는 대부분이 광주시 구역에서 진행되었으며 하남시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연주봉웅성에서도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남한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는 1985년 한양대학교박물관에 의

10)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8쪽.

해 처음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산성의 성벽을 중심으로 실시한 지표조사였다.¹¹⁾

이후 1998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의해 남한산성 전체의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¹²⁾ 이러한 지표조사와 남한산성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작성되었다.¹³⁾ 《문화유적분포지도》에는 산성관련 구조물뿐만 아니라 암각문을 비롯하여 보호수까지 망라되어 있어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가 제공되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기본적으로 지표상에 드러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표조사 성과만을 가지고는 성벽의 구조나 축조방법, 남한산성 내에 분포한 건물지의 명확한 성격은 밝히기 어렵다. 유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필수적이다. 남한산성에서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될 수 있었던 계기는 1998년 경기도가 남한산성을 종합적으로 복원하기로 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복원계획을 바탕으로 남한산성 내에서 처음 실시된 고고학 발굴조사는 1998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실시된 행궁지 권역 시굴조사를 들 수 있다. 행궁지에 대한 조사는 1998년부터 시작되어 이후 2008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8차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성과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궁지 이외의 지역은 주로 웅성과 성벽구간, 한홍사지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그동안의 발굴 성과는 <표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발굴 내용은 표의 순서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11) 한양대학교박물관, 《남한산성-지표조사보고서》, 1986.

1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2000.

13) 朝鮮官窯博物館・廣州市, 《文化遺蹟分佈地圖 廣州市》, 2005.

1. 북문~동장대구간 시굴조사(지도1-1, 2)

남한산성 북문~동장대구간 조사는 시굴조사로서 한국토지공사 토지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00년 11월 1일~12월 26일까지였다. 이 조사는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위한 시굴조사가 아니었다. 남한산성은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후 수차례의 성곽 정비 및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산성의 정비 및 보수는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성의 원형이 파악되지 않은 채 임의로 진행되었

〈표1〉 남한산성내 발굴성과(지도 1 번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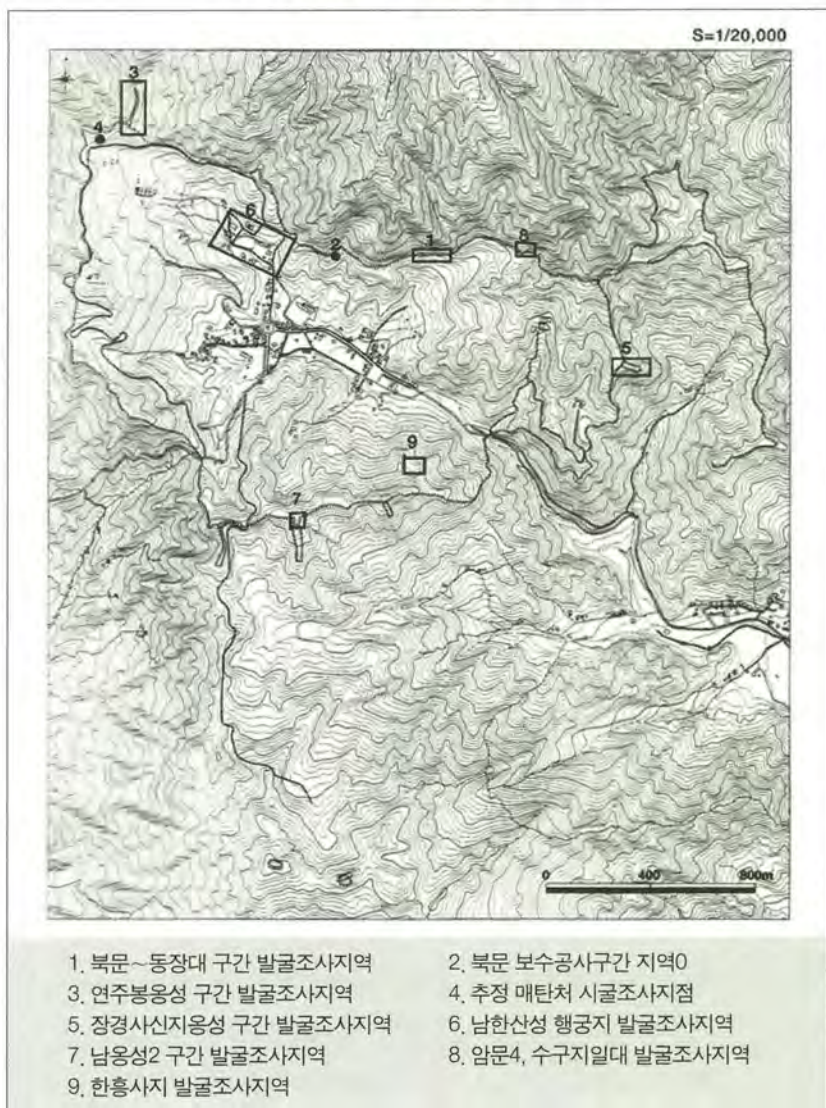
일련 번호	기 간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및 결과	지도 번호
1	2000.09 ~ 2001.08	- 북문~동장대구간 시굴	- 체성벽 축조상태 파악 (1) - 북문 공사구간 조사 (2) - 군포지(초소) 조사 (1)	1/2
2		- 연주봉옹성 발굴	- 옹성 체성벽 구조파악 (3) - 추정 매탄지 조사 (4)	3/4
3		- 장경사신지옹성 발굴	- 장경사신지옹성 구조 파악	5
4 남 한 행 궁 지	1998.12.10~ 1999.12.24	1차 - 행궁전역 시굴 - 상궐지 부분 발굴	- 행궁의 추정 범위 · 외곽 지역 부존 건물지 파악 - 신라 · 고려 유물포함층 확인 - 연차별 조사계획 수립	6
	1999.12.10~ 2000.10.09	2차 - 상궐지 일대 발굴	- 상궐지, 남 · 북행랑지, 채덕당, 유차산루지 등 조사	
	2000.09.20~ 2001.06.30	3차 - 상궐주요부분, 좌전지 - 담장지 발굴	- 좌전배치양상 및 규모 파악 - 상궐지의 방지, 온돌 조사	
	2001.03.20~ 2002.05.15	4차 - 서원지 - 외곽담장의 남쪽지역 시굴 · 발굴	- 행각, 이위정지, 우물 - 백제 저장공, 유물포함층, 고려시대 온돌 - 통일신라시대 기와류 · 토기류	

일련 번호	기 간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및 결과	지도1 번호
	2002.07.22~ 2003.07.10	5차 - 서원지 - 외곽담장의 남쪽지역 발굴	- 행궁외곽경계, 건물지 확인 - 백제 수혈, 주거흔적, 토기 - 고려 은돌, 조선 건물지	
	2003.06.09~ 2004.12.06	6차 - 하궐지 일대 및 문지 발굴 - 마당 하층 시굴	- 하궐지, 일장각지, 문지 등 - 하궐마당 하층에 통일신라 시대 기와 포함층 확인	
	2005.04.19~ 2006.08.27	7차 - 통일신라시대 유구발굴 - 마당 주변 시굴	- 통일신라 기와포함층 조사 - 동 기와층, 건물지가 하궐지 및 문지 아래 분포함을 확인	
	2006.06.07~ 2006.12.10	8차 - 행궁지 동·남편 시굴	- 행궁주변 부속건물지 확인	
	2007.03.21~ 2008.01.10	조선후기 행궁관련 유구 (한남루지, 연못지, 옥천 정지, 완대정지) - 통일신라시대 유구 전면 발굴	- 한남루지, 연못지, 완대정지, 옥천정지 확인 - 통일신라시대 대형건물지 확인	
5	2004.06.21~ 2004.07.10	- 남용성2 간이조사	- 성벽 기저부 보축성벽 확인	7
6	2005.05.16~ 2005.08.27	- 암문(4)·수구지 일대 발굴조사	- 건물지2개소 확인, 성벽, 수구시설 조사	8
7	2011.07.25.~ 2012.06.08	- 남한산성 한홍사지 발굴조사	- 건물지13동 및 부속 건축물 유구 확인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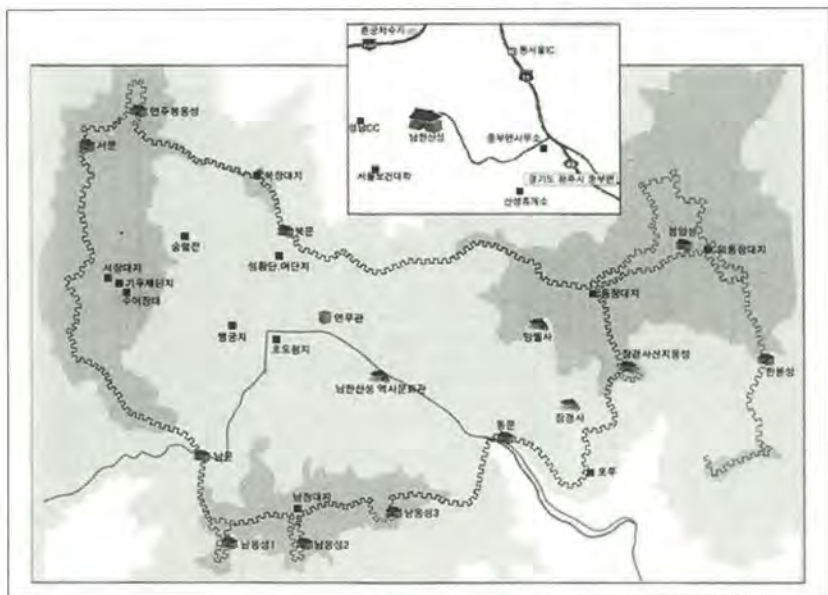
다. 남한산성에서는 1998년부터 행궁지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고고학 발굴조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성곽의 보수 및 정비사업 사전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는 정비 및 보수 전 사전 발굴조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북문~동장대구간 시굴조사는 2000년 9월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남한

지도 1. 남한산성 발굴조사지역 위치도¹⁴⁾



14) 본 위치도는 다음의 보고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발굴조사보고서》, 2002, 40쪽)에 나온 지도에 새로운 발굴조사지역을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지도 2. 남한산성 위치 및 현황¹⁵⁾

산성 성곽보수, 여담보수공사" 구역에 대한 조사이다. 복문~동장대 구간 시굴조사는 복문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성벽이 무너져 있어 보수공사가 예정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 구간의 조사를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발굴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북문~동장대 구간 채성벽의 축조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단은 원성벽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폭 2m의 성벽 절개 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성벽의 기저부에 약 1m 내외의 장대석이 2단으로 쌓여져 있고 그 위에 폭 30~40cm 크기의 성돌이 약 20단 정도 쌓여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벽 기저부는 장대석 앞부분이 ㄴ자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며 장대석 위편의 성돌 앞부분도 ㄴ자 형태로 정리되어 있

15) 중원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암문(4)·수구지일대 발굴조사》, 2007, 27쪽 지도 전재.

다. 이렇게 이중 L자 형태로 바닥을 정지한 것은 뒷채움 부분의 누르는 힘이 바닥의 생토면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성벽을 밀어내는 힘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¹⁶⁾(지도1-1)

두 번째 성과는 군포지(軍鋪址)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발굴을 들 수 있다. 군포지는 군인들의 초소라 할 수 있는데 이 건물지는 성벽 절개부위에서 동쪽으로 70m 떨어진 성벽의 안쪽 4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조사 전 상황은 사방 5m 크기의 대지가 주변지역보다 약간 높게 솟아나 있었으며 지름 30~40cm 크기의 초석의 윗부분이 노출되어 있었다. 조사결과 이 건물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지도1-1)

《남한지》에는 산성내에 125개소의 군포가 건립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산성내의 매탄처와 매염처의 위치를 군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군포들은 최소한 《중정남한지》가 쓰인 1848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이밖에도 북문~동장대 구간 시굴조사에서는 보수를 위해 성벽 내부가 노출된 곳 역시 조사하였다. 채성벽의 축조 방법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뒤채움 두께가 1.5m로써 채성벽보다 얇았음을 확인하였다.(지도1-2)

2. 연주봉옹성 구간(지도1-3, 4)

연주봉옹성 구간 조사는 발굴조사로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01년 5월 28일~2001년 8월 23일까지였다. 연주봉옹성은 남한산성 원성의 북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연주봉옹성은 원성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해발 466.4m의 원성까지 이어진 옹성

1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발굴조사보고서》, 2002, 67쪽.

17) 위의 책, 71쪽.

이다. 원성부터 웅성 끝 성벽까지의 직선 길이는 약 150m이며 성벽 전체 둘레는 315m이다.

연주봉에 원성부터 이어진 웅성을 설치한 이유는 연주봉의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 연주봉에서 바라다보면 북쪽으로 능선을 따라 이성산성까지 조망이 가능하며 잠실지역과 하남시 춘궁동 일대도 매우 양호하게 조망된다. 뿐만 아니라 연주봉에서 성 내부를 바라다보면 남한산성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남한산성 초등학교 일대가 조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사수해야 될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주봉까지 연결된 웅성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발굴전의 연주봉웅성은 여장이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연주봉 웅성은 제5암문과 연결되고 있는데 원성과 웅성이 만나는 지점은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웅성의 끝에 있는 포루위에는 산불감시탑이 세워져 있었으며 탑을 지지하기 위한 시멘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주봉웅성은 남한산성 웅성 중 가장 훼손도가 심하였다.

전체적으로 훼손도가 심하였던 연주봉웅성은 발굴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웅성과 체성벽의 구조와 축조기법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발굴조사 성과는 체성벽 구간과 웅성구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지도1-3)

체성벽구간에서는 체성벽의 구조와 암문 그리고 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체성벽구간의 구조는 장대석을 이용한 1단의 기단 위에 21~23단의 성돌을 쌓아 올린 형태이다. 암문은 3매의 홍예들로 홍예를 구축한 형태로써 문의 높이는 171cm의 크기로 비교적 작게 만들었다. 암문 좌우편의 성돌은 다른 체성벽의 성돌과 형태가 다르고 축성방법도 다른 것으로 보아 후대에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 체성벽에 붙어 있는 연주봉 웅성 치는 연주봉웅성과 연결되는 위치에 있다. 치는 원성벽과 연결되게 쌓았다. 원성벽과 치의 성돌이 연결되는 부분은 서로 맞물려 있어 연주봉웅성 치가 원성벽을 쌓을 때 계획적으로 같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

게 해준다.

옹성구간의 발굴성과는 연주봉옹성의 구조를 파악한 점을 들 수 있다. 연주봉옹성은 30~40cm 크기의 부정형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체성벽과는 달리 성돌 사이사이에 작은 켜기돌을 많이 사용하여 쌓았다. 이처럼 켜기돌을 사용하는 축성기법은 연주봉옹성과 같은 시점에 축성 되었다고 생각되는 남옹성 3개소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확인된다.¹⁸⁾ 연주봉옹성에서는 수구와 출입시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구는 지대가 가장 낮은 암문 동쪽에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연주봉옹성 출입시설은 체성벽에 붙어 동서방향으로 두 개가 시설되어 있었다. 이밖에 연주봉옹성 발굴조사를 통해 옹성의 끝에 설치된 포루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포루는 지름 약 10m의 원형 구조물로 내부는 동서 7m 남북 6m의 크기이다.

이밖에 서문에서 북동쪽 능선 방향으로 52m 지점에서 매탄처가 조사되었다. 매탄처는 동서 5m 남북 4.7m의 토광선이 있었으며 지표와 가까운 부근에는 생활쓰레기가 있었으나 쓰레기 아래 부분에는 목탄 혼입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매탄처로 추정할 수 있었다.(지도1-4)

3. 장경사신지옹성(長慶寺信地甕城) 구간(지도1-5)

장경사신지옹성 구간 조사는 발굴조사로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01년 5월 28일~2001년 8월 23일까지였다. 장경사신지옹성(長慶寺信地甕城)이란 장경사에서 수어를 담당하는 옹성이란 뜻이다. 동쪽 성벽은 해발 501m인 망월봉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내려온다. 지형산성의 안쪽은 경사

18) 위의 책, 99쪽.

가 완만한 데 비해 성의 바깥쪽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해 방어적인 측면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동성은 병자호란 이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청군(淸軍)은 동성 밖의 벌봉에서 성 내부를 들여다보며 작전을 수립하였고, 한봉에는 대포를 설치하였는데 이 화포공격으로 동벽의 여장 대부분이 훼손될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병자호란이 끝나자 동벽에는 한봉성 정상부를 겨냥하는 포루가 설치되고 장경사신지용성이 신축되었다.¹⁹⁾(지도1-5)

장경사신지용성 구간의 발굴을 통해 체성벽과 웅성의 축조방법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웅성 구간 체성벽은 장경사암문 신축을 위하여 일정 부분 헐렸다가 개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축시에도 연주봉암문처럼 기존의 성돌과 다른 성돌이 사용되지 않고 원성벽 성돌이 그대로 사용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²⁰⁾ 체성벽 암문은 홍예식이 아닌 장대석을 이용하여 천장부분을 만든 형태로써 높이 144cm 크기로 작게 조성되어 있다.

장경사신지용성은 전체둘레가 159m이며 웅성 끝 부분에는 두 개의 포루가 설치되어 있다. 포루 내에는 폭 80cm 높이 53cm 트기로 공간을 만들어 화약이나 대포알을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밖에 연주봉웅성과 장경사신지용성 발굴 성과로 유적의 구조를 확인한 점 이외에 새로운 발굴 기술을 적용하였다는 점 역시 언급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기술은 3D 레이저 스캔을 이용한 실측이다. 기존의 실측 방법은 사방 1m의 실을 띄우고 일반적으로 이를 1/20로 축소하여 방안 지에 수작업으로 그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측 방법은 주거지나 평면의

19) 심광주, 《남한산성 성곽 둘러보기》, 《숲과역사가 살아 있는 남한산성》, 경기농림진흥재단, 2008, 127~128쪽.

2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발굴조사보고서》, 2002, 151쪽.

유적에서는 비교적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벽같이 수직의 구조물에서는 사방 1m 격자의 기준선을 설치하는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중력에 의해 기준선이 왜곡되곤 하였다.

3D 레이저 스캔은 비록 왜곡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수작업을 이용한 성벽 실측보다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연주봉용성과 장경사신지용성의 발굴작업에서 이러한 3D 스캔 작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 역시 발굴의 성과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4. 남한산성 행궁지(지도1-6)

남한산성 행궁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이 주도가 되어 실시되었다. 행궁지 조사는 약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8차례의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발굴조사 내용은 6권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통해 정리되었다.²¹⁾ 8차에 걸친 조사내용과 발굴성과는 기 간행된 발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지도1-6, 도면1)

1차 조사는 1998년 12월 10일~1999년 12월 24일까지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시굴조사로써 행궁지 전체 범위와 주변 지역의 유적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조사결과 행궁의 담장 연결 상태와 행궁 외곽 지역에서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통일신라시대 유물 포함층을 확인하였다. 1차 조사의 성과는 전체적인 행궁지 범위의 파악이라 할 수 있다.

2차 조사는 1999년 12월 10일~1999년 10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2차

2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행궁지-시굴조사보고서》, 199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행궁지-2차 발굴조사보고서》, 200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행궁지-3차 발굴조사보고서》, 200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행궁지-4·5차 발굴조사보고서》, 200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산성행궁지-6차 발굴조사보고서》, 200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행궁지-7·8차 조사보고서》, 2010.

조사 대상지는 상궐지 일대였다. 조사결과 내행전지, 남·북행각지, 재덕당지, 좌승당 및 유차산루지, 이위정, 이명정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행궁지의 배수시력과 문지, 담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온돌시설도 조사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행궁지 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을 수습하여 이 일대가 통일신라시기부터 사용되었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조사의 성과는 행궁의 구조와 전체적인 배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3차 조사는 2001년 9월 20일~2001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3차 조사 대상지는 상궐의 북서쪽에 위치한 좌전지와 상궐 외곽의 담장지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좌전은 종묘시설로서 정전과 영녕전으로 칭해진 두 동의 건물로 구성된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조사의 성과는 좌전의 규모와 배치체계를 확인한 점을 들 수 있다. 행궁에 좌전 시설을 한 것은 남한 행궁지가 처음이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종묘를 이전하여 총력전을 펼칠 준비까지 하였던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4차 조사는 2001년 3월 20일~2002년 5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4차 조사 대상지는 3차 조사시 부분 확인된 행궁 북서편 외곽 담장지 일대와 행궁 권역내의 선대 유물산포지 일대이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행궁과 관련되는 부속시설들로는 행각과 수라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및 이위정, 우물 등이 조사되었고 고려시대는 건물지 온돌시설 3개소, 통일신라시대는 기와와 토기 등의 유물, 삼국시대는 저장공 2기와 유물 포함층 일부가 확인되었다. 3차 조사의 성과는 행궁 권역 내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적과 유물이 확인된 점이라 할 수 있다.

5차 조사는 2002년 7월 22일~2003년 7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5차 조사 대상지는 행궁지 서쪽의 백제토기 산포지와 행궁 남동쪽 축대를 포함한 행궁 주변지역 일대이다. 조사결과 백제~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

인 건물배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궐 마당지에서 통일신라시기 조성된 대형 기와를 다량 수습할 수 있었다. 6차 조사의 성과는 하궐지역 일대와 문지에 대한 구조와 배치상태를 확인한 점을 들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통일신라시대 대형 기와를 발굴을 통해 통일신라 문화층의 존재를 확인한 점을 언급할 수 있다.

7차 조사는 2005년 4월 19일~2006년 6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6차 조사 대상지는 7차 조사에서 확인된 통일신라 문화층이다. 조사결과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발굴지역 밖으로 연장되어 나간 상태였다. 7차 조사의 발굴성과는 통일신라 건물지의 확인과 다량의 명문와를 수습한 점을 들 수 있다.

8차 조사는 2007년 3월 21~2008년 1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8차 조사 대상지는 정문지 앞에 위치한 유구 확인 지역과 더불어 7차 조사에서 조사구역 밖으로 연장되어 나간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이다. 조사결과 정문지 앞에서 한남루지와 연못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옥천정지와 완대정지의 구조와 배치도 파악할 수 있었다. 8차 조사의 발굴성과는 행궁지 부속 건물지의 확인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 대형 건물지의 배치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통일신라 건물지는 퇴칸과 양끝 협칸을 제외하더라도 12칸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건물지이다.

이 건물의 벽체는 단면의 폭이 2m 가량으로 내외에 돌을 쌓고, 내부에는 흙을 판축하여 쌓았다. 통일신라 건물지는 압축력을 통해 강해진 판축 벽체를 지붕의 힘을 받는 내력벽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²³⁾ 통일신라 대형 건물지의 벽체가 폭 2m 가량의 내력벽으로 구성된 이유는 7차 발굴조사가 확인된 통일신라 대형 기와가 올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기와 한 장이 무게는 약 20kg에 달하고 있어 기둥만으로는 지붕무게의

23) 노현균, 「남한산성 통일신라 건물지의 건축학적 고찰」, 《남한행궁지-7·8차 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10, 341쪽.

하중을 견디기 어려웠기에 이렇듯 2m에 달하는 내력벽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용도는 신라의 궁전 건축일 가능성도 제시되었다.²⁴⁾ 그러나 와당이 사용되지 않았고 두꺼운 벽체와 기와가 올려진 점으로 보아 창고시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남웅성 2구간(지도1-7)

남웅성 2구간 발굴조사는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6월 21일~2004년 7월 10일까지이다. 이 발굴조사는 본격적인 발굴조사라기보다는 남한산성 성곽보수에 따른 간이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사대상 지역은 남웅성 2 끝에 설치된 치성 2와 남웅성 2 출입시설 일대이다. 치성 2는 남장대 앞에 설치된 성벽으로 남한산성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원 체성벽 축조 이후 수축과정에서 새로 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⁵⁾(지도1-7)

조사는 치성 2의 서쪽·남쪽·동쪽 성벽 하단부와 동쪽 보축성벽의 축조방법을 파악하고자 성벽에 덮여있던 토사를 제거하여 기저부를 확인하였다. 이밖에 남웅성 2와 치성과의 축조관계를 살피는 조사를 병행하였다. 남웅성 2~동문구간 발굴성과는 먼저 치성 2 서쪽 성벽 기저부에서 보축성벽을 확인한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치성 남동쪽 모서리와 남웅성 견결부에 대한 조사에서 남웅성 기저부 및 출입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24) 장경호, 《남한산성의 성제와 성안의 건축 재조명》, 건축역사학회, 17쪽.

25) 중원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 성곽보수 정비공사—(남웅성2—동문 구간내) 간이조사 보고서》, 《남한산성—압문(4)·수구지일대 발굴조사》, 2007, 242쪽.

6. 암문(4) · 수구지 일대 구간(지도1-8)

암문(4) · 수구지일대 발굴조사는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5월 16일~2005년 8월 27일까지이다. 이 발굴조사는 성 내부 평탄지 건물조사와, 수구부, 성 외측에 대해 성벽 조사, 성 내측 내벽 기초부에 대한 하층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²⁶⁾(지도1-8)

성 내부 평탄지 조사에서는 2개소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산성내 수비를 위한 군사가 주둔하였던 군포 건물의 성격으로 추정되었다. 건물지는 두 동의 건물지가 층위를 달리한 상태로 같은 지표하에 분포하였다. 상층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약 13.86㎡(4.2평)이며 하층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면적은 60㎡(20평)이다.

수구부는 성벽을 관통하여 개설된 수구와 성 외측의 출수구로 나누어진다. 수구부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수구부 성 안쪽으로 방형의 집수시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집수시설은 물을 일시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성 외측 조사와 성 내벽 기초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었다. 성 외측조사에서는 기단 보축성벽이 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 내벽 기초부에 대한 하층조사에서는 수구부 조성 과 함께 축조된 현재의 성벽보다 앞선 시기의 성벽 내벽과 배수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성벽은 조선시대 성벽 안쪽의 배수시설 입수구를 조사하는 도중 지표 아래 4m 깊이에서 발굴된 성벽이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축성기법은 성벽의 표면에 해당하는 면석과 면석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뒤를 채우는 뒷채움 부분의 두께가 1~2m 정도로 얇은 데 비하여 신라시대의 축성기법은 성벽의 높이만큼 두껍게 성벽의 안팎을 둘로 쌓아 올라가 사

26) 위의 책, 123쪽.

다리꼴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쪽을 흙으로 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신라시대의 성벽은 조선시대의 성벽에 비하여 훨씬 더 높고 견고 하였지만, 조선시대 성벽보다 더 많은 성돌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발굴에서 확인된 것은 바로 이러한 신라시대 축성기법으로 쌓은 성벽이었다. 충주 장미산성처럼 성벽 안쪽에는 성벽을 따라 평행하게 배수시설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축성기법으로 볼 때 발굴된 성벽은 주장성의 일부임이 분명했다. 문헌기록으로만 전해 오던 주장성의 성벽유구를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밝혀낸 것이다.²⁷⁾

7. 남한산성 한홍사지(지도1-9)

남한산성 한홍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7월 25일~2012년 6월 8일까지이다.(지도1-9)

한홍사는 임진왜란 이후 성곽의 수축과 사찰의 신·개축에 큰 역할을 한 벽암 각성대사(1575~1660)의 주도로 신축되었다. 한홍사는 남한산성의 수축을 위해 동원된 승려들이 머물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졌다. 한홍사를 포함한 남한산성내의 사찰 창건에 대한 기록은 《중정남한지》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인조 갑자년(1624)에 성을 쌓을 때 승려 각성을 팔도도총섭으로 삼아 성을 쌓는 역을 맡겨 8도의 승군을 불러 모집하고, 또한 성 안의 각 사찰에 명을 내려 8도 부역승군의 공제하는 일을 분장하였다. 이로써 각 사찰이 비로소 각 도 의승의 입번을 주관하였으며, 승총·절제·중

27) 심광주, 《남한산성 성곽 둘러보기》, 《숲과 역사가 살아 있는 남한산성》, 경기농림진흥재단, 2008, 27쪽.

군·주장의 명칭이 생겼다. 무릇 성 안의 아홉 사찰은 갑자년(1624)에 시작되었는데, 망월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옥정사가 다음이며, 그 나머지 일곱 사찰은 모두 새로 세운 것인데, 동림사가 가장 늦고 영원사도 늦게 세웠다. 모두 성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맡겼으며, 아홉 사찰에 각각 군사무기와 화약을 저장하였다....(중략)... 한홍사는 개원사 동쪽 기슭에 있으며 땅이 매우 시원하고 넓다. 국청사(國淸寺)는 서문 안에 있고 누 앞에는 못이 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절이 부국(富局)에 있기 때문에 부승(富僧)이 많다고 한다. 인조 갑자년에 성을 쌓을 때 각 성(覺性)이 두 사찰을 세우면서 한홍·국청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모두 그 뜻을 모르다가 병자호란 후에 한(汗)은 한(漢)과 음이 같고, 금나라가 이 해에 청(淸)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을 깨달았다. 인조도 기이하게 여겨 각성에게 대단히 후한 상을 내렸다고 한다.²⁸⁾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홍사는 창건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찰이다. 한홍사지는 남한산성내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제3 남웅성 북동쪽으로 약 160m 지점, 제10암문에서는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조사결과 한홍사지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 13동, 축대 9기, 담장지 2기, 계단지 2기, 미상유구, 맷돌 등이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추정해 볼 때 사지는 중심축선상에 불전과 누각을 두고 좌우에 건물이 둘러싸는 산지중정형 건물군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군이 사찰공간이라 한다면 사찰공간의 서쪽에는 군영공간이 위치해 있다. 군영공간에는 무기고지·창고지·군포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분포해 있다. 이 두

28) 《重訂南漢志》卷3 佛宇. 이 문헌은 헌종 12년(1846)에 관암 홍경모(洪敬模, 1774~1851)가 지은 광주 지역의 地志로, 《輿地勝覽》과 《南城志》(1779년 서명용 편찬), 그 밖의 중국의 여러 사서와 지리지 등의 편목을 수정·보완하여 기록한 귀중한 사료이다.

공간은 각기 다른 입지에 놓여 좌향을 달리하고 있지만, 지형을 따라 3~5개의 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각각의 기능과 위계에 맞는 건물군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전지와 누각지에서는 청기와가 출토되어 사찰의 위상을 보여 주며, 추정무기고지와 창고지는 그 기능에 걸맞게 매우 긴 장방형 평면에 두꺼운 벽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승방지는 승려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구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한홍사지 발굴을 통해 알 수 있는 한홍사의 특성은 불전과 누각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공간을 중심영역으로 하되 10암문과 제3 남웅성에 가깝게 무기고와 군포지 등을 배치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개의 공간이 효율성 있게 운용되도록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IV. 맺음말

이상에서 남한산성에서 진행되었던 발굴조사 내용의 성과와 위치를 확인해 보았다. 남한산성은 한성백제시기 도성일 가능성부터 시작하여 나당전쟁을 대비하여 신라가 축성한 주장성일 가능성까지 그 성격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남한산성은 임진왜란 직후 벽암각성대사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수축과 개보수가 진행되었고 기존의 사찰을 포함하여 9개의 사찰이 창건되거나 개축되었다. 이와 같이 남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산성이다.

현재 남한산성에서 진행된 발굴조사 중 가장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여

29)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광주 남한산성 한홍사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2, 38쪽.

된 발굴은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이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시행한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은 본문에서 설명하였듯이 10년의 시간동안 8차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장기간의 시간동안 계획적인 발굴을 진행한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은 학술발굴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 이외에 남한산성 내에서 진행된 주요한 발굴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근년에 시행한 남한산성 한홍사지 발굴을 들 수 있다. 한홍사지 발굴은 임진왜란 이후 남한산성 내에 창건된 사찰이다. 발굴결과 한홍사지는 승군의 역할까지 겸비한 승려들의 주둔지 겸 기도처임을 밝히는 성과를 보여줬다. 남한산성 행궁지와 한홍사지는 기존에 유구가 지표에 노출된 곳이며 문헌자료도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어 학술발굴을 통해 유적의 성격을 비교적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었다.

남한산성 행궁지와 한홍사지를 제외한다면 남한산성 내에서 진행된 발굴은 대부분이 성벽의 수리·보수 전에 진행된 구제발굴이다. 비록 구제발굴이라 할지라도 남한산성 원성벽을 비롯하여 치성이나 옹성 발굴조사를 통해 남한산성 축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한 암문4·수구지 일대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기 성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한산성이 《삼국사기》의 기록에 등장하는 주장성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남한산성 내에서 진행된 발굴조사는 우리나라 학술발굴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문헌자료를 입증하는 고고학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남한산성 발굴조사에 있어 앞으로 남은 과제라 한다면 기존의 조선시대 건물지 조사와 더불어 산성의 초축 문제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성벽의 발굴을 통해 문무왕대 축성한 주장성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성벽을 확인한 것은 암문4·수구지 일대 구간뿐이다. 남한산성은 한성백제기 도성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암문4·수구지 일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벽 구간도 계획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남한산성의 초축 시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남한산성 초축의 시기가 밝혀진다면,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이 조선시대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듯이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이밖에 남한산성내의 여러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남한산성의 변천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城南天臨山烽燧整備・復原을爲한 基礎調査研究

전봉구

(동서울대학교 교수)

윤중준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

김주홍

(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송원흠

(동양미래대학 조교수)

◆ 차례 ◆

I. 머리말

II. 史的 考察

1. 朝鮮 前期
2. 朝鮮 後期
3. 小結

III. 調査內容

1. 1次 調査
2. 2次 調査
3. 3次 調査
4. 小結

IV. 整備・復原案

1. 內地烽燧의 構造
2. 內地烽燧 整備・復原事例

V. 맺는말

부록. 천림산 봉수대 복원 설계(안)

I. 머리말

성남시에는 우리 옛 조상들의 자랑스런 호국 군사통신 유적이었던烽燧遺蹟이 수정구 금토동에 그 유지가 온전하게 남아 있다. 과거 3차에 걸친 학술조사를 통해 중요성이 인정되어 봉수유적으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다.

본 논고에서 살펴 볼 봉수는 과거烽[헛불·炬]과燧[연기·煙]로 국경과 해안의安危를 약정된 신호전달 체계에 의해 차례로 중앙에 전하던 군사통신 수단이었다. 한국고대 삼국시대부터 원시적으로 활용되어졌으며 고려시대에 정례화 되었다. 이후 조선 세종대에 크게 정비되어 1895년까지 국가적인 운영을 하였다. 이 때문에 봉수제도는 전 근대사회에서의 정보 통신 체계로서 가장 발전된 형식을 가진 것이 조선왕조였다.¹⁾

봉수는 성격에 따라京·內地·沿邊·權設烽燧로 구분되며 각 봉수별로 축조성격이 다른 만큼 구조·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이중天臨山烽燧는 위 봉수의 성격에 따른 구분 중內地烽燧이다. 내지봉수는極邊初面の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육지 내륙지역 소재의 봉수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내지봉수의 구조와 형태는 제도적으로 세종 29년(1447) 3월 의정부에서 병조의 呈狀에 의거하여 올린腹裏烽火排設之制가 마련됨으로써 시행되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성종 6년(1475)의 기록과 함께 제IV장에서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본 논고는 이상 설명했듯이 내지봉수로 성격지워지는 천림산 봉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 장별로 살펴 볼 것이다. 우선 제II장 史的考察에서는 조선 전 기간 발간된地誌의記錄에서 천림산 봉수 관련 기록을 발췌

1) 車勇杰, 「봉수」, 『한국성곽연구회 학술대회』(叢書5), 한국성곽연구회, 2004, p.1.

하여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 調査內容에서는 과거 3차에 걸친 조사내용의 소개를 통해 봉수의 조사경위 및 경기도 내 봉수로서는 최초 기념물로 지정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Ⅳ장 整備・復原案에서는 오늘날 한반도 남부지역 내 주요 내지봉수 중 정비·복원된 봉수의 소개를 통해 향후 천림산 봉수의 정비·복원안을 개진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이상 소개한 바를 재정리 함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II. 史的 考察

1. 朝鮮 前期

천림산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世宗實錄』 地理志(1454)로서 京畿 廣州府에 속하여 “烽火一處 穿川山 在州西 南准龍仁石城 北准京城木覓²⁾”이라 하여 천천산봉화 명으로 州의 西쪽에 위치하며 南쪽으로 龍仁 石城, 北쪽으로 京城 木覓에 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기록이 작성된 조선 초기에는 행정구역상으로 광주부에 속하였으며, 이후 朝鮮 全 時期에 걸쳐 운영되었던 봉수로 여겨진다.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광주목의 산천에서 穿川峴이 주 서쪽 30리에 있다 하였고, 봉수에서 “穿川峴烽燧 南應龍仁縣寶蓋山 北應京都木覓山第二烽³⁾”이라 하여 봉수노선에 변화는 없으나 중종 25년(1530)

2) 『世宗實錄』卷 148, 地理志 京畿 廣州

3) 『新增東國輿地勝覽』卷6, 京畿 廣州牧 烽燧.

이후에는 세종대의 穿川山 烽火가 穿川峴 烽燧로 改稱되었으며, 대응봉수명칭의 변화(龍仁 石城 → 龍仁縣 寶蓋山)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천천산에서 천천현으로의 개칭은 대개의 봉수가 山 또는 峴(嶺)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천천산과 천천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결국 穿川山 능선에 穿川峴이 있다고 판단된다.⁴⁾

2. 朝鮮 後期

조선 후기의 『東國輿地志』(1656)에는 “穿川縣烽燧 在州西三十里 南應龍仁縣寶蓋山 北應京都木覓山第二烽⁵⁾”이라 하여 州의 西쪽 30리에 소재한다고 하였다. 『輿地圖書』(1760)에는 구체적인 봉수명이 없이 “烽燧 在州西南二十里 南應龍仁石城山 北應京城木覓山⁶⁾”이라 하여 앞의 기록과 비교하여 방향과 거리의 차이(州西30里→州西南20里) 및 대응봉수명칭의 변화(龍仁縣 寶蓋山→龍仁 石城山)가 있다.

『萬機要覽』(1808)에는 “木覓山烽燧 自東至西五炬 東第一 準咸鏡江原兩道來 楊州峨嵯山烽 第二 準慶尙道來 廣州天臨山烽—第二炬 初起東萊多大浦鷹峰 自梁山彥陽慶州永川新寧義興義城安東禮安榮川奉化順興豐基丹陽淸風忠州陰城竹山龍仁廣州通于天臨山烽—已上 直烽四十處 間烽一百二十三處⁷⁾”이라 하여 직봉과 간봉의 구분 및 각 노선별로 구체적인 노선을 기록하고 있다.

헌종 12년(1846) 洪敬謨가 편찬한 『重訂 南漢誌』山川에는 “天臨山 在大旺面 西連淸溪上 有烽燧臺⁸⁾”라 하여 종래 穿川山 또는 穿川峴의 이름

4) 조병로, 「성남시의 교통·통신」, 『城南 天臨山烽燧』,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5) 『東國輿地志』卷2, 京畿道 廣州牧 烽燧

6) 『輿地圖書』京畿道 廣州府 烽燧

7) 『萬機要覽』卷1, 軍政篇 烽燧.

8) 『重訂 南漢誌』卷1, 上篇 山川

을 갖고 있던 烽燧의 위치에 대해 대왕면에 소재하며 서쪽으로 청계산에 연이어지는 天臨山에 봉수대가 있다고 기록하였으며, 봉수에서 “天臨山 烽燧 在大旺面 卽古穿川峴也 南應龍仁寶蓋山之嶺南傳烽 北應京都木覓山之第二峰 烽軍二十五名 保七十五名”이라 하여 현종 14년(1846) 이전에 천천현 봉수가 천림산 봉수로 개칭된 사실이 보이고 있다.

개칭된 구체적인 시기는 『英祖實錄』에 천림산 봉수의 명칭이 보이고 있는데, 즉 英祖 5년(1729) 6월 16일 木覓山과 鞍峴봉수에서 雲霧를 핑계로 봉화를 거화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兵曹가 봉수장과 봉수군을 불러 치죄하였는데, …(中略)… 또 목멧산에서 이미 봉화를 들지 않았는데도 광주의 천림산과 양천의 개화산 봉수에서는 일기에 날씨가 청명하여 서로 전해 받았다고 일컬었으므로 이 두 곳의 봉수인들에게도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뒤에 천림산 봉화는 목멧산에서 전해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버려두게 하였고 개화산은 목멧산에서 서로 전해 받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먼저 봉화를 철회했다는 것으로 개화산 봉수인만 치죄하였다⁹⁾라 하여, 천림산 봉수군은 다행히 치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기록이다.

이보다 약간 후에 발간된 『輿圖備志』(1849~1864)¹¹⁾의 봉수에는 부의 치소에서 서쪽으로 30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大東地志』(1862)의 산수에서는 봉수가 위치하는 천림산의 다른 이름으로 “月川峴 舊云穿川峴 西三十里¹²⁾”라 하고 있고, 봉수에서 “天臨山 一云 月川峴 西三十里¹³⁾”라 하여 天臨山을 달리 月川峴이라 하였으며 西쪽 30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는데, 월천현은 곧 조선 초기의 천천현으로 결국 천

9) 『重訂 南漢誌』卷3, 上篇 烽燧.

10) 『朝鮮王朝實錄』卷22, 英祖5年 6月 16日

11) 『輿圖備志』京畿道 左道 廣州府 烽燧, 天臨山 治西三十里

12) 『大東地志』卷2, 京畿道4都, 廣州府 山水 條.

13) 『大東地志』卷2, 京畿道4都, 廣州府 烽燧 條.

림산 봉수는 초기의 천천산 → 천천현 → 월천현 → 천림산 봉수 등으로 명칭의 변천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천림산이란 봉수 명칭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말미의 경기지역 봉수를 망라한 별도의 봉수에서 “天臨山 廣州 北準木覓山第二炬¹⁴⁾”라 하고 있다.

이후 발간의 『廣州府邑誌』(1871, 1899)에는 모두 앞의 『重訂 南漢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으며, 『增補文獻備考』(1908)에는 제2거 직봉의 봉수로서 천림산 봉수에 대한 시대별 별칭과 소속 및 이하 석성산·건지산·망이성 봉수 등 4기의 봉수가 모두 경기감사 소관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제시기 朝鮮總督府 中樞院에서 각 지방의 봉수를 조사하고 발간한 『烽燧調査表』에는 경성에서 부산까지의 경성 제2거 노선상의 天臨山 條에서 “天臨山 一名穿川峴 大旺面深谷里 廣州郡西南三十里 木覓山南四十里”라 하여 천림산 봉수는 일명 천천현 봉수라고 하며 大旺面 深谷里에 있으며, 광주군 서남쪽 30리 목먹산 남쪽 40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3. 小結

이상으로 天臨山 烽燧와 관련된 조선 전시기 발간 각종 지지의 기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봉수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봉화’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설치되어 조선 후기까지 이용되어진 봉수이다. 둘째, 봉수는 시대에 따라 명칭이 穿川山 → 穿川峴 → 月川峴 → 天臨山 烽燧 등으로 4차례의 명칭 변경이 있었다. 셋째, 봉수 명칭이 다양하게 변천한 것과 달리 봉수노선

14) 『大東地誌』권4, 京畿道20邑, 烽燧 條.

은 남쪽으로 용인 석성산 봉수(보개산 봉수), 북쪽으로 서울의 목멱산 봉수에 응하는 등 노선에 변화가 없이 일관성을 유지했다. 넷째, 천림산 봉수에 쏘을 쏜던 봉수군의 인원은 『重訂 南漢誌』(1846) 봉수의 烽軍 25名, 保 75名の 기록을 통해 봉군 5명이 조를 이루어 5교대로 월 평균 6일씩 번을 켜었다. 다음 봉군보 75명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 번을 서는 봉군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봉군 1인당 봉군보 3인씩이 배치되어 있었다.

III. 調査内容

1. 1次 調査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소재가 불분명하던 天臨山 烽燧의 조사기회는 우연하게 찾아왔다. 즉,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통일기원 봉화제행사가 성남본부의 주관 아래 그동안 봉수터로 여겨졌던 고등동 仁陵山(해발 326.5m) 정상에서 열렸다. 그 사실이 지역의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자, 기사를 본 금토동 출신의 성남주민 尹孝相씨가 신문사에 현 봉수의 위치를 제보하였다. 이에 관련자 등의 답사를 통해 그동안 위치를 모른 채 방치되어 왔던 현 봉수터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에 1996년 9월 10일 정도 100년을 기념한 제2회 통일기원 봉화제행사를 현 봉수터에서 개최한 이후 한동안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1999년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천림산 봉수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가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최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¹⁵⁾ 이를 통해 향후 천림산 봉수의 보존·복원 방향과 학술조사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2000년 4월 29일 성남시는 지역 학술기관인 토지박물관에 성남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에 동년 5월 3일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0일 착수계를 제출함으로써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때 천림산 봉수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는 성남시 문화유적 지표조사와는 별개로 지형현황 측량 및 봉수대 내부에 대한 평면도 작성과 2개소의 출입구, 당시 잔존하고 있던 3기의 석축 연조, 방호벽 등의 부속시설에 대한 평·입면도 작성을 통해 향후 발굴조사 및 정비·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¹⁵⁾

2. 2次 調査

2次 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0년 12월 11일 문화재청의 발굴허가(허가 제 2000-300호)에 따라 12월 30일 성남시와 천림산 봉수 발굴조사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2001년 1월 6일 착수계를 제출함으로써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장조사는 기후여건으로 인해 3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사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복원을 전제로 한 조사였기에 당초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봉수 내부와 관련시설 및 남쪽 방호벽 하단의 건물터에 대한 조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내지봉수로서는 유례가 드물 정도로 완벽한 5기의 연조가 확인되어 봉수 하부의 거화구조를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외에 동쪽 방호벽의 외곽 하단부로 평탄대지를 이루는 곳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결과 창고와 같은 임시 가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15)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천림산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논문집』, 1999.

16) 이에 대한 1차 조사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수록된 바 있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성남시, 『城南 天臨山烽燧 精密地表調査報告書』, 2000.

여겨지는 柱穴과 석렬유구 외에 많은 생활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또한 조사진행중에 개최한 지도위원회의를 통해 천림산 봉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조사범위의 확장 및 전면적인 재조사가 건의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성남시와 협의하에 조사기간의 연장을 통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시까지의 조사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¹⁷⁾

3. 3次 調査

3次 조사는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와 건물지 서편의 평탄지 등 수정구 금토동 8-6번지 일원의 약 302평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2002년 12월 24일 성남시와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시 이미 동절기에 접어든 상태여서 조사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2003년 4월 4일 현장조사를 시작하였다. 현장조사 착수 이후 예년과 달리 봄장마가 길게 이어졌고 조사지역 내에서 예기치 않은 유구가 노출되어 실제 현장조사는 동년 5월 20일 완료되었다.¹⁸⁾

4. 小結

현재까지도 국내 봉수유적 발굴조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3次的 조사가 실시된 천림산 봉수의 조사결과 및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수의 형태는 5기의 연조가 동·서 방향 일렬로 나란히 하면서 북쪽으로 서울의 남산 봉수를 향하고 있는 북쪽 방호벽과 호형(弧形)인

17) 이에 대한 2차 조사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수록된 바 있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성남시, 『城南 天臨山烽燧 發掘調査報告書』, 2001.

18) 이에 대한 3차 조사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수록된 바 있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성남시, 『성남 천림산봉수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2001.

남쪽 방호벽에 비해 남·북이 짧은 동·서 장축의 장반타원형이다. 동·남·북 3면이 석축(石築)으로 되어 있는 반면, 서쪽은 석축의 흔적이 없다.

둘째, 봉수의 전체규모는 둘레가 상단부 80m이며, 하단부는 86.9m 가량이다. 동서길이 33.6m, 남북길이 12m로서 그중 북쪽방호벽은 30m이고 동쪽방호벽의 동쪽은 7.8m, 동남쪽 8.2m로서 총길이 16m이며, 남쪽 방호벽은 29.3m이다. 아울러 봉수 내부의 전체면적은 333㎡(100평) 정도이다. 또한, 봉수의 구조상 해발 170m 가량의 나지막한 평지를 이루고 있는 능선상에 봉수 시설을 하였기에 현재 석축이 남아 있는 북·동·남쪽 방호벽 3면은 외측을 돌로 쌓고 내부는 원지형을 이용한 片築式이다.

셋째, 內地烽燧 축조방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봉수의 축조시 입지선정에 있어 산 정상보다는 접근이 양호하며 인근봉수와 서로 통망이 가능한 유리한 지점을 선정하였다.

넷째, 연조의 형태와 구조 및 거화시설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도의 2次 조사를 통하여 5기의 연조가 확인되었는데, 연조의 형태와 축조에 있어 최하단 기저부는 직경 3m 내의 方形을 기본으로 하여 안정감을 두고 내에는 할석으로 圓形의 빈 공간시설을 마련하여 상부로 올라가면서 좁혀 들어 축조하여 거화시 불과 연기가 잘 치솟아 오르게끔 하였다. 이에 따라 내벽과 외벽의 2중 구조인 外方內圓形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방호벽의 규모와 축조상태를 확인하게 되었다. 천림산 봉수는 현재 동·남·북 3면에 石築의 방호벽이 남아 있는데, 이 석축 방호벽은 현재 5개소의 연조시설이 인접해 있는 북쪽이 거의 원형으로 잘 남아 있다. 현재 동·남·북 3면으로 축조단수 8~12단 정도에 높이 70~150cm 가량의 비교적 낮은 규모이나 상부에 높이 1m 내의 담장지가 있었을 것을 추측하면 그 규모와 더불어 비교적 웅장한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

로 추측된다.

여섯째, 봉수의 동쪽과 북쪽 방화벽 상부에 일부 남아 있는 담장지의 하부구조를 통해 범위뿐만 아니라 향후 정비·복원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담장은 북쪽 방화벽 상부가 동에서 서로 넓이 50~55cm 가량 2열의 담장석렬 하부가 13m가량 남아 있으며, 동쪽 방화벽 상부의 담장지는 폭 1m, 길이 7.7m 가량의 하부구조를 통해 북쪽과 동쪽이 각각 너비를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곱째, 출입시설은 동쪽 방화벽에 인접하여 미약하나마 1개소가 있다. 현재 경기지역내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출입시설을 갖춘 봉수는 高陽의 禿山烽燧로서 이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면에서 천림산봉수와 유사한 安城의 망이산봉수와 더불어 동쪽방화벽에 인접하여 출입시설이 남아 있으므로 개략적이거나 일반적인 봉수 출입시설의 한 형태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여덟 번째, 연조뿐만 아니라 방화벽 축조의 재료를 확인하게 되었다. 전체가 石築으로 축조되어진 봉수는 기타 부속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양의 석재를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봉수는 城郭과 비교하여 국가가 대규모의 공력을 들여 축조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석축재료에 약간의 가공을 하였거나 치석을 가한 흔적이 없으며 인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화강암 석재를 이용하였다.

IV. 整備·復原案

본 장에서는 제1절 內地烽燧의 構造에서 『世宗實錄』의 내지봉수에 관한 규정인 腹裏烽火排設之制에 의거하여 내지봉수의 구조·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지봉

수 추정도와 일제강점기 발간된 자료를 근거로 두 가지 유형의 내지붕수 추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제2절 內地烽燧의 整備·復原事例에서는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 내 남아 있는 약 500기의 봉수 중 내지붕수로서 정비·복원이 이루어진 12기를 대상으로 여섯 가지 유형의 정비·복원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內地烽燧의 構造

內地烽燧는 최전방 변경이나 해안 요충지에 위치하였던 연변봉수에 비해 육지내륙의 후방지역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봉수군의 근무여건이 고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이 적었다. 따라서 연변봉수에 비해 규모가 작았으며 구조·형태가 다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거화 및 운영유지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물품은 동일하게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내지붕수는 세종 29년(1447) 3월 의정부에서 병조의 呈狀에 의거하여 올린 건의중에 沿邊烟臺造築之式과 腹裏烽火排設之制가 동시에 마련되어 시행되게 됨으로써 구체적인 내지붕수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즉 腹裏[內地]의 봉화는 연변지방에 있는 연대의 비교가 아니니, 전에 있던 배설한 곳에 연대를 쌓지 말고 산봉우리 위에 땅을 쓸고 연기 부엌을 쌓아 올려 위는 뾰족하게 하고 밑은 크게 하며, 혹은 모나게 하고 혹은 둥글기도 하며, 높이는 10척에 지나지 않게 하고, 또, 垣牆을 둘러쌓아 흉악한 짐승을 피하게 하며 …(下略)…¹⁹⁾의 기록을 통해 연조의 기단은 크게 方形 혹은 圓形으로 하고 위는 뾰족한 형태에 높이는 10尺(3m)을 넘지 않는 연조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또 흉악한 짐승을 피하기

19) 《世宗實錄》卷115, 世宗 29年 3月 4日 丙寅 腹裏烽火 非沿邊烟臺之比 勿築臺 於在前排設峯頭 除地築烟竈 上尖下大 或方或圓 高不過十尺 且○以垣牆 以避惡獸

위해 垣牆을 동시에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성종 6년(1475)에는 왕이 병조에 내린 전교에

낮에 알리는 것은 반드시 연기로 하는데, 바람이 불면 연기가 곧바로 올라 가지 못하므로 후망하기 어려우니, 이제 봉수가 있는 곳에는 모두 煙筒을 만들어 두게 하라. 바람이 어지러워 연기가 흩어져 후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곳의 봉수군이 달려와서 고하여 전보하도록 하라 …(下略)…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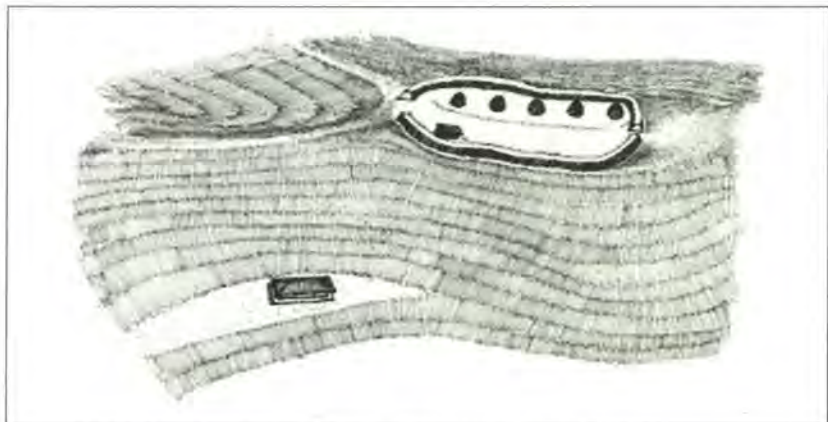
의 기록을 통해 기존의 봉수대 시설에 추가로 ‘煙筒’을 모든 봉수마다 설치하고 후망불능시 직접 봉군이 다음 봉수로 달려가서 알리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성종 6년 이후로 모든 내지봉수는 煙竈·垣牆·煙筒의 세 요소를 필히 갖춘 모습을 하였던 것이다.

위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이철영은 天臨山烽燧를 모티브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지봉수 추정도를 작성하였다. 방호벽내 5기의 煙竈와 거화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 假家 및 동·서로 2개소의 개방식 출입시설이 마련된 평면 장타원형의 형태이다. 아울러 봉수 방호벽 외부 남쪽 하단 부에는 봉수군의 가옥을 1동 배치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내지봉수의 구조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일례로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와 향남면 동오리 경계의 해발 248m인 棲鳳山 정상에 소재하는 棲鳳山 烽燧에 대한 『華城城役儀軌』의 관련기록을 들 수 있다. 이하 畵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봉산 간봉에는 또한 다섯 개의 화두(火竈)를 잡석대 위에 설치하였는데, 화두의 높이 11尺이고 아래 둘레 13척인데, 돌로 쌓고 회를 발랐다. 허리 부

20) 《成宗實錄》卷55, 成宗 6年 5月 27日 乙亥



도면1. 內地烽燧 推定圖1(이철영 작성)

분과 꼭대기에 모두 햇불 아가리가 있는데, 동쪽으로 화성부의 봉화독의 봉화에 준하고 있다. 대 아래 산허리에 4칸의 공간을 지어 군대 물품을 저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守直廳을 지었다.²¹⁾

이상으로 조선시대에는 度量衡의 단위로 營造尺이 널리 통용되었고, 1尺의 단위길이는 31.0cm 내외이었음을 고려하면²²⁾ 화두의 높이 11척은 대략 3.3m이며, 아래 둘레 13尺은 대략 3.9m의 규모가 상정된다. 이를 통해 화두의 아래는 상부보다 크고 넓게 하여 위로 갈수록 좁혀서 높이 3m가 넘는 한 개 화두의 규모가 짐작된다. 한편 축조시 ‘돌로 쌓고 회를 발랐다(石築塗灰)’는 내용을 통해 향후 봉수의 복원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 거화와 관련하여 ‘허리 부분과 꼭대기에 모두 햇불 아가리가 있는데(腰頂俱有炬口)’의 내용은 화두의 중간부분에 거화를

21) 樓鳳山間烽 亦設五火竈 於雜石臺上 火竈高十一尺 下圍十三尺 石築塗灰 腰頂 俱有炬口 東準於府墩之烽而 臺下山腰 建四間庫舍 以儲軍物 又其下守直廳(《華城城役儀軌》卷首 圖說)

22) 尹張燮, 「韓國의 營造尺度」, 《篠愚尹張燮教授華甲紀念論文》, 1975, p.76.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서 배출된 연기가 꼭대기를 통해 배출되도록 시설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해방이후인 1947년 車相瓚 先生의 遺稿를 모아 明星社에서 발행한 『朝鮮史外史』 第1卷에 소개된 「烽火의 設置方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해방을 전후하여 당시 온전하게 남아 있던 봉수를 실견하고 소개한 내용으로, 그 당시 봉수의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봉수의 정비·복원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므로 그 全文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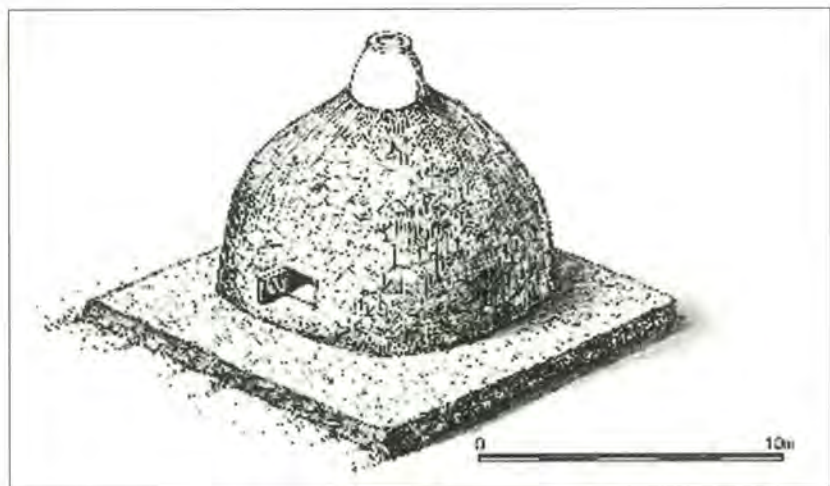
봉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봉(烽)이요 또 하나는 수(燧)다. 봉이라 한 것은 화(炬)에 불을 켜서 서로 알게 하는 것이니 밤에만 쓰는 것이요. 수는 나무에 불을 피워서 그 煙氣를 서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니 낮에 하는 것이다.

화는 普通으로 쓰는 화와 같이 대개 싸리나무로 만들고 그 속에 관솔(松明)을 넣지만 수는 쏘나무를 쌓고 그 우에다 狼糞(이리똥) 또는 馬糞(말똥)을 피운다. 여기에 特別히 마랑분을 쓰는 것은 랑분은 아모리 바람이 불어도 그 煙氣가 항상 一直線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를 狼煙이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그리고 봉화를 드는 方法은 우에도 잠간 말한바와 같이 不時에는 불을 하나를 들고 敵이 현형을 하면 불을 둘을 들고 國境에 가깝게 오면 또 셋을 들고 國境을 범하면 넷을 들고 또 敵軍과 서로 접전을 하게 되면 다섯을 드나니(經國大典 參照)金三淵昌翁의 烽火歎 이란 글에 「0常一炬報平安 其餘應讀惟所逢 二現 三近 四越江 五炬乃知寇乘墉 0상한 햇불은 平安을 報함이오 其外에는 만나는 대로 따라서 변하는데 둘은 나타남이고 셋은 가깝고 넷은 江을 건너서고 다섯째는 그제서 도적이 담에 오른 것을 알겠노라」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봉화를 설치하는 方法은 다개 中國兵書에 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채용한 듯하니 첫째 位置에 있어서는 每三十里마다 한 봉화를 두되 그곳에서 第一 높은 곳에다 두고 또 山이 서로 가리고 막혀서 自然히 不

便할 때에는 里數에 불구하고 서로 바라볼 만한 程度의 거리에 두고 萬一 國境까지 臨하게 될 때에는 烽火의 周圍에다 성첩을 쌓았다. 그 다음에 烽火를 설치하는 方法은 한 烽火台마다 흙으로 만든 통이 네 개가 있으되 통 사이에는 火台 네 개가 있고 台上에는 말뚝을 박아서 燄을 安全하게 하였다. 그리고 各통의 相距는 約 二十五步式으로 하나 山이 험하고 땅이 험작하여 二十五步의 거리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만 불만 서로 상응하여 잘 비치게 하도록만 하고 그 遠近은 꼭 제한하지 않았다.

연통의 높이는 約 一丈五尺인데 절반 以下부터는 四面의 各各 넓이가 約 一丈一尺이고 절반 以上부터는 위로 올라가면서 漸次 좁게 되었다. 또 통을 만드는 데는 먼저 內面을 진흙으로 바른 다음에 表面 또한 진흙으로 쳐발려서 연기가 새나오지 못하게 하고 통우에는 밀이 없는 옹기둥이를 만들어서 덮었으니 그것은 물론 연기를 잘 나가게 하느라고 그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아래에는 검은 화로에 부엌아궁이 있으니 땅에서 約 석자거리 되게 만들고 上下左右가 各各 一尺五寸이 되어 네모 반듯하고 門을 해달아서 自由로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하고 그 화로의 아궁이문은 속에다 나무를 넣고 진흙으로 잘 싸발라서 불길에 타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 烽筒밖에는 四方으로 모도 깊은 구덩이를 파서 다른 곳과 불이 타지 않도록 하였다. 烽所에 預備 저장하는 물건은 대개 쉼나무·벚집·材木 등인데 秋成하기 前에 特別히 쭉대·쭉잎·갈대·풀마디(草節) 등을 베어 말려가지고 한데 섞어 묶어 불쏘개에 쓰게 하고 쉼나무저림(麻莖)·狼糞·引火之物을 쌓아둔 곳에는 또한 구덩이를 四方으로 둘러파서 火災가 범하지 않도록 防備하였다.

는 내용이다. 위의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이철영은 도면 2와 같은 내지봉수 추정도를 작성하였다. 방형의 기단부 위에 마련된 연조는 무릎 위의 높이에 거화를 위해 네모난 火口와 연조 상부 밑이 없는 옹기를 이용한 연통시설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지봉



도면2. 內地烽燧 推定圖1(이철영 작성)

수의 정비 및 복원과 관련하여 위의 도면1과 더불어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內地烽燧 整備 · 復原事例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내 잔존 약 500기의 봉수 중 內地烽燧로서 정비 · 복원이 이루어졌거나 추진중인 봉수는 약 20여 기 내외로 추정된다. 이들 봉수에 대해 유형별로 정비 · 복원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굴 · 발굴과 같은 학술조사 후 원형에 가깝게 정비 · 복원이 추진중인 모범적인 사례로서 성남 天臨山, 공주 月城山, 청주 巨叱大山 烽燧가 있다. 천림산 봉수는 경기도기념물 제179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 32번지 일대의 淸溪山 동쪽 기슭인 해발 170m 가량의 나지막한 구릉능선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 전기이며 노선과 성격상 제2거 적봉의 내지봉수이다. 규모는 전제둘레가 85m 가량이며 동서길이

33.8m, 남북길이 12m이다. 토지박물관의 3차에 걸친 학술조사를 통해 장반타원형의 방호벽내에 외방내원형의 연조 5기가 확인되었다.²³⁾ 향후의 정비·복원에 대비하여 원형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월성산 봉수는 공주시 향토유적 제15호. 충남 공주시 소학동의 해발 312.6m인 월성산 북쪽 봉우리 정상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 전기이며 노선과 성격상 제5거 직봉의 내지봉수이다. 규모는 전체둘레가 81.4m 가량이며 동서길이 12m, 남북길이 34.6m이다. 2003년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내지봉수의 일반적인 규모와 형태임이 확인되었다.²⁴⁾ 향후의 문화재지정 및 정비·복원에 대비하여 원형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갯대산 봉수는 충북 문화재자료 제26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해발 443.4m인 산봉우리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 전기이며 노선과 성격상 제2거 간봉(9)의 내지봉수이다. 1995년 발굴조사²⁵⁾를 바탕으로 북쪽과 동쪽의 방호벽과 담장의 일부가 복원되었다. 또한 최근 행사를 위해 사진과 같은 연조 1기의 복원 후 최근 전체 5기를 복원하였다. 2008년 중원문화재연구원에 의한 발굴조사를 통해 규모는 전체둘레가 73.3m이며 동서 최대 26.5m, 남북 최대 16.3m임이 확인되었으며 정비·복원이 이루어졌다.²⁶⁾

둘째, 과거 지표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5개소의 연조 및 창고지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진 양산 渭川 烽燧가 있다. 봉수는 경남 기념물 제118호.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의 해발 325m인 원적산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 전기이며 노선과 성격상 제2거 직봉의 내지봉수이다. 1991년

2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城南 天臨山烽燧 精密地表調査報告書』, 200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城南 天臨山烽燧 發掘調査報告書』, 200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성남 천림산봉수 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2003.

24) 공주대학교 박물관, 『月城山烽燧臺 試掘調査 結果概略報告』, 2003.

25) 청주대학교 박물관, 『청주 갯대산봉수터 발굴조사보고서』, 2001.

26) 중원문화재연구원, 『청주 갯대산봉수-발굴조사 약보고서』, 2008.



사진 1 성남 천림산 봉수(발굴조사 후)



사진 2 공주 월성산 봉수(발굴조사 후)



사진 3 청주 갯대산 봉수 사진



사진 4 청주 갯대산 봉수 연조(복원)

원적산 봉수대 보존회에 의한 지표조사²⁷⁾가 이루어졌다. 瓦家 建物址와 火德址 등이 조사되었으며, 형태는 직방형과 타원형의 방호석축이 연결된 복합형으로 현재 복원이 이루어졌다. 부속시설은 방호벽, 연조, 건물지, 창고지 등이 있다. 이중 수원 화성봉돈을 모방하여 복원한 연조는 그 규모가 소형인 데다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셋째, 발굴조사 후 방호벽과 연조 및 기타 부속시설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진 충주 周井山 烽燧와 진주 廣濟山 烽燧가 있다. 주정산 봉수는 충북 기념물 제113호. 충북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의 해발 440.2m인 산정상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 전기이며 노선과 성격상 제2거 간봉(2)의 내지봉수이다. 방호벽과 계단식 출입시설 및 연조와 창고지 등이 조사되었다. 규모는 남북 최대 21m, 동서 최대 11m에 달하는 긴 타원형태임이 확인되었다.²⁸⁾

27) 圓寂山烽燧臺 保存會, 『梁山圓寂山烽燧臺 精密地表調査報告』, 1991.

28)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忠州 周井山烽燧臺 發掘調査報告書』, 1997.



사진 5 양산 위천 봉수(복원)



사진 6 양산 위천 봉수 연조(복원)

광제산 봉수는 경남 진주시 명석면 덕곡리의 해발 472m인 광제산의 남쪽 봉우리 정상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노선과 성격상 제2거 간봉(9)의 내지봉수이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한 2003년의 시굴 조사²⁹⁾와 2004년 발굴조사³⁰⁾를 통해 규모는 동서길이 약 30m, 남북길이 8~14m이다.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한 시굴·발굴조사 후 방호벽과



사진 7 충주 주정산 봉수 방호벽(복원)



사진 8 충주 주정산 봉수 연조·방호벽



사진 9 진주 광제산 봉수(복원)



사진 10 진주 광제산 봉수 연조(복원)

29)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晉州 廣濟山烽燧臺 試掘調査報告書』, 2003.

30)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晉州 廣濟山烽燧臺』, 2006.



사진 11 청도 남산 봉수



사진 12 아산 연암산 봉수 연조군(복원)

방호벽 북쪽에 외방내원 형태로 3개소의 연조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넷째, 비록 봉수에 대한 학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호벽에 대한 부분 정비를 통해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된 청도 南山烽燧가 있다. 봉수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의 해발 804m인 봉우리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 전기이며 노선과 성격상 제2기 간봉(8)의 내지봉수이다. 규모는 전체둘레가 50.3m 가량이며 동서길이 17.4m, 남북길이 11.8m이다. 봉수는 원래 기저부만 남아 있었으나, 20여년 전 청도군에 의해 기저부 위로 방호벽 석축을 올리고 계단식 출입시설을 마련하는 등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섯째, 위와 마찬가지로 비록 봉수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호벽과 계단식 출입시설에 대한 부분 정비 및 방호벽내 5기 연조 중 1기에 대한 복원 및 4기의 연조 하부를 마련한 아산 燕巖山烽燧가 있다. 봉수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와 소동리의 경계인 해발 276m인 연암산 정상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 중기이며 노선과 성격상 제5기 직봉의 내지봉수이다. 평면형태는 장란형이며 2000년 아산시에 의해 복원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정식적인 학술조사 없이 사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원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사천 鞍岾山烽燧, 진주 望晉烽燧, 예천 龍飛山

烽燧, 순천 城隍堂 烽燧 등이 있다. 특히, 망진 봉수는 입지적으로 그 자체가 봉수 성격상 內地烽燧임에도 연변 봉수 형태로 복원이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그나마 잔존유지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봉수의 원형이 훼손되고, 사실과 다른 형태의 복원을 통해 봉수 본래의 모습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이들 봉수의 정비·복원 주체는 대부분 시·군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로서 관광자원화 목적에서 임의로 복원되었다.

이들 복원이 이루어진 봉수를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 안점산 봉수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175호.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의 해발 310m인 안점산 정상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 전기이며 노선과 성격상 제5거간봉으로 연변·내지 점점에 위치한다. 1993년 9월 복원을 통해 원형의 석축연대 내부의 서북쪽에 5기의 연조를 진주 망진 봉수로 향하여 반구형으로 배치한 특이한 복원 형태이다. 복원 연조는 높이 150~160cm, 하부 둘레 440~450cm의 규모로 40×40cm의 방형 화구는 지표에 바로 인접하고 있다. 남동쪽에는 폭80cm의 출입시설이 1개소 마련되어 있다.

망진 봉수는 경남 진주시 망산동의 망진산 정상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 전기이며 노선과 성격상 제2거간봉(9)의 내지봉수이다. 과거 민간단체에 의해 연변봉수 형태로 원형의 연대 1기를 복원하였다.

비룡산 봉수는 경북 예천군 향석리 비룡산에 위치한다. 직경 3.7m, 높이 2.7m의 정방형 규모로 2000년 12월 예천군에서 기 복원되어져 있던 봉수를 사진처럼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2차에 걸쳐 다시 복원하였다. 원래의 위치 여부는 불확실하며 하천석 및 양회와 석회를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북쪽에 방형 화구를 한 개소 마련하였다.

성황당 봉수는 전남 순천시의 해발 355.3m인 烽火山 남쪽 봉우리 정상에 위치한다. 초축시기는 조선 전기 이전으로 추정되며 노선과 성격상 제5거간봉(1)의 내지봉수이다. 1990년 11월 봉화산 남쪽 봉우리에 3기



사진 13 안점산 봉수(복원)



사진 14 진주 망진 봉수(복원)



사진 15 예천 비룡산 봉수(1차 복원)



사진 16 예천 비룡산 봉수(2차 복원)

의 연조를 ‘品’ 자형으로 복원하였다. 비록 연조는 사실과 다른 모습이나 연조 주위 방호벽과 남·북에 출입시설이 각 한 개소씩 잔존하고 있다.



사진 17 순천 성황당 봉수

V. 맺는말

이상으로 본 논고는 각 장별로 성남 천림산 봉수의 향후 바람직한 정비·복원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조사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內地烽燧로 성격지워지는 천림산 봉수에 대해 제II장 史的 考察에서는 조선 전기간 발간된 地誌의 記錄에서 천림산 봉수 관련 기록을 발췌하여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소결을 통해 첫째, 봉수는 조선 전시기에 걸

처 운용되었으며 둘째, 봉수는 시대에 따라 穿川山→穿川峴→月川峴→天臨山 烽燧 등으로 4차례의 명칭 변경이 있었으며 셋째, 봉수명칭이 다양하게 변천한 것과 달리 봉수노선은 남쪽으로 용인 석성산 봉수(보개산 봉수), 북쪽으로 서울의 목덕산봉수에 응하는 단일 노선이었으며 넷째, 천림산 봉수에 짚을 섰던 봉수군 인원은 봉군 5명이 조를 이루어 5교대로 월 평균 6일씩 번을 섰으며, 봉군 1인당 봉군보 3인씩이 배치되어 있었음을 소개하였다.

제Ⅲ장 調査內容에서는 과거 3차에 걸친 조사내용의 소개를 통해 봉수의 조사경위 및 경기도 내 봉수로서는 최초 기념물로 지정받게 되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소결을 통해 첫째, 봉수의 형태는 장반타원형으로 동·남·북 3면이 석축(石築)으로 되어 있는 반면, 서쪽은 석축의 흔적이 없으며 둘째, 봉수의 전체 규모는 둘레가 상단부 80m, 하단부는 86.9m 가량이며, 셋째, 봉수의 축조시 입지선택에 있어 산 정상보다는 접근이 양호하며 인근봉수와 서로 통망이 가능한 유리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넷째, 연조의 형태와 축조에 있어 내벽과 외벽의 2중 구조인 外方內圓形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방호벽의 규모와 축조상태 여섯째, 봉수의 동쪽과 북쪽방화벽 상부에 일부 남아 있는 담장지의 하부 구조를 통해 북쪽과 동쪽이 각각 너비를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곱째, 출입시설은 동쪽방호벽에 인접하여 1개소 남아 있으므로 개략적이나마 일반적인 봉수 출입시설의 한 형태를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여덟 번째, 연조뿐만 아니라 방호벽 축조의 재료, 석축 재료에 약간의 가공을 하였거나 치석을 가한 흔적이 없으며 인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화강암 석재를 이용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제Ⅳ장 整備・復原案에서는 오늘날 한반도 남부지역 내 주요 내지봉수 중 정비·복원된 봉수의 소개를 통해 향후 천림산 봉수의 정비·복원안을 개진하였다. 이를 위해 제1절 內地烽燧의 構造에서는 조선 세종 29

년(1447) 국가에서 내지붕수의 구조와 운영을 위한 시설 규정을 제도화한 사실을 문헌기록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지붕수 추정도와 일제강점기 발간된 자료를 근거로 두 가지 유형의 내지붕수 추정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지붕수의 정비·복원과 관련하여 비록 상부구조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고증은 곤란하지만 과거 내지붕수의 구조·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제2절 內地烽燧整備·復原事例에서는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내 잔존하는 약 500기의 봉수 중 내지붕수로서 정비·복원이 이루어졌거나 추진중인 봉수 12기를 대상으로 여섯 가지 유형의 정비·복원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봉수의 조사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비·복원을 추진중인 사례도 있으나, 학술조사와 정확한 고증 없이 사실과 다른 형태로 복원된 사례의 소개를 통해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비·복원방향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제V장에서는 이상 소개한 바를 재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여 보았다.

부록_천림산 봉수대 복원 설계(안)

1. 설계도면 작성배경

수차례에 걸쳐서 천림산 봉수대의 설계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실제 도면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천림산 봉수대 실측조사 및 관련 문헌과 전국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봉수대 관련시설을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하여 설계하게 되었다.

1) 천림산 봉수설계를 위한 자료

a. 천림산 봉수지 원형복원 시민종합토론회(2006. 7. 4)

〈김주홍 위원 의견〉

출입시설 : 봉수지 동쪽에 출입시설 1개의 복원이 고려된다.

3단정도의 계단이 요구된다. 고양 독산 봉수의 계단식 출입시설 참조

〈윤종준 위원〉은 봉수대 남쪽에 봉수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실측조사에서 보고되어 동선상 남측에 출입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동남쪽에 출입구가 있고 큰 석재가 5~6매 놓여져 있다.)

방호벽 상부 : 북, 동, 남면의 방호벽 상부 담장을 일정 높이로 복원한다(충주 주정산 봉수 참조)-두께 40cm, 높이 50~60cm 정도

연조 : 양산 위천 봉수와 같이 5개 연조의 복원 방안

재료 : 사용된 석재는 현지에서 사용된 재료

〈종합고찰〉

조유전, 차용걸, 이재, 조병로의 의견에 따르면 봉수지 인근의 건물지가 봉수관련 건물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봉수군의 막사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봉수지의 남측 하단에 봉수군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물지의 발견으로 봉수지와의 연결통로(계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b.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9집

제1연조

연조는 석축 사이를 점토로 다져놓았다.

*조사과정에서 연조의 하부에서 불을 땀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연조의 중간지점에 아궁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9집 95쪽)

직경이 3m인 방형의 기단위에 직경 2m의 원형연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석재 크기가 10cm에서 60cm인 각종 돌로 조적하였다.

연조의 중간지점에서 불을 피우기 위한 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9집 95쪽)

〈설계반영〉 거화구는 연조 높이의 1/3정도의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화구의 위치가 높을수록 석재가 많이 소요되고 연조내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조의 바닥에서 33cm(약 1자)와 67cm(약 2자) 사이에 아궁이를 설치한다. 이는 작업자의 불지피는 작업이 편하고 기초부가 구조적으로 견고하며 우천시에도 물이 잘 빠져서 기능적임.

수원의 화성이나 남산의 봉수대는 거화구의 위치가 1m 내외로 높게 설치되어 있으나 천림산 봉수대에서는 석재의 조적방식이나 접착제(진흙)의 성질로 보아 규모가 작을 것으로 판단되어 거화구의 위치나 연조

의 높이를 다소 작게 설계하였다.

제2연조

연조의 크기는 1.5m~1.6m 정도이고 1연조에서 서쪽으로 약 5.4m정도 이격되었다.

제3연조

2연조와 서쪽으로 6.1m 거리에 있고 연조의 크기는 남북 2m, 동서 3m 정도의 직경이다. 설계시 2.5m 직경으로 한다.

제4, 5연조

제4연조는 도면상 직경이 2m, 제5연조는 2.5m 가량 된다.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12집 59쪽 도면 참조)

연조의 직경에 따른 연조 높이는 1.3배에서 1.5배 내외정도가 많아서 여기서는 1.3배를 적용하였다.(예. 청주 것대산 직경 1.62m, 높이 2.11m <노출토관 제외>로서 약 1.3배)

따라서 연조의 대략 높이는 1연조는 $2\text{m} \times 1.3 = 2.6\text{m}$, 2연조는 $1.5 \times 1.3 = 1.85\text{m}$,

3연조, 5연조는 $2.5\text{m} \times 1.3 = 3.25\text{m}$ 4연조는 $2\text{m} \times 1.3 = 2.6\text{m}$

단, 굴뚝상부의 웅기노출 길이는 제외한다.

2) 2001년도 2차조사(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 12집)

5기의 연조가 확인되었고 연조가 외벽과 내벽의 2중구조로 되었다

(이는 연조의 벽을 쌓을 때 2중으로 겹쳐서 쌓았다는 증거다.)

북쪽 방화벽(옹벽)

1연조에서 3연조까지 높이 50~55cm 가량 2열의 담장석렬이 13m 가량 남아 있다.(65쪽)

북쪽 방화벽은 65도의 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기저부에는 54*24, 60*26, 70*28, 90*19cm 등의 풍화암반층 위에 석재를 사용하였다.(66쪽)

방화벽(옹벽위에 설치)

방호벽은 1m 내의 담장지일 것이다.(설계에서는 높이 50~60cm 정도로 함)

연조의 높이는 약 3m 정도이다(이는 설계시 연조의 직경에 따라서 가로 세로에 대한 비례를 고려하여 서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조의 높이는 연조의 직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 차상찬 선생의 봉수구조에 대한 유고집

연조의 구조가 절반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좁게 된다.

연조 위에는 옹기둥이를 설치한다.

화구는 바닥에서 약 3자 위치에 설치한다.

d. 이철영 교수의 내지봉수 추정도

방형의 기단 위에 연조설치를 한다. 연조 위에는 옹기를 이용한 연통을 설치한다.

e. 청주 것대산 봉수대

청주 문화원에서는 과거에 시공하였던 봉수대를 철거하고 새로이 시공하였다. 이는 천림산 봉수대와 유사한 점이 많아서 여러 분야에서 검토한 결과 천림산 봉수대 설계에 참고하기로 하였다.

f.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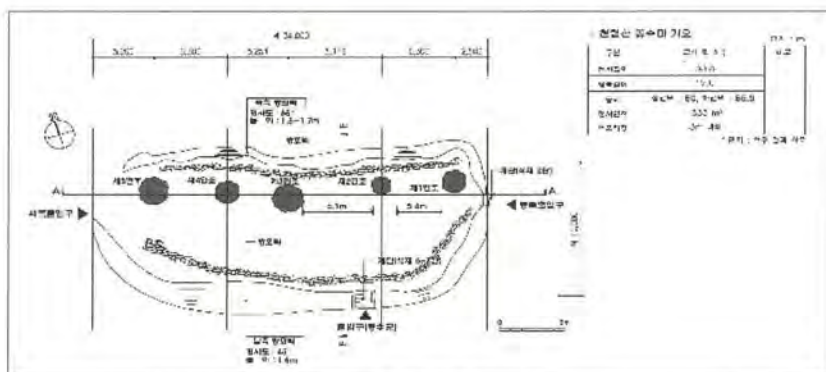
금토동에서 청계산으로 오르는 동남쪽 출입구(계단)과 동쪽에서 오르는 2개소의 출입구가 있다.

① 동쪽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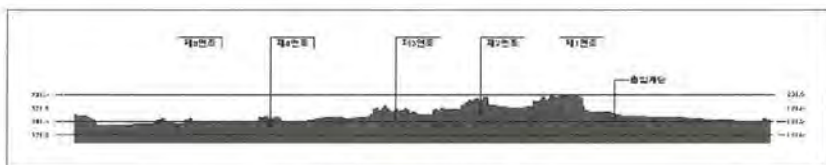
봉수대로 들어가기 위해 평평한 석재 3매(단)를 고아서 45도 경사로
동벽석축에 기대어 있다. (전계서 113쪽)

② 동남쪽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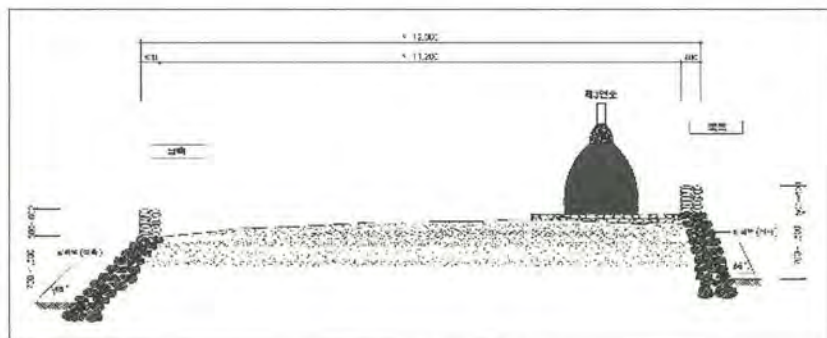
높이 1.2m가량 6~7단의 석축으로 되어 있으며, 경사도는 45도를 유지한다.(전계서 1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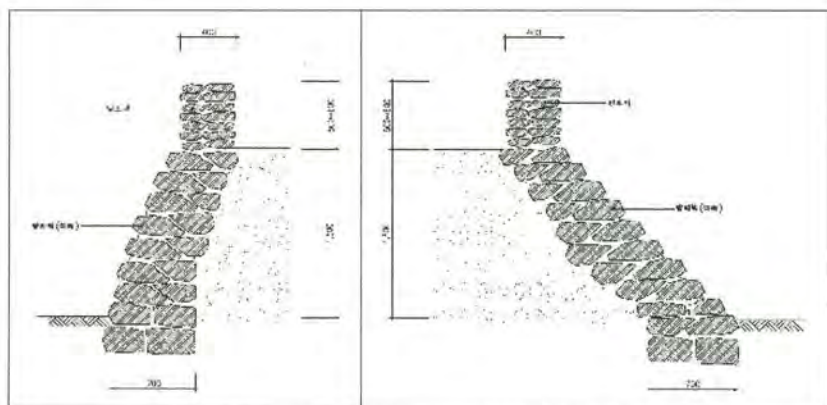
[도면3] 봉수대 배치도



[도면4] A-A 단면도(형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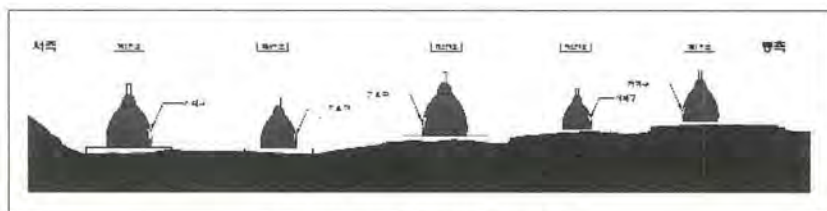


[도면5] E-E 단면도(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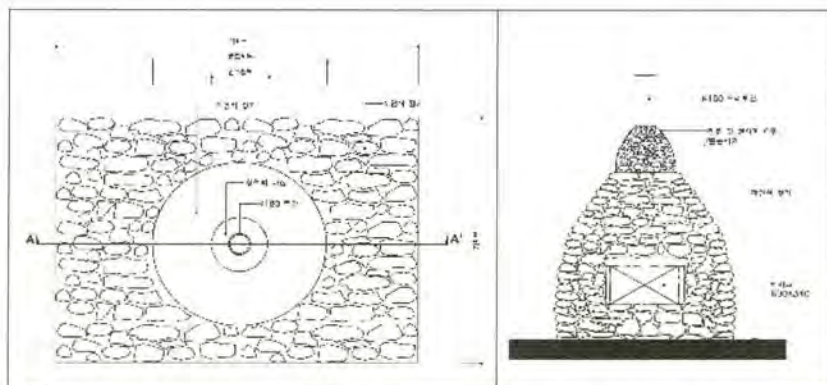


[도면6] 북측 방화벽 단면도

[도면7] 남측 방화벽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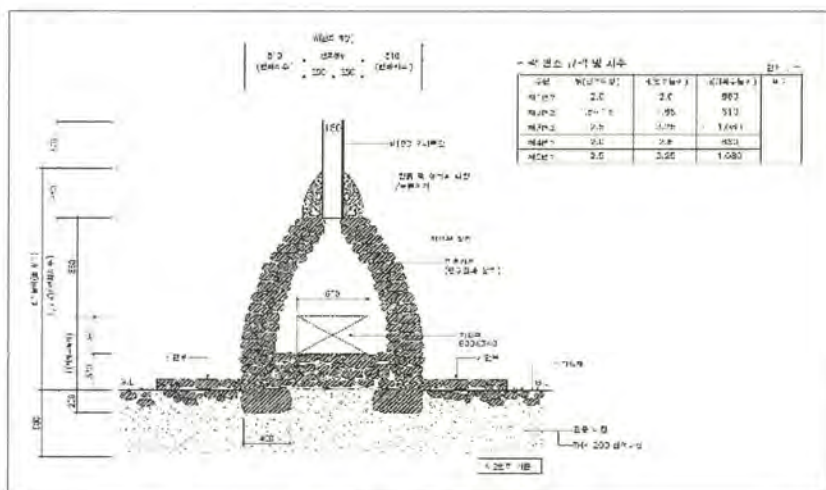


[도면8] 연조별 거화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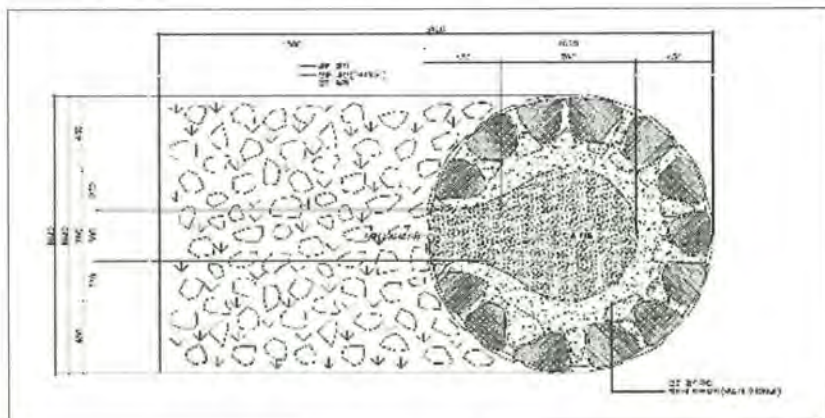
[도면8] 연조 평면도

[도면9] 제2 연조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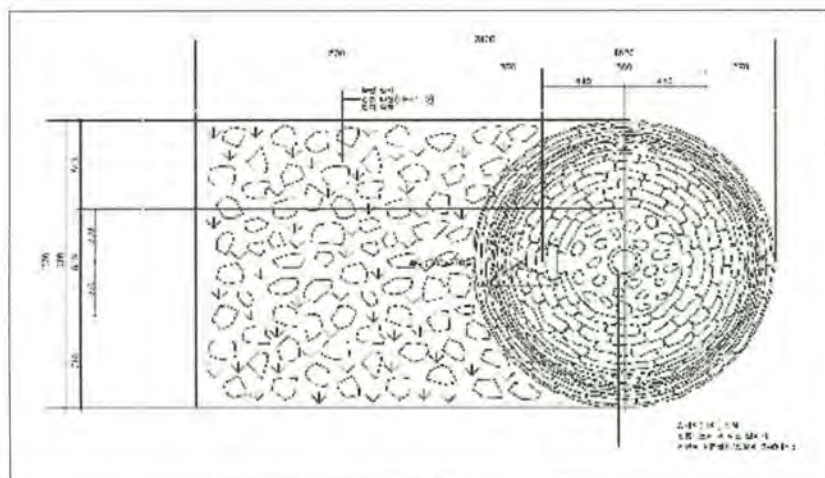


[도면10] 제2 연조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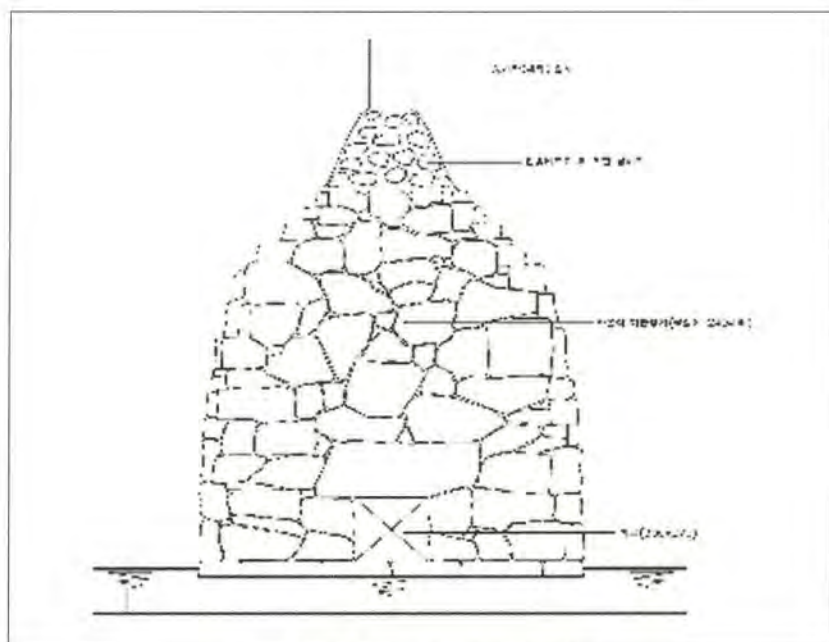
참고사항으로 청주에 있는 것대산의 시공도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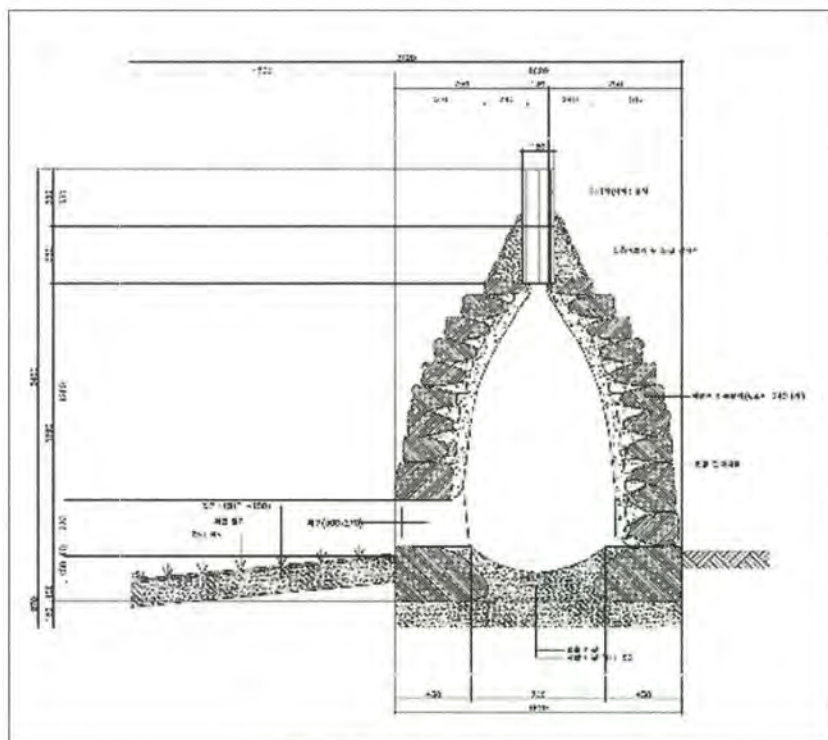
[도면11] 봉돈 평면도(청주 것대산)



[도면12] 봉돈 상부 평면도(청주 것대산)



[도면13] 봉돈 입면도(청주 갯대산)



[도면14] 봉돈 단면도(것대산)

성남 관할의 서원(書院) · 사당 조사 자료

한춘섭

(향토사학 · 국문학자 · 시조시인 · 성남문화원장, 《성남문화유산》 외 다수 論著)

◆ 차례 ◆

- I. 처음 말하기
- II. '서원' 발자취 말하기
 - 1. 서원 옛 모습 찾기
 - 2. 경기도 서원 찾기
 - 3. '광주(廣州)' 안에서 서원 · 사우 찾기
- III. 성남시 각 마을의 사우(祠宇) 및 서당 찾기

I. 처음 말하기

신도시 성남시의 경우는 전통문화 조사, 연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 고장 선대(先代)들의 발자취를 살피려 해도 본토 후손들의 증언과 일치되는 문헌이나 현장 유물들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로 인한 옛 마을이나 산천계곡들이 상당부분 신도시 개발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결국, 증언이거나 추정(推定) 논리로 자료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

광주군 행정 관할의 4개 면사무소 구역이었던 오늘의 성남시 지역에 서 16세기 이후의 사설 교육기관이었던 서원(書院) 또는, 사당과 서당을

조사, 정리하면서 옛 마을들의 자취를 밝힌다는 일이 명확치 않고, 전해지는 자료도 엉성하며, 고증될 만한 현장 증언조차 희소한 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성남 일원의 각 시대별 역사와 한강권을 축으로 흥망 성쇠 역사 속 크고 작은 각 성씨별 선비들의 이야기를 간추려 볼 때 서원-향교-사당-서당의 자료 정리야말로 반드시 한 편 논문 속 몇 줄이라도 조사·정리할 일이 이 시대의 몫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신도시 현대만이 성남시 문화와 역사의 전부인 양 알고 사는 다음 세대들에게 서원 버금가는 향교와 존현(尊賢)들을 추향하는 각 문중 사우(祠宇) 그리고, 서당자료를 검토해 볼 지역의 전통문화 보금자리를 찾아 새 시대의 '문화 터전'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성남시에는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시설이 140여 곳이 넘고, 도서관과 각종 학원교육 시설 그리고,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전용시설이 적지 않게 많은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계층별·연령대별로 이용되는 교육·문화공간 중에서 진정, 성남다운 역사 속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설은 불과 몇 곳에 불과하다.

본고는 성남문화원과 각 대학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연구 성과물에 대한 일련의 사업을 큰 무리 없게 새로운 해석으로 정리해야 함을 인식하고, 특히 성남시에 의해 시 승격 10년 주기로 편찬해 온 《성남시사》에조차 언급되지 않은 서원복원에 의미를 둔다. 아직도 각계의 역사적 사실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부족을 느껴 온 성남시에서의 향교·서원에 버금가는 사우-서당에 관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서원-사당의 교육적 위상을 가늠하면서 언제, 누구에 의해 옛 광주군내 서원들과 사당, 옛 광주군의 향교를 보존·운영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성남시 3개 구청 관할내에 소재한 각 성씨별 불천위 사당과 서당의 현대적 활용 방안도 논의해 보려고 한다.

흔히 말하여,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라고들 말한다. 지역의 경

우, 각 성씨마다 추앙해 오고 있는 문중 인물은 누구며, 그들은 왜, 후손들이 존현(尊賢) 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한편, 성남시 몇 곳에 산재해 있던 사우·서당 공간을 현대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문화·학문적 공간활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시민 평생교육적 삶이 요구되는 이 시대 앞에 강학(講學)의 중요기능,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방안으로 제시하여 미래사회에 어울릴 학문적 분위기 찾기에 계기를 마련해 보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II. '서원' 발자취 말하기

1. 서원 옛 모습 찾기

조선 중기의 서원은 젊은이들의 강학(講學)과 선현들의 제향(祭享)을 위하여 사림(士林)들에 의해 만들어진 향촌자치 교육기관이었다. 설립·운영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사림이었으며, 인재양성과 명현을 제사하려는 데 설립배경이 됨으로써 관학(官學)이 아닌 사설교육기관으로서의 근본이념은 중국에서 받아들인 성리학에 기초하여 '향촌의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서원은 향리의 유생들 인격을 수양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능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향촌사회의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질서를 재편성하며, 향촌지역 공동체를 이끌어 간 다원적 정신 지주가 되면서 선현(先賢) 위패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제향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춘 곳이었다. 그 외 선비들의 서책(書冊) 편찬 및 장서 보존 외 시서화(詩書畵) 동호회 선비들의 활동 공간으로서도 공간 활용이 되어 왔었다.

서원의 기원은 1542년(중종 37) 풍기군수 주세붕(1495~1554)이 순흥

에서 고려학자 안향(1243~1306)대 학자의 영정·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짓고, '백운동서원'이라 한 것이 조선 최초의 서원이었다고 전한다. 그 뒤로 이황(1501~1570)에 의해 설립된 '소수서원' (1550년) 이후 점차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병폐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조선 명종 이후 현저히 늘어난 서원은 선조대에 60여 개소, 숙종대에 170여 개소, 정조대에 650여 개소로 증가됨으로써 고종 원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까지 내려진 일명, '신미촌치 47서원'의 사건(1871년)이 벌어져 전국 8도에 겨우, 총 47개소만 남게 되었다.

경기도 12곳, 충청도 5곳, 전라도 3곳, 경상도 14곳, 황해도 4곳, 평안도 5곳, 강원도 3곳, 함경도 1곳 47곳 서원을 제외하고는 국가 기강 문란, 왕권 약화 그리고, 재정수입의 감소라는 심각한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당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47곳의 서원들은 대단한 명예로 생각할 수 있다.

경기도내에서 살아남은 12곳 서원으로는;

파산서원 : 선조 원년 창건-효종 원년 사액, 파주군 파평면

송양서원 : 선조 6년 창건-선조 8년 사액, 개성

우저서원 : 인조 26년 창건-숙종 원년 사액, 김포군 김포면

심곡서원 : 효종 원년 창건-효종 원년 사액, 용인군 수지면

용연서원 : 숙종 17년 창건-숙종 18년 사액, 포천군 신북면

현절사 : 숙종 14년 창건-숙종 19년 사액, 광주군 중부면

경강서원 : 숙종 21년 창건-숙종 23년 사액, 의정부시 장암동

사충서원 : 영조 원년 창건-영조 2년 사액, 광주군 중부면

덕봉서원 : 숙종 21년 창건-숙종 26년 사액, 안성군 양성면

대노사 : 정조 9년 창건-정조 9년 사액, 여주군 여주읍

기공사 : 헌종 7년 창건-헌종 7년 사액, 고양군 지도면

충렬사 : 인조 20년 창건-효종 9년 사액, 강화군 선원면

경기도내 12곳 서원의 위치는 오늘날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군·읍면 명칭상 달라진 곳도 없지 않으며, 학문연마에 독서하기 좋은 건축물로서 배산임수(背山臨水)하여 자연경치가 뛰어난 장소로 입지적 조건도 특이했었으나 다만, 특별한 꾸밈도 없고 주변 장소와 어울리는 조형미도 찾기 어렵다는 검소한 면도 없지 않은 중에 현재는 옛 터만 남은 실정이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27개 시와 4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잔존했던 12개의 서원 외 각 사우의 복원 내지 중수(重修)로 인하여 50개소로 늘어나는 현황을 살필 수가 있다.

충현서원·오리영우(광명)/ 현절사(광주)/ 우저서원·대포서원·향사우(김포)/ 도기서원·남파서원·덕봉서원(안성)/ 호계서원(안양)/ 운계서원·향사우·수곡서원(양평)/ 기천서원·고산서원·대로사(여주)/ 궐리사(오산)/ 심곡서원·한천서원·충렬서원(용인)/ 설봉서원·현암서원·지암서원·화산서원(이천)/ 사충서원(하남)/ 명고서원·매곡서원·용백사·안곡서원(화성)/ 잠곡서원·미원서원(경헌단)(가평)/ 문봉서원·기공사(행주서원)·용강서원(고양)/ 석실서원(남양주)/ 정절사(사천서원)(양주)/ 미강서원·임장서원·임강서원(연천)/ 노강서원(청절사)(의정부)/ 파산서원·자운서원·용주서원·풍계사·방촌영당·신곡서원(파주)/ 옥병서원·고운영당(청성사)·화산서원·용연서원(포천)

이같은 50개소의 서원과 사우에서는 봄·가을로 제향을 올려 선현들의 추모의식을 행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전국 각처에서는 서원을 본뜬 현대판 서원 즉, '영주 소수서원'을 연계한 '선비문화수련원'이라든가 '남양주 이미시 문화서원' 건립의 운영이야말로 향토문화유적지 공간

활용에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서원은 1차적 중요 기능으로 지역 사람들 특히, 사림(士林)들의 강학(講學)으로 대표되는 학문활동이었으며, 후학양성과 문인배출이다. 그 다음으로 선현·선조를 제향하고 일가·친척·후손과의 유대를 위한 예도(禮道) 절차를 몸소 체험시키는 공간 기능이기도 했다.

중앙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과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학(四學)이 있었으며, 지방에는 각 부·군·현마다 향교가 있었다. 사립 교육기관으로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서원,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서당들이 있었다고 현대인 안목으로 보면 어울릴 곳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문헌비고》 및 《증보문헌비고》를 참고하여 정리·연구한 최홍규 교수의 연구논문 '경기지역의 서원 현황과 성향'에 따르자면, 없어진 서원도 여러 곳 있다.

경기도 각 군현에 있었던 서원과 사우는 총 68개소로 파악된다. 이 중에 서원 49개소를 왕대별로 분석하자면 명종 1, 선조 7, 광해군 3, 인조 2, 효종 5, 현종 6, 숙종 20, 영조 1, 순조 3, 고종 1개소로 나타난다.

이를 근거하여 옛 광주군(오늘날의 광주시-서울 강동구-강남구-송파구 외 성남시-하남시)

지역내의 '명고서원' (1661년), '구암서원' (1667년), '수곡서원' (1685년), '현절사' (1688년) 네 곳 서원과 사우(祠宇) 현황을 추가하여 성남시 지역에서의 서원·사우의 현장을 문헌상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선비' 지도층의 활약상도 오늘 이 시점에서나마 집성촌락 세거 문중들의 분포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경기도 서원 찾기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에 의해 세워졌다. 유교(儒敎) 지식층 ‘선비’들이 선현을 받들어 제사하고, 선현들의 말씀과 행실을 토론하는 장소였으며, 학문과 교양 외 국가지도자의 치국(治國) 도리를 깨우치는 오늘날의 사립 중고등학교였다.

경기도 역시, 성리학의 정신에 바탕으로 주자가례(朱子嘉禮) 실천 최고봉 역사인물인 포은 정몽주, 정암 조광조, 율곡 이이, 오리 이원익, 백사 이항복,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같은 조선 선비들을 숭상하기 위하여 서원 영당(影堂)들이 확대 건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관리들의 온갖 횡포를 감찰·고발·규제하려는 기풍도 훗날에 일어났고, 서원 중심의 젊은 선비 즉, 사림(士林)들에 의해 지방수령의 자문기관으로서도 입지를 굳혀 자신들의 출세지향을 위한 교육장소인 동시에 장차, 지도자의 기개를 배우는 인재양성의 교화를 중요시했었다.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신진 사대부는 조선건국을 기점으로 조선개국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지면서 재야세력의 사림들은 향촌으로 밀려났던 반대파의 후예들로서 이들은 지방민 양반자제들의 교육과 향촌건설에 주력하였다. 그 후 중앙진출의 기회를 얻기도 하였고, 유향소(留鄕所) 또는, 사마소(司馬所)를 만들어 향촌자치제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훈구파의 배척으로 탄압에 의해 그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무오·갑자·기묘사화를 거치면서 신진관료 및 사림계층이 숙청·제거됨으로써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갔다.

공교롭게도 서원 건립이 난립되면서 당쟁을 불러일으키는 폐단을 가져옴으로써 숙종대에 서원 철폐령까지 내려진 이후, 1871년(고종)에 와서는 사액(賜額)되지 않은 모든 서원을 문 닫게 만들었고, 지방관들이 민폐를 구실로 하여 재정 및 인적 지원이 중지됨으로써 교육기관 본래 목

적은 축소된 채 향현사(鄉賢祠)라는 장소로 그들이 지고 말았다. 이때 경기도에 남은 서원은 불과 12개소에 불과하였고, 한일합방-일제 식민지-1950년 한국전쟁 이후 소실된 여러 서원들은 복구되지 못한 채 주로 지역 유림단체나 집성촌락의 세거문중 후손들 중심이 되어 봄·가을 제향(祭享)을 올리는 기능으로만 현재까지 전해 오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기도 각 시군에 남아 있는 50여 개소의 서원 또는 향교라 하더라도 소박한 건축물과 민가 건물과 유사한 간결한 구조로 인하여 배향인물의 위패나 모셔 놓은 경우도 허다하고, 심지어 방치된 흉물로 변질된 서원-서당-향교는 주변에 수풀이 우거지거나 주춧돌 몇 개만 남아 있으므로 관리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오늘날의 각종 교육기관 외 각 종교단체 시설물과는 사뭇 비교되기 곤란할 만큼 초라하기 그지 없는 실정이다.

참고로 2006년도 판 《경기도 서원총람》(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편)통계를 보면;

경기도내 서원 49개소, 사우 19개소 중 사액된 서원은 42개소, 사우 12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명종대 1, 선조 7, 광해군 3, 인조 2, 효종 5, 현종 6, 숙종 20, 영조 1, 순조 3, 고종 1개소를 설립된 서원·사우가 숙종대를 중심으로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도내 총 31개 시군에 분포된 서원-사우는 복원된 사원·사우를 합쳐 도합 50개소로 이중서원 40개소, 사우 10개소이다.

이로써 경기도가 31개 시군이라 하더라도 서원이나 사우가 전혀 없는 고장도 11개 시나 되며, 그 중 우리 성남시 관할에서도 향교·서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만, 사당과 서당 터만 각 마을별로 몇 군데 있었음을 문헌상 몇 줄 기록과 원주민 후손들 증언으로 확인될 뿐이다.

경기도의 서원 가운데 최초로 설립된 곳은 이천시 관고동 설봉공원 안

의 설봉서원이다. 1564년(명종 19) 설립되어 서희 · 이관의 · 김안국 배향인물을 모셔 오면서 추모제향과 학문연구 등에 힘써 오다가 1868년(고종 5) 철폐되기까지 사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봉서원은 주세붕이 풍기에서 안향을 제사하면서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것과 맥을 같이 하나, 사액을 받지 못하여 제향(祭享) 위주의 사당 성격이었을 것 같다.

도내 각 서원에 모셔진 인물로는;

정몽주, 우현보, 서경덕, 김상헌, 김육, 조익, 박순, 허엽, 민순, 송상현, 김연광, 유극량, 박상충, 박세채, 이제현, 이이, 임선미, 조의신, 맹성인, 이집, 이양중, 정성근, 정화, 오윤겸, 임숙영, 이의건, 조속, 이후원, 조복양, 조지겸, 정은, 홍익한, 윤집, 오달제, 김안국, 이언적, 홍인우, 이원익, 이식, 홍명구, 홍명화, 이재오, 조한영, 송시열, 조성, 조옥, 신변, 조형생, 조문형,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성원, 하위지, 유옹부, 박태보, 김창집, 조태채, 이견명, 이이명, 조종경, 공자, 제갈량, 호안국, 윤계, 박세훈, 박세희, 홍섭, 이단상, 이희조, 김장생, 홍우원, 서희, 이관의, 김안국, 김조순, 조광조, 양팽손, 이재, 정보, 조현, 양성지, 장만, 강감찬, 서훤, 오두인, 김상용, 김수향, 민정중, 김창흡, 김원행, 김이안, 김창집, 김조순, 조식, 김시습, 남을진, 조건, 성수심, 성수종, 성흔, 백인걸, 김행, 조감, 신제현, 백유함, 오두인, 이세화, 박태보, 황희, 민순, 남효온, 김정국, 기준, 정지윤, 홍이상, 이신의, 이윤겸, 권율, 이의건, 김수향, 김성대, 이화보, 윤봉양, 최치원, 이항복, 이덕형, 조정, 윤선거, 허목, 김식, 남언경, 이제신, 박세호, 이원충, 남도진, 이항로, 김평묵, 유종교, 권경우, 권경유, 안유, 이색, 김정국, 이상길, 홍명형, 황선신, 권순장, 김익겸, 황일호, 심현, 윤진, 이돈오, 구원일, 강홍업, 이성량, 이여매, 이성량, 이여송, 이민서, 심대, 양지, 윤경원, 강수남, 주자

도합 163명에 이르는 배향인물 가운데 각 세거문중 선조로나 추앙되어야 할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각 시대별로 정계나 학계에서 중추적 인물이 없지 않지만 도학과 충효 절의로 생애를 마친 모범적 인물이 아니었으므로 지역마다 서원-사우의 남설과 더불어 임의로 모셔졌던 인물들로 인하여 세상에 외면·지탄을 받아 권위가 추락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젊은층 학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조선시대 선비들의 비판은 새삼스럽게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면도 적지 않다. 유교의 윤리도덕을 지나치게 강조한 지식층이면서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상당수의 특권층 선비들이 본연의 책무(責務)를 게을리 하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몰두한 나머지, 지조있게 국가부강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조선의 왕족이나 중국 황제나 중화질서에나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조선시대 선비들의 실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가난한 선비의 '청빈'과 '안빈낙도'는 신선감의 충격을 주었던 우리 선조들의 덕목으로 알아왔던 것과는 달리, 선비의 상징인물 김굉필·정여창·김종직·김일손·이황·이이 등도 서울과 지방에 엄청난 전답과 노비를 보유했던 부호(富豪)였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참된 유학(儒學)의 선비는 마땅히 나라를 다스리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침략자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재정을 풍족케 하는 문무를 겸비한 이 만이 참된 선비이기 때문이라는 역사의 이면을 비판하는 논리도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3. '광주(廣州)' 안에서 서원·사우 찾기

문헌상에 나타난 한강물 남쪽의 옛 광주군 관할지역이 대단하게 광활

하여 지금의 행정구역과 비교될 수 없이 광활하였다.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에서 강동구-강남구-송파구 전역이 광주 땅에서 분할해 갔음도 엄청난 변화였겠으며, 그 이전 역사상 구역 총괄지역이 현 성남-하남-이천-여주-양평 그리고, 시흥-과천-용인 일부 지역까지도 광주군(廣州郡) 옛 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옛 광주에 속했던 <명고서원>-<구암서원>-<수곡서원>-<현절사> 4개소에 대한 추적은 그 의미가 희박하다. 아울러, 오늘날 성남시 행정구역 안에는 단 한 곳도 서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촌 자치기구의 서원 수준급도 못 미치는 서당(書堂) 내지 사우(祠宇) 사설교육 장소나 몇 군데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옛 광주 일원에 있었던 <명고>·<구암>·<수곡서원>은 1868년(고종 5)에 철폐되어 원주민들 구전 또는, 지역사 자료연구와 주민의 증언을 통해 근거나 밝힐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하나의 사우 <현절사> 역시, 광주시 관할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에서 1968년 광주군 중부면 상산곡리로 이전된 <사충서원>조차, 현재는 하남시 상산곡동 소재의 서원 표칭비 이전일 뿐, 이곳조차 매년 봄·가을에 향사(享祀)나 봉헌하는 사우 표지석에 불과하다. 그 외 대왕면에 소재했었던 <수곡서원> 역시, 광주군 대왕면 소재였지만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원동 소재로 구역변경이 되어 성남시 관할에서의 유일했던 옛 서원(書院)조차 인접 타지역으로 변경·소속되어 우리 성남시 관할 안에는 서원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시 승격 40년 이전의 옛 광주군(廣州郡)에 소속되었던 오늘의 성남시 역사를 감안하여 남한산성 내 <현절사> 외 <구암서원>-<수곡서원> 그리고, <사충서원> 연혁을 정리하고, 이어서 각 부락에 산재하고 있는 원주민 세거성씨(世居姓氏) 사우(祠宇) 및 서당(書堂) 분포를 증언에 의한 현장조사로 정리해 둔다.

서원 소개에 앞서 우리 광주문화권의 향교(鄉校)로는 유일하게 한 곳



서재



명륜당

뿐인 <광주향교>를 우선 소개하겠다. 잘 아는 사실처럼 향교라는 시설에서는 옛 성현들의 제사 모시기와 젊은 선비들을 위하여 국가적 배려로 지어진 오늘날의 공립 고등학교 내지 국립대학 수준의 교육공간이다. 향교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에 의해 각 지방별로 체계를 갖추진 못했다고 하나 제도화하였던 교육기관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고려시대로 오면서 전국 12목에 향교를 설치하고 경학박사(經學博士)도 배치하였으며, 광주향교가 그 중 하나였었다. 주군(州郡)에 건물을 세워 지방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감안한다면 광주향교야말로 지방의 교육기관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져온 셈이다.

조선시대로 오면 더욱 교육이 강화되어 전국에 총 360개 향교시설이 늘어났다고 한다. 다만, 2차례의 왜란(倭亂)과 2차례의 호란(胡亂)을 거치며 향교의 교육기능은 쇠퇴된 대신에 전국적으로 서원이 각지에 설치되기 시작함으로써 현재, 하남시 교산동 277-3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향교(廣州鄉校)>는 광주문화권 교육의 구심점으로 전국 233개소 가운데 한 곳으로 인재양성에 중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었다.

광주향교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관련기록이 남아 있지 못하여 상세히 알지 못하나, 당초 고읍(古邑) 서쪽 2리 쯤에 세워 관내 유생들 교육과 성현들 숭모 공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었다. 그 후 1703년(숙종 29년)에 부윤 이제(李濟)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수시로 대성전—

명륜당-담장-번와공사-내삼문-외삼문 등의 보수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강남구-송파구 일대를 아우르는 옛 광주군에 대표적 교육과 봉사(奉祀) 시설물 <광주향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호(1983년 9월 19일)로 지정되어 있고, 명륜단-대성전-동무-서무-서재 5동이 목재 재질로 되어 있다.

광주향교는 마을 후면의 평지에 남서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외삼문과 대성전을 잇는 직선축상에 앞쪽으로 명륜당과 서재·동재 터가 있고, 뒤쪽에는 대성전과 동무(東廡)·서무가 위치하여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식을 갖추었다.

광주향교는 창건연대가 확실치 않으나 고려 성종 2년(983), 처음으로 전국에 12목 행정단위 시절에 각 목마다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1인씩 파견한 점을 감안할 때에 광주목이었던 시절에 세워졌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1,0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제반 역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있다.

그 후에 목이 부·유부·군·시로 이어졌으며, 넓은 지역을 관할하였던 광주에서는 조선초-중기까지도 서해와 인접한 현 안산시·의왕시·군포시를 비롯하여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송파구·강남구와 광주시·성남시·하남시까지 경기도 광주군 관할구역이었으며, 그 넓은 지역에 향교는 오직, 광주향교 한 곳 밖에 없는 경기도 제일의 큰 향교로서 위용을 자랑하였고, 많은 인물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으뜸 향교로서 지금도 유림(儒林)의 자긍심이 대단하다.

최근 향교의 역사를 편찬하면서 수집한 각종 문서에 따라 현 위치로 이전된 시대가 1720년에 공사를 마쳐 1723년 6월 16일, 왕이 친히 향(香)을 내려 고유제(告由祭)를 올렸다는 기록이 찾아졌다.

배향인물은 대성전에 5성위(聖位)로 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

가 모셔 있고, 동서무에는 송대 이현(二賢) 정자—주자 외 동국 18현도 모셔져 있다. 그 외 동종향에는 송대의 정호(1032~1085), 신라대 설총(650~740), 고려대 안향(1243~1306), 조선대의 김굉필(1454~1504), 조광조(1482~1519), 이황(1501~1570), 이이(1563~1584), 김장생(1548~1631), 김집(1574~1656), 송준길(1606~1672)과 서종향에는 송대의 주희(1130~1200), 신라대 최치원, 고려대 정몽주(1337~1392), 조선대 정여창(1450~1504), 이언적(1491~1553), 김인후(1510~1560), 성혼(1535~1598), 조현(1544~1592), 송시열(1607~1689), 박세채(1631~1695) 등 모두 25위를 모셔 봄 2월 상정일과 가을엔 8월 27일에 제향을 올린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주심포계(柱心包系) 맞배집인데 전면에는 개방된 퇴칸이 있으며, 측면과 후면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 장대석 기단 위에 세워져 있는 민흘림기둥 위에 공포가 결구되어 7량의 지붕 가구가 짜 올려져 있다.

내부에는 공자와 4성(聖), 송나라와 우리나라 20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공포의 형태나 가구 수법으로 보아 19세기의 건물로 추정된다.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 맞배집으로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두었다.

내삼문은 솟을대문 형식인 데 익공(翼工)의 형태로 미루어 18세기 초의 건물로 추정된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익공계 8작집인데 중앙에 6칸 대청 좌우에 툇마루가 달린 1칸 반씩의 온돌방이 있다. 서재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민도리집으로 내부에 온돌방이 있고, 앞쪽에 툇마루가 달려 있다.

〈광주향교〉는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평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동·서재와 동·서무를 모두 갖춘 큰 규모의 향교이다.

—참고 : 〈경기문화재총람〉(2005, 2월), 경기도(344쪽)발행 및 〈광주향교의 연혁〉, 광주향교 편

1) 현절사(顯節祠)

소재지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10-1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제향의궤-광주시 무형 향토유산 제2호/ 제향일 : 매년 음 9월 10일)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였을 때 끝까지 항전(抗戰)을 주장하던 척화신(斥和臣, 일명 '3학사')인 사헌부 장령 홍익한(1586~1637), 홍문관 교리 윤집(1606~1637), 홍문관 부교리 오달제(1609~1637)가 전쟁이 끝난 후 청태종에 의하여 심양에 압송되어 회유하며 협박하고, 감언이설로 개심을 강요했으나 끝내 충절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청태종은 3학사를 참형(斬刑)에 처하고 말았다(인조 15년). 이로써 삼학사의 죽음은 순절(殉節)의 으뜸이자 우리 역사 속에서 '나라 사랑' 상징으로 천추만대까지 기억되어야 할 큰 인물임에 틀림없다.

위 '3학사' 라고 호칭하게 되기는 우암(尤菴) 송시열이 <삼학사전>을 지은 후부터며, 광주부윤이 '삼신사' 라는 자그마한 사당을 순국 50년이



▲ 顯節祠 懸板(南九萬筆)

지나서야 남한산성 서편 언덕에 건립했었고(1688년), 숙종 19년(1693)에 ‘현절사’로 사액(賜額)되어 편액(扁額) 글씨는 영의정 남구만의 친필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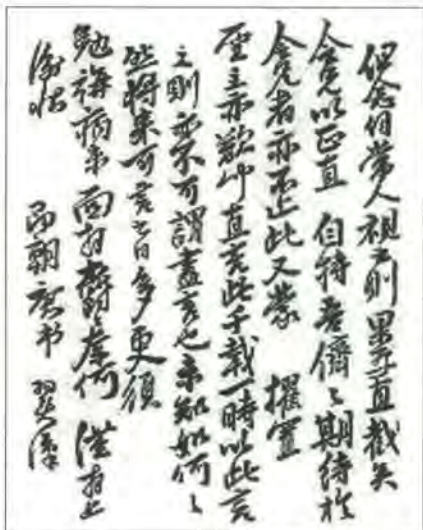
그 후 1699년(숙종 25)에 묘당 건의로 김상헌(1570~1652)과 정온(1569~1643)을 현절사에 추가 배향하였고, 뒤이어 광주사람들의 상소로 장소를 옮겨 새로 건립(1711년) 후에 숙종 스스로 삼학사 충절에 감회를 시로 지어 내렸다. 그 후 1757년(영조 33)에 삼학사에 치제(致祭)할 것을 하명하면서 정조·순조·철종·고종대에 치제를 거듭하여 하명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해지고 있다.

배향된 3학사의 개략적 인물소개는 다음과 같다.

(1) 홍익한(洪翼漢)

1586년 출생, 자 백승(伯升), 호 화포(花浦), 시호 충정(忠正). 정시문과에 장원 급제(1624)하여 성균관 전적·사헌부 감찰로 명나라에 주청사의 서장관 이후, 시종·고령현감·정언(1627)·장령(1636)·병자호란 발발 당시에 척화파로 선양에 끌려가 순국(殉國, 1637년)하였다.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 젊어서부터 충명하고 품채가 빼어났으며, 효우(孝友)하고 충신(忠信)하였다.
-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을 몹시 애통해 하였고, 어머



▲ 洪翼漢 親筆

니를 섬김에 있어 늘 기쁘게 해 드리기를 힘써 이행하였다.

- 문장은 청건(淸健)하고 경민하며 기격이 기일하여 그 한 마디 한 구절도 모두가 충의에서 나온 것이다. 평생 저술이 많았으나 '강도(강화도)의 변란'에 유실되었다.
- 우리나라는 비록 궁벽한 바닷가에 있지만, 본디부터 예의의 나라로 천하 모두가 소중화(小中華)라 일컬었고, 역대 제왕들이 서로 이어서 대대로 일편단심이 정성스러웠고(상소문 一節)
-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내 평소의 마음이다.
(평양부서윤 부임 때)
- 살아서는 대의(大義)를 붙들었고, 죽어지면 사책(史冊)에 빛날 것이니
(평양부윤 임경업 장군이 장령 홍익한 압송 때 한 말)
- 참으로 충신이다. 남아가 이 정도면 죽어도 빛이 있으리라
(포로로 압송 때 선양 중국사람 구경꾼들의 말)
- 내 무릎을 어찌 네 앞에서 꿇을 수 있겠느냐?
(청나라 칸 앞에서 마지막 말)
-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넓은 하늘을 날아 고국으로 돌아가 노닌다면, 이보다 상쾌한 일이 또 있겠느냐. 이 밖에는 더 할 말이 없으니, 오직 어서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이다(처형 최후의 말).

(2) 윤집(尹集)

1606년 출생, 자 성백(成伯), 호 임계(林溪), 시호 충정(忠貞). 생원시 합격(1627) 후 뒤이어 문과에 급제(1631)되어 시장원 說書—사서 및 사간원 정언—홍문과 수찬 및 교리—헌납—낭관—성균관 직—교리—병자호란 발발로 남한산성에 임금 호종하였다. 당시, 청나라와의 화친에 적극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중국 선양시로 잡혀가 오달제와 같이 순국하였다(1637년). 부제학에 추증되었다.

- 성품이 청개(淸介)하고 성기(性氣)가 직절하며, 총명이 뛰어나서 한 번 눈에 스친 일은 모두 기억하였다.
- 형제 3인이 한 방에 거처하면서 학업에 힘쓰고 해진 옷에 거친 밥을 먹고 살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 인격 수양이 바르고, 지켜가는 도리가 매우 확고하며, 대절(大節)을 성취하였으니 불세출(不世出)의 군자라 이를 만하다.
- 이번 길이 어찌, 다시 돌아 올 기약이 있겠느냐. 위로는 노친을 잘 모시고, 아래로는 여러 자식들을 잘 보살피 굶어 죽지 않도록 할 일은 모두 아우 너에게 맡긴다.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아우에게 보낸 편지 一節)



▲ 尹集 親筆

(3) 오달제(吳達濟)

1609년 출생, 자 계휘(季輝), 호 추담(秋潭), 시호 충렬(忠烈). 사마시에 합격(1627) 후 뒤이어 문과에 장원급제(1634년)하여 성균관 전적-병조 좌랑-시강원사서-사간원-정언-사헌부지평-홍문관수찬-부교리-병자호란 발발로 청나라와의 화친을 적극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오달제와 함께 비변사에 자수하고 중국 선양시로 잡혀가 순국하였다(1637년).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 성격이 관후(寬厚)하고 충신(忠信)하며, 단정하고 방직하였다. 평상시



▲ 吳達濟 親筆

에는 온공하여 말을 잘 못하는 듯하지만, 나라의 이해와 정령의 득실을 말할 때는 사기가 격앙하여 피하는 일이 없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되었다.

• 성품이 매우 효성스럽고 우애가 더욱 돈독하였으며, 평소 언행이 모두 여기에서 근본하였으므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효제(孝悌)의 마음이 일어난다.

• 임금님의 굴욕이 이 지경에

이르매, 신들은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는데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남한산성에서 임금과 작별인사 때의 말)

슬프도다, 삼학사여! 늙름한 그 절개/ 오로지 황제가 있음만을 알았기에/ 힘 다해 오랑캐와 화친을 거부했네/ 하직 인사에서도 충성은 더욱 참되고/ 죽음 앞에서도 그 뜻 더욱 굳세도다/ 옛 사당을 다시 지어 빛내려니/ 그대들 돌이켜 생각하니 감회가 실로 많도다.

— 숙종대왕 어제

추후에 배향된 김상헌과 정온도 간략히 소개해 둔다.

(4)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선조 3~효종 3년)

조선 정치가. 학자로서 자 숙도(叔度), 호 청음(淸陰) 또는 석산인(石山

人)이며, 시호 문정(文正)이다. 1596년 문과로 급제되어 교리로 있을 때 정인홍과 알력으로 한때, 좌천된 적이 있었다. 인조대에 대사간-대사헌-대제학-예조판서를 지냈으며, 좌의정(효종대)에 이르렀다. 병자호란 발발 당시, 판서 겸 비변사 당상 재임 당시에 청과의 화친을 극력 반대하였으므로 끝내, 청나라 선양에 끌려가 심문을 받으며 3년간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

명필로 이름이 높았고, 효종의 묘정에 배향되고 유적 있는 곳마다 서원에서 제향하였다. 저서에 《야인암록》, 《남한기략》, 《독례수초》가 전해오고 있다.

(5) 정온(鄭蘊, 1569~1641/ 선조 2~인조 19년)

조선 문신, 자 휘원(揮遠), 호 동계(洞溪)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610년 문과로 급제되어 설서-사서-정언-부사 재임시에 영창대군의 처형에 반대 상소문을 올리므로써 제주도로 유배생활의 10년을 보내며, 〈덕변록〉, 〈망북두시〉, 〈망백운가〉를 지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석방되어 재차 헌납-사간-이조참의-대사간-경상도관찰사-부제학-이조참판에 이르렀을 때 병자호란이 발발되어 김상헌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한 후 벼슬을 버리고 덕유산에 들어가 은둔의 삶을 보내다가 5년 만에 별세하였다.

저서에 《동계집》 등이 있다.

〈현절사〉 건물 일체의 참고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건물들은 산등성이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본전과 부속건물들은 층단을 이루고 있다. 사당지역과 동·서재 지역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고, 폭이 적은 협문이 2개소 있는데 하나는 사당과 부속

건물 지역을 구분하는 담장의 중앙에 위치하며 일각문 형식으로 본전으로 출입시 사용토록 되어 있고, 밖의 것은 전면쪽 담장의 중앙에 설치되어 이곳으로 정내에 들어서게 된다. 전면쪽은 지형의 경사 때문에 높은 석축들과 계단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단을 지어 설치되어 있다. 대문 역할인 전면쪽 일각문은 그 규모가 작다. 일각문 문짝에는 모두 중앙에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평면형태로서 홀처마 맞배지붕 형식인데 풍판을 달았다. 전면쪽은 개방된 전퇴를 두었고, 출목은 없이 연화가 조각된 양서형의 이익공과 주심첨차, 화반을 갖춘 조선 후기의 익공계 양식의 공포구조인데 후면쪽은 초익공만 둔 모습이며, 퇴량 보머리의 형태도 닭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후면쪽도 대량의 보머리에 붙여 이 닭머리 모양의 초각이 돌출되어 있다.

낮은 자연석 기단과 주춧돌 위에 민흘림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열만 원기둥이고 나머지 기둥은 각기둥을 사용하였다. 후면 기단과 접하여 배수로가 둥글게 설치되어 사당지역의 우수를 처리하고 있다. 가구구조는 납도리가 사용된 1고주 5량가 구조이며, 내부바닥과 전퇴부분에는 포방전을 깔았으며 양측면과 후면쪽벽에는 막돌화방벽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 내외부 모두 모로단청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근래에 새로 채색되어 있다. 내부천정은 연등천정으로 되어 있다. 전면 중앙간 상벽에 소형 명문 편액 1점이 걸려 있고, 전면 처마 밑에는 현판이 걸려 있다.

본전 아래 지역에는 동재와 서재가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규모와 평면형태, 양식이 서로 엇비슷한데 부분적 가구 구조가 서로 다르다. 동·서재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으로 중앙간에 대청을 두고 양협간에 대청으로 마주보고 온돌방을 배치하였는데 납도리가 사용되었다. 전면쪽에만 뒷간을 둔 1고주 4량가 구조로서 홀처마 맞배지붕 형식을 하고 있는데 풍판은 달지 않았다. 그리고 동재와 서재는 종도리

위치가 서로 틀리므로 지붕의 종단길이는 전·후면이 서로 다르다. 서재의 후면 중앙간만을 제외하곤 동·서재 모두 양측면과 후면은 모두 막돌 화방벽을 두르고 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하고 군주를 위하여 충절을 지킨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1661년에 평택에 ‘삼신사’ (三臣祠)라는 이름으로 사당이 건립되었다가 1688년(숙종 14)에 유수 이세백 요청으로 건립되었으며, 5년 후인 1693년에 사액(賜額)되면서 위패를 모시고 ‘현절사’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뒤 1699년(숙종 25)에 주전파 거두었던 예조판서-좌의정 김상헌(1570~1652), 이조참판 정온(1569~1641) 두 사람을 추향(追享)함으로써 오늘날에는 5학사가 한 줄로 모여져 있다.

2) 구암서원(龜巖書院)

소재지: 광주군 구천면 '굴바위 마을'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677년(숙종 3)에 서원을 세우고 30년 뒤, 1697년에 사액(賜額)되면서 고려말 충목왕대 학자로서 판전교시사 이집(1327~1387), 고려말 절신(節臣)으로 좌참의 이양중(1348~1424)을 주향(主享)으로 모셨다가 뒤에 조선 전기 성종대 문신 좌부승지 정성근(1446~1504), 조선 선조대 문신 좌부빈객 정엽(1563~1625) 외 인조대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던 오윤겸(1559~1636), 선조-인조대의 지평으로 사후에 청백리로 낙선된 임숙영(1576~1623) 등 6명을 배향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고종대에 이르러 1896년(고종 33)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된 뒤 유허비만 남아 있었고, 내우외환 등 전란(戰亂)에 제기(祭器) 몇 가지와 건물 주춧돌만 남아 있었다가 1986년도 서울특별시 한

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둔치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 조사에 착안되어 서울시가 취수장을 건설하면서 <바위 절> 터 주변을 공원화하고 2003년부터 역사적 유적지로 복원공사를 시작하며 '구암정'을 건립하였다. 복원 대상지는 1,760평으로 사당·강당·재실·일각문·홍살문·내삼문·외삼문이며, 그밖에 자료전시관·관리실 등이 별도로 건립예정이다. 복원 후에는 6인의 위패를 배향하고, 다도·혼례·제례·생활예절 등 전통예절 교육과 한국학·서예·국악 등 전통 예능교육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서두르고 있다.

배향되었던 인물소개는 다음과 같다.

(1) 이집(李集, 1327~1387)

고려말 성리학자·정치가로서 본명 원령(元齡)이었다가, 자 호연(浩然), 호 둔촌(遁村)이라 개명시켰다. 광주부 주사 이당(李唐)의 둘째 아들이며, 당대의 목은-포은-도은-척약재 등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진 은둔 학자였다. 여말 혼란기에 요승 신돈의 악행을 질타한 연유로 친구 최원도(경북 영천) 다락방에서 4년여 동안 아버지와 은신의 뼈아픈 생애를 보낸 적이 있다. 신돈이 마침내 주살되므로 복권이 되어 봉순대부 판전교시사에 올랐었다. 별세 후에 의정부 좌찬성으로 추증되었다.

잠시 후 이름과 아호 일체도 바꾼 후 여주 이포강변에서 은둔처사로 일생을 마치고, 묘소는 현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변(하대원동)에 사당 <둔화문(遁和門)> 건물의 뒷산에 있다. 남한산성 국청사 '효자정'의 주인공이며, 서울 강동구 일자산성 공원의 '정훈비' 건립 외 성남시 향토유적 제2호에서 경기도문화재 제219호 인물로 승격·지정되어 성남시 상징의 향토역사인물로 추앙되고 있다.

성남문화원(부설) 둔촌연구회 주관의 둔촌청소년 백일장(16회) 외 '둔촌문화제', '둔촌한시백일장', '한중교류 둔촌 글짓기' 등의 추모문화 행

사를 갖고 있다.

저서로 《둔촌선생 잡영》과 《둔촌선생 유고》 등이 있다.

(2) 이양중(李養中, 1348~1424)

고려말 절신(節臣)이었다. 자 자정(子精), 호 석탄(石灘)이고, 아버지는 가선부사 이방귀(方貴)며, 둔촌 이집과 12촌 조카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 이후, 남한산 밑에 은거하였고,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산 22-1에 재실 ‘고덕제(高德齊)’와 인근 뒷산에 묘소가 있다. 1400년에 태종이 즉위하여 검교 한성부윤에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방원과 함께 원천석 문하생으로 동문수학의 절친한 친구 사이였으나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후세인으로부터 칭송되고 있다.

—광주이씨 대종회 편 <광이세보(廣李世譜)> 199~200쪽 ‘구암서원 구기비문’ 참고—

(앞 생략) 선생은 학문이 고명하고 문장이 초매하여 사림에 널리 알려졌으며, 덕망이 일세에 으뜸이었으니 포은·도은 같은 제현들이 모두 애경하고 추종하였다.

...(중간 생략)... 그러나 장차 중건할 때를 기다리면서 현판을 갈무리하고 지내온 지 20여 년이 되었다. 불초 후손들이 옛 터를 바라볼 때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여 서로 의론하여 힘을 모아 이 유허비를 새겨 세워 길이 알리고자 함이로다.

1896년 8월 건립

(3) 정성근(鄭誠謹, 1446~1504)

조선 초기 문신이었다. 자 이신(而信), 시호가 충절(忠節)로 대제학 정척의 아들이다. 1474년(성종 5) 식년 문과에 을과 급제 후 수찬-경연

관-부교리-경차관-홍문관 부응교로서 전라·황해도 경차관-홍문관 전한-시강관-직제학-해주목사-행호군 등 탄핵·축출되었다가 갑자사화 연루로 참수(1504), 중종 즉위 후 신원되고, 이조참판에 추증, 정문이 내려지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4) 정엽(鄭曄, 1563~1625)

조선 중기 문신이었다. 자 시회(時晦), 호 수몽(守夢)이고, 진사 정유성의 아들이다. 158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후 승문원·홍문관 문한직-감찰 형조좌랑-황주판관으로 왜근을 격퇴하므로 중화부사-홍문관 수찬-장령-서천군수-수원부사-동부승지-우부승지-형조참의 때 명나라에 다녀왔다. 귀국 후 대사간-예조참의 이후 좌천·유배되었다가 대사성-예조참의-판결사-도승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대사성으로서 자헌·정헌대부 및 대사헌직에서 과로에 의한 병사(病死)하였다. 저서로 《근사록 석의》, 《수몽집》 등이 있다.

(5)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조선 중기 문신이었다. 자 여익(汝益), 호 추탄(楸灘)이고, 선공감역 오희문의 아들이다. 1582년 사마시에 합격한 뒤 영릉참봉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철의 종사관으로 시직-평강현감으로 별시문과에 병과로 다시 급제된 후 부수찬-이조좌랑-부교리-호조참의-좌부승지-강원관찰사-광주목사-첨지 중추부사로 일본에 끌려간 400명 조선 백성을 쇄환했다. 명나라 다녀 온 뒤 하극사-우참찬-이조·형조·예조판서를 거쳐 노서(老西) 영수가 되어 민심 수습에 공을 세우고, 예조판서-지중추부사를 거쳐 우의정·좌의정·영의정에 올라 (1628년) 정치혁신을 위해 왕 자신이 성리학에 전념하기를 촉구하였다. 1633년 좌의정으로 기로소에 들어갔다. 성혼 문하의 대표적 인물로 시호

충간(忠簡)이 내려졌다. 저서로 《추탄문집》 외 《동사목록》·《해사조천 일록》 등이 있다.

(6) 임숙영(任叔英, 1576~1623)

조선 중기 문신이었다. 자 무숙(茂淑), 호 소암(疎庵)이고, 감역 임기의 아들이다. 1601년(선조 34) 진사가 되고, 별시문과 응시자로 이이첨을 비난하는 글로써 힘겨운 급제를 한 후 승문원 정자·박사·주서-예문관 검열-홍문관 부수찬-지평 등에서 고문(古文)에 힘썼고, 중국 육조(六朝)의 사륙문(四六文)에 뛰어났다.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참수되었으나 중종 즉위 후 신원되고, 정문이 내려지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시호는 충절(忠節)이다.

3) 수곡서원(秀谷書院)

소재지 : 광주군 대왕면(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원동)

1684년(숙종 10)에 세우고 11년 뒤에 사액되었다. 조선 중기의 선조대 공조정랑이었던 이의건(1533~1621), 효종대 진선이었고 상의원정에 오른 조속(1595~1668)을 모셨다가 뒤에 효종대 우의정이었던 이후원(1598~1660)도 추가 배향하였다. 이 터는 현재, 신도시주택단지 개발로 인하여 위치조차 가늠할 수 없이 매몰되어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실정 이 되었다.

배향되었던 인물은 다음과 같다.

(1) 이의건(李義健, 1533~1621)

학자로서 본관 전주며, 자 의중(宜中), 호 동은(峒隱), 세종의 5남(광평

대군)의 5대손으로 아버지는 배천군수 수한, 어머니는 경주 최씨다. 1564년(명종 19)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뒤에 학행(學行)으로 돈녕부직장이 되었으나 부모상을 당해 사직하였으며, 후에 공조좌랑·공조정랑에 오르기도 했었다.

당시, 이름난 선비들과 교유하면서 글짓는 일과 후학 양성에 전력하기도 했다. 글씨도 능하여 선조 묘비 '광평대군 여묘비'와 '임정부정 이일조 묘비 비문'을 쓰기도 했다. 저서로는 《동은유고》가 전한다.

(2) 조속(趙淩, 1595~1668)

조선 후기 서화가로 본관 풍양이며, 자 희온(希溫), 경온(景溫)이고, 호 창강(滄江), 취추(醉醺) 등이 있다. 아버지 조수륜 추증 병조참판의 아들이면서 문인화가 지운의 아버지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였으나 녹훈을 사퇴하고 훗날에 장령-진선-상의원정에 이르렀다. 수곡서원 외호계서원(과천), 건암서원(사천), 백석사(김제) 등에 제향되어 있다.

그는 풍채가 맑고 깨끗하였으며, 지조가 높고 청빈하여 칭송을 받았다. 때로는 끼니를 걸러야 하는 가난함에도 구애치 않았고, 학식이 넓고 성품이 고아하며 옛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옛날 글씨를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옛 명필과 명화 등 많은 금석문 작품들을 수집하면서 매화·대나무 외 산수와 더불어 수묵 화조를 잘 그려 조선 후기 대표적 화가였다.

저서로 《창강일기》가 전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노수서작도〉, 〈매도〉, 〈금계도〉, 〈호천연의도〉와 간송미술관 소장의 〈매작도〉 명작을 남기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수많은 당대 선비들의 추도사·만사 중에 1편을 소개한다.

맑은 절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였다. 집은 겨우 몇 간의 떠 집이었고, 끼니를 잊지 못하나 태연하였다. 효종대

에 여러 차례 장령·진선 벼슬을 주려하였으나 끝내 나가지 아니하였다. 말년에 맹인이 되었으나 남들 앞에서 멀쩡하게 처신하였던 현인이었다. 《왕조실록》中, 줄기 一節)

나라를 위해 큰 예절 세웠나니/ 고금에 그런 사람 또 없으랴/ 공훈을 사양함도 그대의 우뚝한 지혜니/ 반정의 본 뜻이야 저 깊은 어짐이라/ 벼슬이 내려진들 부귀를 부러워하랴/ 글과 그림으로 늙으면서 가난을 외면하고/ 새로 꾸민 고을 동쪽 무덤에다/ 이름 드높은 우주처럼 몸을 쉬게 하였네

—박세당 《서계집》 4권 애도시 全文

(3) 이후원(李厚源, 1598~1660)

조선 중기 정치가·문신으로서 본관 전주며, 자 사심(士深), 호 오재(許齋)며, 광평대군의 7세손이다. 군수 이육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장수 황씨 황정욱의 따님이다. 1623년의 인조반정 후 정사공신 3등으로 완남군(完南君)에 봉해지고 시호 충정(忠貞)이다. 이후 태인현감—정묘호란 발발에는 충용사—단양과 태안군수—한성부서윤—익산군수—지평—문학—장령—병자호란 발발에 주전파에 앞장섰고, 1639년 승지—수원부사—병조참지—충청도관찰사—강화부유수—대사간—한성부우윤—남한산수어사 겸 좌의정—호조참판—대사헌—형조참판—도승지로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예조판서—한성부판윤—형조·공조판서—대사간—이조판서—1657년 우의정—만년에 세자좌부빈객—지경연사—지춘추판사 역임한 후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착한 일을 즐겼으며, 능변(能辯)으로 악행을 미워하고, 바쁜 공직생활 중에도 경사(經史) 학문연구에 전념했던 정치가였다.

체격은 옷을 못 이길 것 같았으며 기상도 사람을 쏘는 듯 빛이 났다.
 …(중략)… 젊어서 문원 공 김장생의 문하로 수학하면서 송시열과도
 벗으로 친했다. …(중략)… 청렴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고수하면서 끝
 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잃지 않아 조정안에서 비교될 신하가 흔치 않았
 다. (《현종실록》 줄기 一節)

셋별 같은 눈동자에 입은 바다와 같고/ 흰 얼굴에 키는 후리후리한
 데/ 빙호(氷壺)와 수월(水月)이/ 온통, 그 정신일세/ 더욱이 강직한 건
 의로운 이였고/ 온화한 건 어짐이어라/ 저 당나라 공신 그 자리와 같이
 / 포공(褒公)이나 악공(鄂公)에 비할 바 아니어라

—송시열 《송자대전》 150권 영정 예찬시

4) 사충서원(四忠書院) - 묘정비

소재지 : 1725년 경기도 과천 노량진 건립, 1927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이
 전, 1968년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상산곡리 100-2번지(현 하남시 동수막길 37번지)
 이전 · 중건/ 현 하남향토유적 제3호(2001년 4월 9일 지정)

1725년(영조 1)에 영조 왕명으로 세우고, 이듬해 사액되었으나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정권이 들어서자 철폐되었다. 이에 배향되어 있던 몽
 와 김창집(1648~1722), 소재 이이명(1658~1722), 한포재 이건명(1663
 ~1722), 이우당 조태채(1660~1722) 등 4명은 역적으로 처형되기에 이
 르렀다. 재차 집정된 영조는 1756년에 이들을 즉시 복권시켰다. 최초 묘
 정비는 1786년에 세워졌었다.

이와같이 사충서원은 노론 · 소론 사이의 시비에 휘말려 철폐와 복설
 이 거듭되는 우여곡절을 겪을 만큼 당색(黨色)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
 나, 영조 이후의 역대 왕들이 모두 영조 후손이었던 관계인지 특별 은전

(恩典)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근대화 개발사업으로 서원 위치가 철도 용지 편입 및 한국전쟁의 참화에 의해 옛 비석은 그대로 이전하되, 광주군 중부면에 사우의 모습으로 복원시켰지만 이곳이 광주군이 아닌 하남시 상산곡동 행정구역으로 분리·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원에 배향되었던 인물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한다.

(1) 김창집(1648~1722)

본관 안동이며, 조선 후기 정치가·학자였고, 호 몽와(夢窩)로 김상헌 종손으로 시호 충헌(忠獻)이다. 노론 대표 4대신의 한 사람으로서 신임사화 때 거제도 위리안치되었다가 사사되었다.

저서에는 《국조자경편》 외 개인문집 《몽와집》이 있다.

(2) 이이명(1658~1722)

본관 전주며, 조선 후기 정치가·문신이었고, 호 소재(疎齋)로 노론의 핵심인물에 해당된다. 숙종대에 좌의정을 15년 동안 역임하며, 1720년(숙종 46년)에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천주교 서적을 중국 연경에서 받아들였다.

저서에는 지도책 《요계관방도》를 만들었고(1706년), 《양역변통사의》, 《강역관계도설》, 《강도삼충전》 외 개인문집 《소재집》이 있다.

(3) 이견명(1663~1722)

본관 전주며, 조선 후기 정치가·문신이었고, 호 한포재(寒圃齋)로 영조시대 균역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문인이면서 시문(詩文)에 능하고 송설체 서예에 뛰어났다. 1722년 전라도 홍양에 있는 ‘뱀섬’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참수로 처형당하였다.

저서에는 《한포재집》이 있다.

추가로 문중의 후손에 의해 건립된 <사충서원> ‘묘정비’ 비문을 일부 참고로 기록해 둔다.

...(앞 생략)... 오호라! 우리 선왕께서는 열조의 심법을 계승하고 삼종의 혈맥을 이어 받아 요순이 전수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인이 바르고 의가 극진하여 우리의 4백년 종사가 이에 힘입어 태산 반석처럼 편안해질 수 있었으니, 아! 참으로 성대한 일이었도다...(중간 생략)... 몸을 나라에 바쳐, 그 정충과 대절이 밝게 빛나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목에 분명하게 깔려 있으니, 이른바 천지에 세워도 어그러지지 않으며,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이 없어 길이 천하만세에 떳떳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1786년(정조 10) 건립하다

—참조 《경기도서원총람—下》(2008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지회)

III. 성남시 각 마을의 사우(祠宇) 및 서당 찾기

신도시로 발전을 거듭해 온 성남시 관할에서 서원과 향교 그리고 사우 및 서당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는 아직, 아쉬움 뿐이다. 조선시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교화기능과 인재양성의 교육기능을 가진 곳이 서원—향교였으며, 이에 못미친 소그룹 단위의 각 부락별 서당과 각 성씨별 세거문중들의 사우(祠宇)에 관한 실태라도 증언을 통해 정리하려고 했던 목표에도 사뭇, 수준이 미달될 뿐이다.

다소 이색적이라 할 수 있는 2011년 6월의 ‘경기권 향교·서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기초로 하여 인근 과천시와 안양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시흥시·광명시에 분포되고 있는 향교·서원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 확보방안이 검토된 이후, 향교와 서원을 각 지역별 대표적인 정

신문화유산의 발전 공간으로 실질적 활용을 하지는 제안들이 도 차원을 벗어나 요즘에 와서는 전국 각 지방마다 서원과 사당의 활용 움직임에 참고해 볼 일들이 적지 않다.

21세기 물질문명 성장에 비해 정신문화는 날로 피폐해지고, 청소년 비행 사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향교-서원-사우-서당의 개방교육은 인간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인성(人性)교육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다. 부수적인 문제로 인하여 폐쇄적 공간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며, 필요한 장단기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체험학습의 장소로 적극성 있게 답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꾸며 볼 만한 시대가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주말이나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남시 역사 속의 위대한 지역인물을 추모하고 본받는 전통문화 체험학습 기능과 오락기능의 다양한 건강유지, 전통 식생활 익히는 장소 등으로 우리 삶의 욕구충족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골라내어 교육력을 다양하게 활성화하면서 우리 신도시 발전의 지역 전통문화 학습기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는, '성남시 특색 교육의 사업장'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현재, 조사되고 있는 성남시 원주민 씨족사회 소모임으로 결사(結社)되어 있는 "성남세거문중협의회"를 기초 자료 기관으로 삼아 각 문중별 사당(사우)은 불과, 10여 곳일 뿐이다. 신도시로 개발된 지 40여 년 동안에 파괴되었거나 아니면, 복원을 포기함으로써 사당은 점차, 그 기능을 잃게 되었으며, 서당이라는 소규모 마을 단위의 배움 장소는 아예, 현대판 학원과 학교의 증가세에 자취를 감추어 버린 셈이다.

오늘의 성남시가 광주군 관할에서 분리될 당시, 불과 4개 면부락이었다고 하지만, 1914년 당시의 동리(洞里) 숫자는 돌마면 11개리, 낙생면 11개리, 대왕면 14개리, 중부면 6개리 총 42개의 동리였었으며, 한일합방의 일제 식민지 정권 이전은 똑같은 4개 면사무소 안의 동리 숫자가 57개 자연부락 틀을 누려 왔었다. 이같은 성남시 1세기 이전과 오늘의

상황을 대비해 볼 때에 현대라는 첨단 과학문명의 산업정보 시대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문물을 겸비한 의식수준은 비인간성 삶의 단점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조사된 각 문중별 사당을 정리하여 둔다.

不遷位 및 門中 祠堂

구분	사당	주요인물	위치	비고
광주 이씨	追慕齋(遁和門)	둔촌 이집	하대원동	
청주 한씨	永慕齋	한계희	율동	
	慕獻齋	한효순	서현동	
한산 이씨	부조묘	이증	수내동 중앙공원	
전주 이씨	靖僖祠	덕양군 이기, 풍산군	백현동	
남원 윤씨	慕德齋	윤경지	북정동	
안동 권씨	興慕齋	권득기, 권시	금토동	
파평 윤씨	靜一堂	정일당 진주강씨	금토동	

1) 추모재(追慕齋)

[개설]

추모재는 고려 말의 학자 둔촌 이집(1314~1387)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이다. 광주이씨의 중시조(中始祖)인 이집의 본관은 광주, 자는 성노, 호는 둔촌이다. 해박한 지식과 고상한 지조와 절개로 이름을 떨쳐 정몽주, 이색, 이숭인과 같은 여러 명현들과 교류하였고,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신돈(辛旽)의 불의한 행동을 서슴없이 비판하였다. 유고집으로 《둔촌유고(遁村遺稿)》가 있다.

[위치]

추모재는 광주이씨의 세거지인 하대원동의 둔촌 이집 묘역 바로 아래

에 서북향하여 있다.

[변천]

광주이씨 대종회에서 1998년 성남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현재의 위치에 둔촌 이집의 재실(齋室)과 고옥(古屋)을 복원하였다.

[형태]

추모재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주심포 팔작지붕으로 이루어진 재실로서, 정면에 ‘추모재(追慕齋)’라는 현판이 있으며, 건물 앞에는 ‘둔화문(遁和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태극문양의 솟을삼문이 자리 잡고 있다. 사당 둘레에는 토담을 둘렀으며 담 위에 기와를 얹었다.

사당 왼쪽에는 이집의 고옥을 복원해 놓았는데, 이곳에는 이집의 유훈과 서한을 비롯하여 이집의 후손인 조선 중기의 명재상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61~1613)과 관련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집 정면에는 ‘청운당(淸雲堂)’이라는 현판을 건 솟을삼문이 있다.

[현황]

둔촌 이집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사당으로 광주이씨 대종회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다. 해마다 음력 6월 2일에 생신제(生辰祭)와 음력 10월 5일에 추향제(秋享祭)를 지낸다. 1996년부터 둔촌 이집의 생신제를 봉향하는 날 광주이씨 대종회에서 성남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둔촌청소년문학상 백일장을 개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둔촌 이집의 정신을 기리고 유교적 가치를 선양하고 있다. 추모재는 광주이씨 묘역과 더불어 광주이씨 대종회의 의례 공간이자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 영모재(永慕齋)

[개설]

과거 서근(三斤)이나 되는 밤이 생산되었다고 풍자할 만큼 밤[栗]의 명

산지에서 마을이름이 유래하는 울동(栗洞)에는 순흥안씨, 진주유씨, 청주한씨, 의령남씨 등의 선조와 그 후손들의 묘역이 다수 안장되어 있다. 이중 청주한씨 묘역은 울동 자연공원내 저수지 맞은편의 낮은 구릉 일대에 일가 전체의 묘소가 다수 안장되어 있다.

이곳에 이렇듯 대규모로 청주한씨의 묘역이 조성되게 된 계기는 조선 전기인 세조대에 남이(南怡)의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웠으며, 사후(死後)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된 문정공(文靖公) 한계희(韓繼禧, 1423~1482)의 묘소 일대를 사패지로 받고 그 한사개(韓士介), 한석(韓碩) 등이 세거하면서 대대로 한씨촌을 형성한 데서 유래한다.

[위치]

분당구 울동(서현동)의 청주한씨 묘역 계곡

[한계희 소개]

1435년(세종 17)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1441년 진사과에 급제하고, 1448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가 되었다. 이후 7년간을 집현전에서 연구하였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음덕으로 벼슬길에 올랐으나 자력으로 급제하고 집현전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세조의 두터운 총애를 입고 사헌부의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경연과 세자의 교육을 맡게 된다. 2년 6개월간 이조판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를 공평무사하게 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는 데 깊이 관여하였고 특히 “호전(戶典)편찬에는 한계희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였다. 간경도감에서 불서를 번역간행하는 데도 남다른 관심과 힘을 쏟아 유학자로서는 드문 활약을 하였다. 이외 의서, 사서 등 도서편찬에도 크게 기여했다. 세조가 “나에게 제일의 신하가 셋 있으니 한계희, 노사신, 강희맹이라” 하였다고 한다. 성종 때 좌찬성의 자리에 올랐으나 상신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

하고 죽었지만 정승 이상으로 임금의 총애를 입고 국정에 기여하였다.

3) 모헌재(慕獻齋)

[개설]

모헌재는 청주한씨(淸州韓氏) 장헌공파의 중시조(中始祖)인 장헌공(莊獻公) 한효순(1543~1621)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이다.

한효순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 호는 월탄(月灘)이며, 임진왜란 때 영해전투에서 왜군을 격파한 뒤 경상좌도관찰사에 특진, 순찰사를 겸하고 군량미 조달에 힘썼다. 이이첨과 같은 당파가 되어 반대파를 몰아내고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을 지내면서 인목대비(仁穆大妃) 폐출에 앞장섰다. 인조반정 후 관직이 추탈되었다.

[위치]

분당구 서현동에 있다.

[변천]

사당 안에 걸려 있는 ‘장헌공재실중수기(莊獻公齋室重修記)’에 의하면 사당은 단기 4303년(1970년) 가을에 중수되었다.

[형태]

모헌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구조로 정면에는 솟을삼문이 있고, 시멘트 벽돌로 담장을 둘렀다. 사당 안에는 1619년 5월 19일 광해군이 내린 ‘대광보국숭록대부영중추부사(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 교지의 사본 사진과 임진왜란 당시 한효순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기록 사본 사진을 비롯하여 한효순이 사용한 옥관자(玉貫子), 갓끈 등이 보존되어 있다.

[현황]

청주한씨 장헌공파 후손들이 매년 음력 10월 7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후손들의 의례 공간이자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효순 소개]

한효순(1543~162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 자는 면숙(勉叔), 호는 월탄(月灘)이다. 한상경(韓尙敬)의 아들로 1576년 식년문과에 급제 후 영해부사(寧海府使)가 되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영해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고, 그 후 경상좌도관찰사에 특진하여 순찰사를 겸임하였다. 1610년(광해군 2) 이조판서에 재임되어 이이첨(李爾瞻)과 함께 인사권을 장악하여 반대파를 모두 추방하였다. 1616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고 이듬해 폐모론(廢母論)을 발의하여 이에 반대하는 이항복(李恒福), 기자헌(奇自獻)을 탄핵하여 유배케 하였다. 1618년 폐모를 실현시켜 서궁(西宮)에 유폐케 했으나 1613년 인조반정으로 관직이 추탈되었다. 편서로는 《신기비결(神器秘訣)》과 《진설(陣說)》이 있다.

4) 한산이씨 아천부원군 부조묘(鵝川府院君·不祧廟)

[개설]

부조묘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증(1525~1600)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이다. 이증은 본관은 한산, 호는 북애(北崖)이며, 선조 때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아천군(鵝川君)에 봉해졌다. 성품이 청렴하였으며,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였다 한다.

[위치]

부조묘는 한산이씨 세거지인 수내동의 중앙공원 내 한산이씨 묘역 하단에 남향하고 있다.

[변천]

사당은 조선시대에 건립되었으며, 사당 안에 걸려 있는 '갑술오월길일중건(甲戌五月吉日重建)'이라는 현판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1994년에 중건되었다.

[형태]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구조이며, 마루와 좌우에 풍벽(風壁)을 마련해 놓았다. 사당 정면에는 '숭모문(崇慕門)'이라는 현판이 붙은 솟을삼문이 있고, 주위에 담장을 둘렀다. 사당 중앙에는 '부조묘(不祧廟)'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그 위에 작은 글자의 전서(篆書)로 '아천부원군(鵝川府院君)'이라고 쓰여 있다. 경내에는 이증의 선조인 한원군(韓原君) 이장윤(李長潤)의 묘표와 상석이 이전되어 보존되고 있다.

[현황]

한산이씨 아천군과 종회에서 매년 음력 10월 14일 정오에 이증의 기제(忌祭)를 올리고, 음력 5월 29일 정오에는 이증의 정부인인 경주이씨의 기제를 지낸다. 부조묘는 한산이씨 묘역과 더불어 한산이씨 종회의 의례 공간이자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가겸(可謙)이고, 호는 북애(北崖)이다. 이색(李穡)의 7세손으로 아버지는 이지숙(李之菽)이다.

[이증 소개]

1549년(명종 4)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60년(명종 15)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수찬, 함경도북평사 등을 거쳐 병조참의, 전라도관찰사, 동지의금부사 등을 지냈다.

1580년(선조 13) 예조참판으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어서 형조판서, 자헌대부, 정헌대부 등에 올랐다.

그 뒤 예조판서, 공조판서 및 의정부의 좌, 우참찬 등을 지냈다. 1589년(선조 22) 대사간으로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다스린 공으로, 이듬해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이 되어 아천군(鵝川君)에 봉해졌다. 임진왜란 후에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썼다. 저서로는 《북애시고(北崖詩稿)》가 있다. 시호는 의간(懿簡)이며, 묘역은 성남시 분당중

양공원 내에 있다. 죽은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5) 전주이씨 덕양군 사당 정희사(靖僖祠)

[개설]

덕양군 이기(1524~1581)는 조선 중종의 다섯째 서자로 전주이씨(全州李氏) 덕양군파의 중시조(中始祖)이다. 조선시대부터 덕양군을 불천지위로 삼아 정희사에 배향하였다.

[위치]

정희사는 전주이씨 덕양군파의 사패지(賜牌地)에 조성된 궁내동의 전주이씨 묘역 하단에 동향하여 있다.

[변천]

1970년대에 중건과 보수작업을 하였다.

[형태]

정희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구조로 태극무늬로 장식된 솟을삼문에 담장을 둘렀으며, 주심포 양식에 청록기와를 얹었다. 경내에는 덕양군 신도비와 그의 손자인 충숙공(忠肅公) 이수(李睟)의 신도비가 동향하여 나란히 있으며, 마당 앞에는 사당을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모선재(慕先齋)라는 재실이 있다.

[현황]

정희사는 현재 전주이씨 덕양군파 종중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다. 덕양군의 기제(忌祭)는 매년 음력 6월 22일에 올리고, 부인 안동권씨의 기제는 음력 9월 17일에 지내며, 근래에는 시향(時享)으로 덕양군과 종중의 조상들 16위(位)를 함께 제사지내고 있다. 정희사는 덕양군파 묘역과 더불어 전주이씨 덕양군파의 의례 공간이자 상징적 구심점으로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기 소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고(伯高), 중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어머니는 숙원이씨(淑媛李氏)이며, 부인은 예조판서 권찬(權纘)의 딸로서 영가군부인(永嘉郡夫人)에 봉해졌다. 9세 때에 덕양군(德陽君)으로 봉군되었다. 어머니와 일찍 사별하여 중종의 총애가 특별했으며, 형제인 인종, 명종과도 우애가 돈독하였다. 명종 때 종친부(宗親府), 종부시, 사옹원(司饔院), 문소전(文昭殿), 연은전(延恩殿) 등에서 관직을 역임하였고, 선조 대에도 종실로서의 존례(尊禮)를 정중하고 극진하게 받았다. 특히 음률에 해박하였으며, 평생 귀한 신분임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과 절약을 삼가 실천하였다. 향년 57세로 세상을 마쳤다. 12년 뒤에 영가군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덕양군의 묘에 쌍분하였다. 이기의 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17-1에 있다. 묘역 하단에는 사당인 정희사(靖僖祠)가 있다.

6) 윤경지 사당 모덕재(慕德齋)

[개설]

1992년 9월 29일 해평윤씨(海平尹氏) 종친회에서 조선 중기에 홍천현감(洪川縣監)을 지낸 윤경지(1604~1659)를 제사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당이다.

[위치]

모덕재는 해평윤씨(海平尹氏)의 세거지인 수정구 복정동 웃말골 해평윤씨 묘역 좌측에 북동향하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성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가천대학교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형태]

모덕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사당으로, 정면의 네 기둥에는 초서체로 쓴 주련(柱聯: 기둥이나 벽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한시 대구)이 달려 있다. 주련은 덕과 학문을 닦아 조상의 일을 계승하고자 하는 내

용이다. 사당 정면에는 '수덕문(修德門)'이란 현판이 붙은 태극무늬의 솟을삼문이 있고, 사당 측면에는 제사를 준비하고 사당을 관리하는 재실(齋室)이 있으며, 주위에는 한옥 기와를 올린 담장이 둘러 있다. 사당 내에는 윤경지 영정과 함께 윤경지의 조부로서 현재 묘(墓)가 북한에 있는 문정공(文靖公)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의 영정을 나란히 모시고 있다.

[현황]

해평윤씨 종중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5일 정오를 전후로 하여 윤경지를 위한 시향(時享)을 올리고, 음력 4월 7일 정오에는 윤두수의 기제(忌祭)를 올리고 있다. 모덕재는 해평윤씨 묘역과 함께 해평윤씨 종중의 의례 공간이자 상징적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윤경지 소개]

조선 후기의 문신인 윤경지는 선조 대 영의정을 지낸 문정공 윤두수(尹斗壽)의 손자이고, 공조판서를 지낸 아버지 장익공 윤휘(尹暉)와 어머니 사평 이기명(李耆命)의 딸 사이의 셋째 아들이다. 부인은 연일정씨 정립(鄭嶺)의 딸이고, 아들은 윤기(尹圻)이다. 예조참판에 올랐던 유심(柳滄)과 참의를 지낸 김진표(金震標)가 사위이다. 처음 문음(門蔭)으로 세마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후일 훈국랑, 평릉찰방을 거쳐 최종 벼슬은 통훈대부로 홍천연감에 이르렀는데,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높았다. 윤경지 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산 71-1에 위치한다. 1992년 9월 29일 해평윤씨(海平尹氏) 종친회에서 윤경지를 제사하기 위한 사당인 모덕재를 북정동 해평윤씨 묘역 좌측에 건립하였다. 모덕재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성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경원대학교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5일 정오를 전후로 하여 윤경지를 위한 시향(時享)을 올리고 있다.

7) 권득기의 흥모재(興慕齋)

[개설]

흥모재는 조선 중기의 문신 권득기(權得己)를 배향하는 재실이다. 권득기는 본관이 안동이고, 호는 만회(晩悔)이며, 조선 광해군 때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예조좌랑 등을 지냈으나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위하는 등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관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은거하였다.

[위치]

금곡동 청계산 자락에 조성된 안동권씨 묘역 하단에 남향하여 있다.

[형태]

흥모재는 정면 4칸, 측면 3칸의 주심포 양식의 팔작지붕 구조로 흑유기와를 얹었다. 각 기둥마다 가로 20.5cm, 세로 122cm의 검은색 판자 5개에 권득기가 지은 한시(漢詩)를 써놓은 것이 특색이다. ‘흥모재(興慕齋)’ 현판이 걸려 있는 중앙의 기둥에는 가로 두 줄로 ‘彼幸巷無人常掩門忽聞春色上郊原欲題新祝將何語海月盈盈聰碧□(피해향무인상언문홀문춘색상교원욕제신축장하어해월영영총벽□)’ 이라 썼고, 작은 글자로 ‘晩悔先生立春詩其一(만회선생입춘시기일)’의 시 한 수가 적혀 있다.

[권득기 소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지(重之), 호는 만회(晩悔)이다. 권득기가 궁내동에 살고 있던 전주이씨 집안의 귀성군 이침의 사위가 되어 분당구 금곡동 뒷골에 처음 정착하게 된 이후 안동권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친아버지는 예조판서 권극례(權克禮)이며 어머니는 윤천석의 딸인데, 큰아버지인 선공감역 권극관(權克寬)에게 입양되었다. 1589년(선조 22) 진사시에 합격하고, 1610년(광해군 5)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예조좌랑에 제수되었다. 그 뒤 광해군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 지금의 덕수궁)에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등 폭정을 휘두르자 고산도찰방(高山道察訪)을 사임하고 충청남도 태안에 은거하였다. 저서

로 《만회집(晩晦集)》, 《연송잡기(然松雜記)》 등이 있다. 권득기 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 8-21에 있다.

8) 강정일당 사당 정일당(靜一堂)

[개설]

정일당 강씨(1772~1832)는 조선 후기의 여류 문인으로 본관은 진주, 호는 정일당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문장가로 이름 높았던 강희맹(姜希孟)의 후손으로 파평윤씨(坡平尹氏) 집안의 윤광연(光演)과 혼인하였다. 가난한 살림에 바느질로 생계를 이으면서도 남편을 도와 함께 공부하여 경서(經書)에 두루 통하였으며, 시문(詩文)과 서화(書畵)에 뛰어나 당시에 명성이 높았다. 글씨는 홍의영(洪儀永), 권복인(權復仁), 황운조(黃運祚) 등의 필법을 이어받았는데, 특히 해서(楷書)를 잘 썼다. 저서로는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 1책과 시문집 1책 등이 있다. 성남시에서는 1992년 강정일당상을 제정하여 현대여성의 귀감으로 삼고 매년 시상하고 있다.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청계산 기슭에 동남향하여 있다.

[면적]

사당은 1989년 10월 정일당 강씨의 시가(嫗家)인 파평윤씨 종친회에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조성하였다. 이후 건물이 퇴락하자 1998년 7월 성남시에서 정일당 강씨 문중의 협조를 구하여 다시 조성하였다.

[형태]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翼工系) 맞배지붕 구조이며, 측면에 풍벽(風壁)을 갖추고 있다. 사당 중앙에는 '정일당(靜一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사당 안에는 정일당 강씨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사당 입구에는 좌우로 안내표지판과 정일당 강씨 추모비가 세워져 있을 뿐 별

도의 담장이나 대문이 없다.

조사된 각 문중별 사당을 정리하여 둔다.

끝으로 성남 시 승격 이전의 교육 일부였던 서당을 증언에 따라 정리하였다. 성남지역에서 구제도에 의한 서당(書堂)은 1930년대 이전까지도 각 마을에 존재했었다. 원주민 후손들의 기억된 이야기라든가 구전(口



▲ 김홍도 단원풍속도첩(檀園風俗圖帖 보물 제527호)中 '서당', 27×22.7cm, 국립중앙박물관

傳)된 말로도 얼마든지 서당들은 각 마을에서 지도력 있는 선비들의 기초한문 강독으로 꾸며져 내려 왔었다. 유교적 양반관료 밑에서의 서당 교육은 마을 청소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문학 초보 수준이었으므로 늦어도 15~6세에 이르면 향교 또는 서원교육으로 옮겨졌다.

중부면 탄리(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성남초등학교 인근)지역에서의 '讀亭서당', 중부면 상대원리(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신구대학 인근)지역에서의 '大院서당', 이미리(현 농업기술센터 정문 인근)지역에서의 '二梅서당', 대왕면 둔전리(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마을)지역에서의 '金陵서당', 낙생면 윤중리(현 성남시 분당구 윤중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인근)지역에서의 '淸溪서당', 돌마면 분점리(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한솔고등학교 인근)지역에서의 '釜店서당', 돌마면 도촌리(현 성남시 분당구 도촌동 도촌초등학교 인근)지역에서의 '島村서당', 돌마면 울리

(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율동 호수공원 인근)지역에서의 ‘門中서당’ 등이 오늘날의 성남시 일원에서 유소년기 기초학문을 필두로 하여 유소년 및 청년 세대를 위한 옛 학문을 이어서 가르쳐 오던 향리(鄉里) 강학(講學)의 학습장소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향토사 연구에서조차 언급된 적 없었던 성남시 관할, 옛 광주문화권 안의 서당·향교·사당·서당의 자취를 자료적 가치에 의해 정리하였다. 학문적 공간으로서의 향교, 사설교육 산실로서의 서원, 각 문중 선조 추앙공간으로서의 사당 그리고, 전통 유소년 교육 산실로서의 서당을 자료 정리하며, 이 시대의 전통문화 터전을 통한 현대인 활용방안에 시선을 돌리므로써 한국역사에 묻히고 있는 이들의 공간을 시민 평생교육 문화장소로 재조명하는 바램이 없지 않다.

城南지역의 先賢墓域Ⅱ

—德水李氏 묘역을 중심으로

한동익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차례 ◆

- I. 서론
- II. 인물과 묘역
- III. 결론

I. 서론

인류가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같은 혈통의 부족집단이 한 번도 해체된 적이 없다. 그것은 원시시대부터 이어져 온 끈끈한 혈통을 기반으로 한 집단생활의 편리함과 모태본능적(母胎本能的)인 모성애(母性愛)와 가부장적(家父長的)인 남성들에 의한 시대별 대응방식 중에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원시시대부터 시작한 부족집단들이 합세하여 하나의 작은 국가를 이루거나 작은 집단들이 모여 대단위의 국가를 이루고 살면서도 그 집단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반대하여 부족의 해체가 이루어진 것은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 성남의 테두리 안에서 명멸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온 부족집단이 무려 60여 문중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문중마다 시조를 위시하여 명인현사의 배출 수효가 많고 적음에 따라 양반가의 품격이 상향조정 되기도 하였고 역적이 그 문중에서 나오면 멸문지화를 당하였기 때문에 문중에서의 가르침은 멸사봉공의 정신사고와 충효덕례에 기인한 절충보국의 사고였고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인의예지신의 오상을 가슴에 새기는 명심(銘心)이 근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성남지역에 누대를 살아오며 문중의 영달과 부침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의 조명을 이루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여는 근본으로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정밀 분석하여 시대감각에 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특히 덕수이씨 가문은 조선시대에 명인현사를 대량 배출한 명문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문중이다. 조선시대의 문사(文士)중에 첫손가락을 꼽는 울곡(栗谷) 이이(李珥) 선생과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통칭되는 성웅(聖雄) 이순신(李舜臣) 장군을 배출한 문중이다. 이렇듯이 문·무양대(兩大) 인맥의 큰 인물(巨物)을 배출한 이면에는 문중이 고이 간직한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성남시내에 산재한 덕수이씨 문중 선현들의 묘역을 둘러보면서 그분들의 자취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의 무궁한 변화 속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중이 대처해 나온 발자취가 곧 사는 방법이었을 것이고 문중의 번영을 이루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족한 자료에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 와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중의 족보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그분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특히, 성남문화원이 발간한 《성남인물지(城南人物誌)》의 내용이 건실(健實)하다는 평판(評判)에 힘입어 《조선왕조실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제하고, 《성남인물지》에 기록된 내용들과 문중족보

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여타 문집에서 평가된 내용들을 상고하여 정리 하기로 하였다.

II. 인물과 묘역

이의번(李宜蕃, 생몰미상)

자(字)는 무숙(茂叔)이며 호(號)는 회덕(懷德)이다. 율곡의 작은 증조부가 되는데 성종 때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고 전하며 문과(文科)에는 실패하여 음보(蔭補)로 돈령부(敦寧府) 참봉(參奉)을 지냈다고 한다. 아들인 이함(李菡)과 이심(李藻)이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 3등에 녹권됨으로써 증 자헌대부 호조판서와 풍성군(豐城君)으로 추봉(追封)되었다. 묘소는 고등동 산 6-1번지에 정부인 안동 권씨와 유좌(酉坐)합폄이다.

묘표는 1747년에 세운 것으로 원수 방부형인데 총고는 133cm이고 비신은 128cm이며 폭은 59cm인데 두께는 14cm이다. 재질은 화강암으로 전면에는 묘주의 표제를 썼고 후면에는 행장이 새겨져 있다. 비좌는 매몰되어 양태를 알 수 없다.

상석이 있으며 상석 후면에는 혼유석이 전부에는 향로석이 있으며 망주석이 상단에 있고 하단에 문인석이 있다.

이 함(李菡, 1470~1534)

자는 자실(子實)이다. 어려서부터 무재가 있어 궁중을 수비하는 장교가 되었다. 성종 22년(1491) 좌의정으로 도원수를 겸한 허종(許琮)의 휘하 장교로 종군하여 공을 세우고 종팔품 승의부위에 제수되었고 승차(陞差)가 거듭되어 정사품 조산대부 정략장군이 되었다. 연산 11년(1505)

건공장군에 오르고 연산 12년(1506) 9월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병충분의 정국공신 3등에 녹훈이 되었으며 두 계급을 승차하여 정삼품 당상관인 통정대부 절충장군이 되었다. 중종 3년(1508) 가선대부로 승차하고 중종 4년 9월에 삭주부사 겸 병마첨절제사가 되면서 해풍군(海豐君)으로 봉군되어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외직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중종 24년(1529)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귀국 후 봉조하가 되었다. 중종 29년(1534) 순천부사 재임 중에 순직하였다. 증직(贈職)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참찬(左參贊)겸(兼)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제수 받았고, 불천위(不遷位)의 영광을 받았다. 묘소는 고등동산 13번지에 정부인 밀양박씨와 곤좌간향(坤坐艮向)에 쌍분이다.

묘표는 1732년에 다시 세워졌으며 원수(圓首)방부형(方趺形)으로 비신의 높이는 115cm이고 비두에는 복연이 양각되어 있으며 아래에 묘주의 표제가 있고, 후면에는 행장인 음기가 있다. 상석이 있고 후부에는 혼유석이 전부에는 향로석이 있으며 장명등이 있고 문인석과 망주석이 있다. 이함의 신도비는 운수방부로 운수의 전면에는 꽃무늬 운문과 전면 상단에 해를 새겼고 후면에는 역시 운문 속에 달을 새겼다. 건립연대는 중종(中宗 33년, 1538)이다. 총고 231cm이고 비고 136cm이다. 폭은 67cm이고 두께는 17cm인데 재질은 관석(冠石)과 비신(碑身)은 대리석이고 대석(臺石)은 화강암이다.

이심(李滌, 1472~1516)

자는 국향(國香)이다. 기골이 장대하고 무재가 뛰어나 내금위에서 궁중숙위를 하다가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병충분의정국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 이어 풍저장 주부로 전보되었고 중종 2년(1507)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무장현감에 제수되어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중종 7년(1512) 직산현감 재임 중 모친상을 당하여 삼년시묘를 마치고 예빈시 주부와 군

자감군으로 옮겼다가 사온서령으로 승차하였다. 중종 10년(1515) 경흥 부사가 되었는데 중종 11년(1516) 회령진에서 순직(殉職)하였다. 증직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제수 받았고 하원군(河源君)으로 추봉되었다.

묘소는 고등동 산 5-1번지에 증 정부인 밀양박씨와 씨와 임좌(壬坐)합폄이다. 묘비는 없다.

이인상(李麟祥, 1511~1560)

자는 정보(禎甫)이다. 과거유무는 알려지지 않고 정삼품 통훈대부 어모장군과 선공감 감역을 지냈다고 전한다. 증직(贈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겸 의금부사(義禁府事)를 제수 받았다.

묘소는 고등동 산 13번지에 증 정부인 안동김씨와 곤좌(坤坐) 합장이다. 묘표는 원수 방부형으로 되어 있다. 상석이 있고 후부에는 혼유석이, 전부에는 향로석이 있으며 문인석이 있다.

이통(李通, 1556~1620)

자는 친구(天衢)이다. 율곡의 재종제이다 선조 15년(1582) 생원시에 합격하고 선조 17년(1584)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대과에는 실패하였고 다시 응시하지 않았다.

현량으로 내시교관에 제수되었으나 응하지 않다가 경안도 찰방이 제수되자 부임하여 환로에 나갔다. 출륙(出六)을 한 뒤에 내직을 거치고 고산현감과 흡곡현령, 평창군수, 순천군수 등을 두루 거치고 온양군수로 아산현령을 겸하기도 하였다. 광해군이 등극하자 벼슬을 버리고 서호에 은둔하면서 학문에만 힘썼고 한음 이덕형과 월사 이정구 등과 교유하였다. 광해 6년(1614) 영창대군이 피살되자 선릉에 숨어 은둔생활을 하였다. 교유하는 친구들이 자주 찾아왔으나 한 번도 그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우리 친분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비의 발자취가 재상의 문턱을 가까이 함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증직으로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을 제수 받고 덕풍군(德豐君)으로 추봉되었다.

묘소는 고등동 산 37-1번지에 증 정경부인 문화류씨와 신좌(辛坐)합폄이다. 묘표는 운문 속에 전면에는 해가 후면에는 달이 양각되어 있다. 상석의 후부에는 혼유석이 있고 전부에는 향로석이 있으며 동자석과 문인석 그리고 망주석이 있다.

이경안(李景顔, 1572~1614)

자는 여우(汝愚)이고 호는 송석(松石)이다. 선조 24년(1591)에 진사가 되었고 선조 38년(1605)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선조 41년(1608) 학정(學正)으로 중시에 급제하였다. 광해 1년(1609) 어모장군 행 충좌위사과가 되어 선조실록(宣祖實錄) 편수관(編修官)이 되었고 이어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이 되었다. 광해 2년(1610) 예조좌랑이 되었고 광해 3년(1611)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가 사헌부 감찰 정민홍을 경솔하게 탄핵하였다 하여 체차(遞差)되었다. 광해 4년(1612) 홍문관의 요청으로 다시 사간원 정언이 되고 동년 성균관 직강으로 옮겼다. 광해 6년(1614) 1월 25일에 졸하였다.

증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예문관(禮文館) 직제학(直提學) 상서원(尙瑞院)정(正)을 제수 받았다.

묘소는 고등동 산 37-4번지에 숙부인 연양김씨와 유좌(酉坐)합폄이다. 묘표는 원수 방부형으로 되어 있다. 상석의 후부에는 혼유석이 있고 전부에는 향로석이 있으며 망주석이 있다.

 이경민(李景閔, 1578~1652)

자는 여은(汝聞)이고 호는 양촌(陽村)이다. 광해 5년(1613)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이후 참봉과 봉사(奉事)를 거쳐 광해 9년에 선공감(繕工監) 직장이 되어 인왕산 아래에 성첩(城堞)과 집짓는 공사감독을 잘하여 광해 10년 사재감 직장으로 옮겼다가 인목대비 폐모(廢母)론이 일어나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얼마 후 현감을 지내는 중에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시묘에 들어가 거의 마칠 즈음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정사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으나 청서에 속하였던 관계로 고사하였다. 인조 2년(1624) 의성현령으로 나갔다가 예안유생 이유도의 형신에 연루되었다 하여 파직되었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에는 세자(世子)를 배종(陪從)하여 전주로 내려갔다가 동년 9월에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익위(翊衛)에 보임되었다가 인조 6년(1628) 2월에 용인현령이 되어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 개성부도사를 지냈다.

인조 15년(1637) 4월에 의영고 주부와 장례원 사평을 거쳐 승차한 뒤 옥천군수로 내려가 임기를 마치고 차사원이 되었다가 다시 옥천현감으로 내려갔다가 청나라로부터 도망하여 되돌아온 사람들을 쇄송(刷送)하라는 명령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인조 19년(1641) 배천군수 겸 해주진관병마절도사로 나갔다가 돌아와 효종 3년(1652) 7월 9일 졸하였다. 증직이 누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을 제수 받았다.

묘소는 고등동 산 37-29번지에 초배 증 정경부인 전주이씨와 신좌을향(辛坐乙向) 합장이다. 계배 정경부인 성주이씨는 공의 묘 서쪽인 좌측기슭에 있다. 묘표는 신, 구 두 개의 묘표가 있는데 구비의 총고 135cm이고 비신은 113cm이며 폭은 56cm인데 두께는 15cm이다. 상석이 있고 후부에는 혼유석이 전부에는 향로석이 있으며 문인석이 있다. 후배 성주이씨

묘소에도 묘표가 있는데 총고 129cm이고 비신은 111cm이며 폭은 54cm인데 두께는 15cm이다. 묘표는 원수방부형의 비두에 비신이 이어져 있고 대석에는 복연과 당초문이 양각되어 있다. 묘표는 비신과 대석이 모두 화강암이다.

이경민의 신도비는 운수귀부형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인다. 비좌는 거북의 몸과 용의 머리를 합성한 특이한 모습이다. 눈썹이 두꺼운 양각으로 돌출시켰으며 큰 눈을 돋보이게 크게 양각하여 앞을 바라보고 있고 코와 입도 돌출되었는데 이빨이 뚜렷하게 새겨진 것이 이채롭다. 귀는 소의 귀와 흡사하게 만들어졌으며 목 주위의 귀갑도 인상적이다. 거북의 등에는 상체와 하체에 모두 육각형의 귀갑문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거북의 등에는 정장형의 비대가 있고 그 위에 비신이 서있는 전형적인 운수귀부형의 신도비이다.

이경용(李景容, 1580~1635)

자는 여복(汝復)이고 호는 두곡(杜谷)과 계곡(桂谷)이다. 광해 1년(1609)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광해 10년(1618)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고 인조 1년(1623)에 승문원 정자가 되었다가 홍문관 저작으로 옮겼고 이어 승정원 주서가 되었다. 이때에 동문선한질을 하사 받았다. 인조 2년(1624) 병조좌랑을 거쳐 사가원 정언과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인조 3년(1625) 홍문관 수찬 사헌부 지평을 거치고 성균관 직장이 되었다.

이어 홍문관 교리가 되어 최명길과 서얼금고법의 폐지를 주청하기도 하였다. 이어 사간원 헌납을 거쳐 종성부사가 되어 외직으로 나갔다. 인조 5년(1627) 광주(廣州)목사가 되었고 인조 6년(1628)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었다가 우부승지가 되었으며 이어 황해도 감사로 부임하여서는 율곡의 《격몽요결》을 수 백 본을 만들어서 지방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후

에 경연참찬관과 양양부사와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글씨에 뛰어났다고 전한다.

묘소는 상적동 산 24번지에 숙부인 안동권씨와 임좌(壬坐)합폄이다. 묘표의 비두는 팔작기와형이고 비신은 오석으로 세워졌다. 상석과 상석 후부에는 혼유석이 있고 전부에는 향로석과 동자석 문인석과 망주석이 있다.

이경헌(李景憲, 1585~1651)

자는 여사(汝思)이고 호는 지전(芝田)이다. 광해 1년(1609) 진사시에 합격하고 광해 10년(1618)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고 이어 봉상시 주부와 강원도 도사를 지냈다. 광해 말년에는 벼슬을 하지 않다가 인조반정후 사헌부 지평과 장령을 지냈다. 이어 예조정랑과 형조정랑을 거치고 성균관 전적과 직강, 사예 등을 거쳐 사복시 첨정과 장악원정 그리고 세자시강원 필선을 지냈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에는 왕을 호종하였으며 병조참의로 승차하였고 승정원 동부승지를 거쳐 정사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공주목사로 나갔다가는 전 목사 송홍주의 무고로 정직을 당하였다. 인조 8년(1630) 접반사로 가도(假島)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형조참의와 호조참의를 지냈다. 인조 11년(1633) 승지를 지낼 때에 왕의 노여움을 사서 3년간 유배를 당하였다. 인조 14년(1636) 대사헌 조익의 사면추청으로 풀려나 형조참의가 되었다.

이어 병조참의가 되었으며 화의의 공로가 인정되어 가의대부로 승차하여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가 되었다가 개성부유수가 되었다. 인조 17년(1639) 서추(西樞)겸 동지의금부사가 되어 사은부사로 청에 가서 세자와 원손을 교체하여 달라는 노력이 왕의 뜻을 어겼다 하여 인조 18년(1640) 남양에 유배되었다가 세자가 귀국하자 곧 풀려났다. 인조 20년(1642) 경기감사가 되었고 이어 도승지와 사옹원제조를 지냈다. 인조 22

년(1644) 원접사로 활약한 후에 강화유수가 되었다가 인조 25년(1647)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가 되었으며 인조 26년(1648) 공조와 예조의 참판을 거쳐 지돈령부사가 되었다. 효종 2년(1651) 병조와 의금부에서 근무하다가 졸하였다. 증직으로는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홍문관(弘文館)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사(世子師) 좌빈객(左賓客)을 제수 받았다.

묘소는 상적동 산 24-1번지에 정부인 파평윤씨와 간좌(艮坐)합폄이다. 묘표는 총고 188cm이고 비신은 112cm이며 폭은 54cm인데 후(厚, 두께)는 19cm이다. 관석에는 전면에 운문 속에 일문과 후면에 일문이 양각되어 있다. 관석과 비신은 대리석이고 대석은 화강암이다. 묘표 외에 상석과 후면에 혼유석이 있고 전부에는 향로석과 작은 문인석이 양쪽에 있고 큰 문인석과 망주석이 있다.

이목(李穆, 1589~1642)

자는 중심(仲深)이고 호는 북계(北溪)이다. 광해 5년(1613)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보로 환로에 나갔으나 이이첨과의 불화로 평안도 숙천으로 피신하였다가 인조반정 이후 내자시 주부와 전의현감과 송라찰방을 지냈다. 인조 4년(1626)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인조 19년(1641) 호조좌랑으로 재임 시 한해대책에 대한 주청 상소를 올려 왕의 신임을 받았다. 인조 20년(1642) 창평현령으로 재임 중 순직하였다.

문집 2권 1책 시 384수(首), 문(文) 약간을 남겼다. 그 중에 <영화중노안(詠畫中蘆雁)>이라는 시의 칠언 절구는 기아(箕雅)와 대동시선(大東詩選)에 이목의 대표작으로 회자(回刺)되고 있다.

묘소는 대장동 산 52번지에 숙인 초배 양천허씨와 계배 파평윤씨, 그리고 삼배 고령신씨와 일자형으로 합폄이다.

 이경증(李景曾, 1595~1648)

자는 여성(汝省)이고 호는 미강(眉江)과 송음(松陰)이다. 광해 5년(1613) 진사가 되었으나 폐모론이 일어나자 낙향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재량(齎諫)으로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인조 2년(1624)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인조 4년(1626)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가 다시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인조 5년(1627) 호남 독운어사로 파견되었고 인조 9년(1631) 홍문관 교리로 있을 적에 시무8조를 주청하여 국정에 반영토록 하였다. 인조 14년(1636) 병방승지가 되었다가 도승지가 되었다. 후에 사간원 대사간과 병조판서에 이르고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을 지냈다. 인조 20년(1642) 예조판서 시절에 청과의 외교적 마찰을 잘 진무하고 인조 24년(1646) 별시의 주시관이 되었는데 시제가 시회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삭출(削出)되었다. 인조 26년(1648)에 졸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선영 자좌(子坐)에 있다가 용인시 흥덕구 기흥면 영덕리에 이장하였는데, 정부인 완산이씨와 합폄이다.

 이순(李洵, 1596~1661)

자는 청원(淸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서 인조 19년(1641) 훈련원 첨정을 거쳐 인조 23년(1645) 아산 군수를 지냈다. 효종 원년(1650) 경흥부사를 지냈는데 군기(軍旗)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로 함경도 어사에게 추고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현종 2년(1661)에 졸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산 5-1번지에 숙인 재령강씨와 해좌(亥坐)합폄이다.

 이엄(李穰, 1602~1669)

자는 정춘(正春)이다. 음보로 환로에 나가 여러 관직을 거치고 인조 24

년(1646) 사헌부 감찰을 지내다 11월에 제천현감으로 나갔다. 효종 3년(1652)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시묘를 하였고 현종 원년(1660) 7월 상운도찰방을 거쳐 현종 7년(1666) 장흥고 주부로 있다가 동년 10월에 청산현감에 제수되고 양현고 직장관 청주진관 동 첨병마절도위(僉兵馬節度尉)를 겸하였다. 현종 10년(1669) 8월 13일에 졸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초배 숙인 평강채씨와 계배 숙인 청주한씨와 합편이다.

☞ 이래(李稭, 1603~1650)

자는 추빈(秋賓)이고 호는 능호(菱湖)이다. 인조 2년(1624)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음보로 참봉이 되었다. 인조 16년(1638)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인조 17년(1639) 사헌부 지평이 되고 인조 18년(1640) 사간원 정언과 사헌부 장령을 지내면서 대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때 다시 예조정랑으로 옮기면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에 홍문관 수찬과 홍문관 교리를 거치고 사간원 헌납과 성균관 직강을 지냈다. 인조 21년(1643) 소현세자의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배종하여 청나라로 갔다. 8월에 잠시 귀국하였다가 인조 22년(1644)에 세자와 함께 귀국하였다. 인조 25년(1647) 통정대부로 승차하여 우승지와 좌승지를 거쳐 후에 광주부윤이 되었다.

증직으로 종이품(從二品) 가선대부 이조참판을 제수 받았다.

묘소는 고등동 산 37-29번지에 증 정부인 의성김씨와 유좌(酉坐)합편이다.

☞ 이륙(李陸, 1609~1640)

자는 계유(季有)이다. 명문가의 자제로서 환로에 나간 기록은 없다. 32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夭折)하였는데 인근 사림의 명망이 있었다고 전한다. 증직으로 가선대부 호조참판을 제수 받고 덕창군(德昌君)으로 추

봉되었다.

묘소는 고등동 6번지에 증 정부인 양주조씨와 임좌(壬坐)합폄이다.

이정(李程, 1618~1671)

자는 운장(雲長)이고 호는 남곡(南谷)이다. 인조 13년(1635) 증광시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효종 1년(1650)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승정원 가주서와 승문원 부정자 춘추관 기사관 예문관 검열을 지내고 효종 5년(1654) 세자시강원 사서가 되고 동년 7월 예조좌랑으로 옮겼다가 효종 6년(1655) 신창현감이 되었다. 효종 8년(1657) 사간원 정언이 되고 효종 9년(1658)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효종 10년(1659) 사헌부 집의가 되었고 4월에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옮겼다가 강원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현종 3년(1662) 사헌부 장령과 사간원 사간을 거쳐 사복시 정에 보임되었다. 현종 5년(1664) 사은사 겸 진주사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현종 6년(1665) 홍문관 교리를 거쳐 현종 7년(1666) 홍문관 수찬과 응교를 거쳐 통정대부로 승차하였다. 이어 승정원 동부승지를 지내다가 현종 9년(1668) 좌, 우부승지를 거치고 승지가 되었다. 현종 12년(1671)에 졸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숙부인 기계유씨와 해좌(亥坐)합폄이다.

이빈(李稷, 1623~1697)

자는 형숙(馨叔)이다. 20세이던 인조 20년(1642) 식년무과에 급제하여 낭청의 사과로 환로에 나갔다. 인조 23년(1645) 거제현령이 되었고 이후 선전관청의 선전관과 도총경력을 거쳐 덕원부사를 역임하고 홍주영장으로 나갔다. 현종 2년(1661) 부호군이 되고 다시 내금위장이 되었다. 현종 3년(1662) 동지중추부사에 이르고 현종 6년(1665) 노강진 수군첨절제사와 해미현감을 거쳐 영흥부사가 되었다가 소강진수군 첨절제사를 거

처서 오위장이 되었다. 현종 14년(1673) 철원부사에 부임하였다가 추고되었고 결국에는 현종 15년(1674) 삭직되었다. 숙종 즉위년(1675) 구성부사로 부임하고 숙종 2년(1676) 훈련원 도정을 거쳐 숙종 5년(1679) 충청도수군절도사가 되었고, 경상우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되었다가 숙종 6년(1680) 삭탈관직되었다. 이 일로 9년간의 유배당하였다. 숙종 20년(1694)에 대장으로 추천되었지만 서용하라는 왕명에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숙종 23년(1697) 졸하였는데 정삼품 통정대부 당상관인 절충장군 겸 용양위부호군의 관작을 받았다.

묘소는 고등동 산 23-8번지에 초배 숙부인 삼가이씨와 계배 양천최씨와 건좌(乾坐)합폄이다.

이희상(李喜相, 1626~1692)

자는 정경(鼎卿)이다. 효종 5년(1654)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현종 4년(1663)창능 참봉이 되었으며 숙종 11년(1685) 전생서 봉사로 옮겼다. 숙종 12년(1686) 사옹원 직장이 되고 숙종 13년(1687) 사도원 직장으로 옮겼다. 이어 종부시주부로 승차하였고 숙종 14년(1688) 장열 왕후의 국장 때에 혼전도감 혼전향관에 임명되어 국장 후에는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다. 숙종 15년(1689) 홍산현감으로 외직에 나갔다. 숙종 18년(1692) 12월 29일에 졸하였다.

묘소는 상적동 산 24번지 임좌(壬坐)에 전배 숙인 청송심씨와 후배 숙인 창원황씨의 묘가 품자로 되어있다.

묘표는 원수방부형의 비두와 비신이 일체이다. 대석에는 문양이 없이 단조롭다. 묘표의 총고는 138cm이고 비신은 135cm이며 폭은 60cm인데 두께는 24cm이다. 상석과 후부에는 혼유석이 전부에는 향로석이 있고 망주석이 있다.

 이희인(李喜寅, 1626~1678)

자는 자명(子明)이다. 음보로 환로에 나가 여러 직책을 거친 뒤 현종 원년(1660)에 오위장으로 궁궐 숙위를 담당하다가 현종 7년(1666) 무과에 급제하였다. 현종 8년(1667) 평해군수로 부임하여 임기를 채우고 돌아와 현종 12년(1671) 영흥부사로 다시 외직에 나갔다가 임기를 마친 후에 돌아와 검사복장이 되어 근무 중에 영능 천장과 관련된 옥사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숙종 원년(1675) 홍주영장에 보임되었고 숙종 2년(1676) 오위장(五衛將)으로 복무 중에 순직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산 37-29 선영에 숙부인 안동권씨와 유좌(酉坐)합폄이다.

 이희익(李喜益, 1633~1718)

자는 여숙(汝叔)이다. 숙종 2년(1676) 무과에 급제하였다. 숙종 6년(1680) 서천포 만호가 되었는데 숙종 7년(1681) 공청도 암행어사 김두명(金斗明)의 서계로 파직되었다. 숙종 12년(1686) 사헌부 감찰이 되고 11월에는 공조좌랑이 되었다. 그 후 유원진 첨사로 북방 외직에 나갔다. 숙종 20년(1694) 강동현령으로 부임하였다가 평안도 어사의 서계로 다시 파직되었다. 숙종 28년(1702) 수원감목관으로 나갔다가 숙종 38년(1712)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다. 후에 수직으로 가선대부로 승차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정부인 청주한씨와 해좌(亥坐)합폄이다.

 이해(李蕙, 1635~1679)

자는 차산(次山)이고 호는 현포(玄圃)이다. 효종 5년(1654) 진사시에 장원을 하고 현종 1년(1660)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현종 2년(1661) 봉교를 거쳐 현종 3년(1662)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현종 6년(1665) 홍문록에 선임되었으며 현종 9년(1668) 이조정랑이 되었고 이어 해운판관 조가

석의 비리탐학을 비호한 혐의로 파직되었다. 현종 10년(1669) 홍문관 부교리와 사간원 사간을 거쳐서 현종 11년(1671) 삼남암행어사로 삼남을 순회하고 돌아와 남원, 무안, 진안현감을 파직하라는 계를 올렸다. 이 후 통정대부로 승차하고 동부승지와 우승지를 거쳐 예조참의를 지냈다. 현종 13년(1673) 대사간(大司諫)에 올라 지제교(知製敎)를 겸 하였다.

묘소는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서 이장하였는데 선영인 고등동 산 6번지에 숙부인 조배 평산신씨와 계배 진주유씨와 해좌(亥坐)합폄이다.

이희룡(李喜龍, 1639~1697)

자는 군서(君瑞)이다. 현종 13년(1672)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환로에 나가 여러 벼슬을 거쳤다. 숙종 1년(1675) 사헌부 지평으로 있을 적에 광세건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숙종 6년(1680) 숭릉(崇陵) 국장도감의 집사로 수행하였는데 술이 과하다는 이유로 체차되기도 하였다. 숙종 10년(1684) 사헌부 장령이 되고 이어 사간원 사간과 사헌부 장령으로 옮겼다가 통정대부로 승차하면서 승지가 되었다. 숙종 12년(1686) 강양도 관찰사로 외직에 나갔으나 다음해인 숙종 13년(1687)에 대간들에게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숙종 20년(1694) 동래부사(東萊府使)로 부임하여서는 백운산의 성을 축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숙종 21년(1695) 동래부의 장계와 왜서(倭書)의 등본을 올린 절차가 잘못되어 당해 승지와 중중추고(從重推考)를 당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정부인 전주이씨와 유좌(酉坐)합폄이다.

이희택(李喜澤, 1640~1691)

자는 윤경(潤卿)이다. 현종 1년(1660)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대신인 조정(趙綱)을 간사하다고 배척하는 무리에 섞여 왕으로부터 정거(停擧)를 당하였다. 후일 현종 15년(1674) 장릉 참

봉으로 환로에 나가게 되었다. 숙종 3년(1677) 종부시 직장이 되고 숙종 5년(1679) 금부도사가 되었다. 동년 6월에 교하현감으로 외직에 나가 민생구휼을 잘하여 숙종 6년(1680) 고령현감으로 옮기고 숙종 8년(1682) 금산군수가 되었다. 숙종 9년(1683) 합천군수를 지내고 숙종 10년(1684) 연안부사를 명받았으나 노모의 병구완을 하겠다는 이유로 체직을 건의하였다가 재해를 입은 고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숙종 11년(1685) 사직령을 제수 받았고 동년 10월에 정선군수로 부임하였고 숙종 14년(1688) 영월군수(寧越郡守)를 지내고 돌아와 숙종 17년(1691)에 졸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초배 숙인 양주조씨와 계배 안동김씨와 삼배 밀양박씨와 사배 진주소씨와 용품(用品)자형으로 유좌(酉坐)합폄이다.

이희개(李喜開, 1645~1679)

자는 전함이 없으며 음보로 환로에 나가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자세한 기록은 없고 통훈대부 양성현감을 지냈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숙인 상주김씨와 자좌(子坐)합폄이다.

이배(李培, 1649~1710)

자는 사후(士厚)이다. 숙종 16년(1690)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숙종 27년(1701) 창릉 참봉으로 환로에 나갔다. 숙종 28년(1702) 내섬시 봉사(奉事)가 되었다가 직장(直長)으로 승차하였다. 숙종 30년(1704) 선공감의 직장(直長)으로 옮겼고 숙종 31년(1705) 상의원 별제가 되었다. 숙종 32년(1706) 의금부도사가 되어 활약하다가 임부(林溥)를 잡아오라는 명령에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숙종 33년(1707) 장흥고 주부가 되었다가 12월에 공조좌랑이 되었다. 숙종 34년(1708) 목천현감이 되었고 숙

종 36년(1710) 5월 11일에 졸하였다.

증직으로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左承旨)를 제수 받았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증 숙부인 하동정씨와 합폄 유좌(酉坐)이다.

이희유(李喜濡, 1651~1669)

자는 천택(天澤)이다. 환로(宦路)에 나간 경위는 없고 다만 정오품(正五品)인 통덕랑(通德郎)을 지내다가 요절(夭折)하였다고 한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 해좌에 공인 달성서씨와 유좌(酉坐)합장이다. 석물은 상석과 상석 후부에는 혼유석이 있고 전부에는 향로석이 있으며 상석 좌측에 묘표가 있다.

이장(李璋, 1652~1722)

자는 사완(士完)이다. 숙종 2년(1676) 무과에 급제하여 환로에 나갔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숙종 13년(1687) 훈련원 주부와 서궁 가위장이 되었다. 숙종 25년(1699) 선전관이 되고 숙종 26년(1700) 도총도사가 되었는데 동년 3월엔 훈련판관을 7월에는 훈련첨정으로 승차하였다. 숙종 27년(1701) 고산리 첨사가 되었다가 오위장에 보임되었다. 숙종 28년(1702) 첨지로 승차함과 동시에 순천영장으로 부임하였다. 숙종 37년(1711) 함안군수가 되었다가 통정대부로 승차하여 경흥부사가 되었다. 숙종 44년(1718) 오위장이 되었고 이어 운봉현감(雲峰縣監)으로 외직에 나갔다.

묘소는 고등동 산 5-1번지에 숙부인 진주유씨와 유좌(酉坐)합폄이다.

이집(李堦, 1664~1733)

자는 노천(老泉)이고 호는 취촌(醉村)이다. 숙종 10년(1684) 사마시에 합격하고 숙종 23년(1697)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환로에 나갔다. 숙종 31

년(1705) 세자시강원의 겸문학으로 있을 적에 김재(金裁)를 비판하였다. 숙종 33년(1707) 문과증시에 급제하여 능력을 인정받아 숙종 36년(1710) 승정원 승지가 되었고 이어 대사간이 되어 최석정(崔錫鼎)을 신구(伸救)하다가 전직되었다. 경종 1년(1721) 8월 10일에 대사성이 되고 동년 8월 20일에 예조참판이 되었으며 동년 10월 27일에 도승지를 명받았고 동년 10월 29일에 황해감사가 되었다. 경종 2년(1722) 전라감사가 되었으며 영조 즉위년(1724) 10월 11일에 개성부유수가 되었고 영조 1년(1725) 3월에 한성부우윤이 되고 동년 9월에 판윤이 되었다. 영조 3년(1727) 동경연관이 되고 동년 8월에 겸 세자사 좌빈객이 되었다. 영조 4년(1728) 판의금부사가 되었고 영조 5년(1729) 3월 22일 자헌대부로 승차하면서 이조판서가 되었다. 동년 6월 6일에 승록대부 우의정에 오르고 이어 영조 6년(1730) 총호사를 겸하고 동년 8월 18일에 좌의정이 되었다. 영조 7년(1731) 4월 5일 사직을 청원하기 시작하였으나 가납되지 않았으며 동년 4월 21일 총재관을 겸하라는 명을 받고 재임 중에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이 되어 시묘에 들었다가 숙종 9년(1733) 6월 5일에 졸하였다.

졸기(卒記)에 “전 의정부 좌의정 이집이 졸하였다. 이집은 성질이 총독(聰篤)하고 근신하였으며 확고하게 지조를 지키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는데 정승의 자리에 있게 되어서는 탕평의 논리를 애써 부식하였다. 그러나 유봉휘를 앞장서 토죄하고 이진유에게는 형을 청한 것은 족히 시비를 판단함이 옳바르고 마음가짐이 공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기록되었다.

묘소는 고등동 선영에 있었는데 초배 정경부인 풍산홍씨와 계배 안동 김씨와 방학동으로 이장되어 해좌(亥坐)에 부좌(附左)함뎀이다.

이희엽(李喜燁, 1667~1751)

자는 사장(士章)이다. 시기는 전해지지 않으나 사마시에 합격하여 음

보로 환로에 나가 여러 관직을 거쳐서 종이품계인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묘소는 고등동 산 37-29번지에 초배 정부인 함열남궁씨와 계배 정부인 하동정씨와 술좌(戌座)합폄이다.

이희남(李喜楠, 1670~1696)

자는 자구(子久)이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는데 음보로 환로에 나갔는지? 아니면 후손의 입신영달에 힘입었는지 모르지만 증직으로 통정대부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제수 받았다.

묘소는 사송동 선영에 초배 증 숙부인 반남박씨와 계배 양주조씨가 임좌(壬坐)합폄이다.

이희함(李喜涵, 1673~1717)

자는 자유(子有)이고 호는 귀천(龜川)이다. 숙종 25년(1699) 증광시에 생원진사로 합격하고 숙종 29년(1703) 숭능(崇陵)참봉으로 환로에 나갔다. 문재가 뛰어나 직부회시하고 내섬시봉사로 옮기었다. 숙종 35년(1709) 통례원 인의가 되고 숙종 36년(1710) 평강현감이 되었다. 숙종 39년(1713) 공조정랑이 되었고 숙종 40년(1714) 천안군수를 명받았는데 공조에서 정릉(靖陵)의 석물을 개수하고자 유임을 요청하여 도감낭청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숙종 41년(1715) 옥천군수로 외직에 나갔다가 숙종 42년(1716) 병으로 사직을 요청하여 가납되었고 숙종 43년(1717) 졸하였다. 증직으로 가선대부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제수 받았다.

묘소는 사송동 선영에 증 정부인 창원황씨와 곤좌(坤坐)합폄이다.

이덕항(李德恒, 1682~1744)

자는 구이(久而)이다. 음보로 환로에 나가 영조 10년(1734) 순릉(純陵)

참봉과 익릉(翼陵)참봉을 지내고 후에 상의원 직장이 되었다. 영조 13년(1737) 활인별제로 승차하였다가 동년 9월 사헌부감찰로 승차하였다. 영조 14년(1738) 평시령이 되었고 동년 7월에 회덕현감이 되어 외직으로 나갔다. 영조 16년(1740) 7월에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전생서 주부가 되었다. 영조 17년(1741) 함열현감을 지내고 영조 20년(1744)에 졸하였다. 증직으로 가선대부 호조참판을 제수 받고 덕은군(德恩君)으로 추봉되었다.

묘소는 고등동 선영 경좌에 증정부인 원주원씨와 합함이다.

이부(李埠, 1694~1723)

자는 전함이 없고 음보로 환로에 나가 여러 벼슬을 하다가 정삼품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올랐다고 하는데 통정(通政)계에 무슨 관직인지는 알 수 없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숙부인과 합함이다.

이우(李瑀, 1697~1767)

자는 성빈(聖賓)이다. 경종(景宗) 3년(1723)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음보로 환로에 나갔다. 그러다가 영조(英祖) 27년(1751)에 국제시(菊製試)에서 장원급제하였고, 영조 28년(1752)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이 되었고, 영조 29년(1753)에 세자시강원 필선과 사간원 사간을 지냈다. 이듬해인 영조 30년(1754) 사헌부 집의가 되었다가 세자시강원 보덕에 보임되었다. 영조 31년(1755) 다시 사헌부 집의와 사간원 사간을 거쳐서 영광군수로 재직중인 영조 33년(1757)에 전라감사 홍경해로부터 탐욕스럽고 교활하다는 근무고과를 받았으나, 영조 34년(1758) 6월에 판의금(判義禁) 이익정이 이우의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영조 38년(1762)에 통정대부로 승차하여 승정원 승지

가 되었다. 이후 가선대부 병조참판으로 환로(宦路)를 마감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산 23-8번지에 초배 정부인 창원황씨와 계배 정부인 광산김씨와 인좌(寅坐)합폄이다.

이관(李灌, 1712~1291)

자는 습지(習之)이고 호는 만은(晩隱)이다. 음보로 환로에 나가 영조 40년(1764) 목릉(穆陵)참봉과 승문원이문학관을 지내다가 영조 41년(1765) 군자감주부와 세자익위사 사직을 지냈다. 영조 42년(1766) 장수찰방을 지내다 예빈시 주부로 내직으로 돌아왔다. 영조 44년(1768) 의금부도사가 되었다가 연산현감이 되었다. 정조 3년(1779) 홍계회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하여 탄핵을 받아 사판(仕版)에서 제명 삭제되었다. 최종 벼슬은 부총관이었다.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풍안군(豐安君)으로 봉군되었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정부인 문화유씨와 유좌(酉坐)합폄이다.

이현진(李憲鎭, 1718~1776)

자는 숙도(叔度)이다. 영조 23년(174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어 음보로 환로에 나가 내섬시봉사가 되었다. 영조 24년(1748) 동몽교관으로 옮기고 이어 선공감감역이 되었는데 5능 영건청의 감역관을 지내고 승록하여 제용감 주부가 되었다.

영조 29년(1753) 형조좌랑이 되었다가 사도세자와의 일로 파직되었다가 동년 6월 다시 형조좌랑이 되었다. 영조 32년(1756) 호조정랑으로 승차하고 이어 군향색종사관이 되었다. 영조 33년(1757) 정성왕후 국장에 국장도감의케낭청을 명받았다. 동년 10월 개령현감이 되고 이어 양근 군수가 되었다. 영조 36년(1760) 전주판관으로 나갔다가 전라감사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가 다시 사복시 첨정으로 내직으로 돌아왔다. 영조 38년

(1762) 세손빈 육례시에 가례낭청이 되어 일을 잘하여 승차하여 순창군수가 되어 인기를 마치고 남원부사가 되었다. 영조 42년(1766)청 주목사로 승차하고 영조 45년(1769)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이 되어 다시 내직으로 왔다. 영조 46년(1770) 충주목사로 외직으로 다시나갔다. 영조 52년(1776) 졸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산 37-29번지 술좌(戌座)에 초배 숙부인 청풍김씨와 계배 상주김 씨와 합폄이다.

이최진(李叡眞, 1719~1756)

자는 태초(太初)이다. 영조 23년(1747)식년시에 생원으로 급제하였다. 영조 24년(1748) 광릉(光陵) 참봉이 되어 환로에 나갔다 영조 28년(1752) 북부도사가 되었다가 후일에 은진현감이 되었다.

묘소는 사송동 선영에 숙인 대구서씨와 경좌(庚坐)합폄이다.

이한창(李漢昌, 1728~1787)

자는 사회(士喜)이다. 충무공 이순신의 6대손이다. 영조 27년(1751)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으로 환로에 나가 영조 30년(1754) 훈련원 주부가 되었다가 훈련원 부정이 되었고 영조 31년(1755) 삭주부사로 외직에 나갔다. 이어 훈련원 정(正)으로 내직으로 돌아왔고 영조 35년(1759) 자산부사가 되었다가 선천부사가 되었고 이어 황성현감으로 여러 외직을 거쳤다. 영조 42년(1766)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가선대부로 승차하였다. 영조 45년(1769)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영조 48년(1772)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나갔다가 영조 49년(1773) 광주(廣州)부윤이 되었다. 이후 당포만호와 금군병장을 거치다가 정조 4년(1780)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정조 5년(1781) 우변포도대장이 되고 정조 7년(1783)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으며 정조 10년(1786) 금군별장과 호군을 지내고 정

조 11년(1787) 포도대장(捕盜大將)이 되었는데 그해에 졸하였다.

묘소는 윤중동 선영 해좌(亥坐)에 정부인 전배 청송심씨와 계배 정부인 창령성씨가 삼위(三位)합장이다.

이택진(李宅鎭, 1731~1787)

자는 희능(熙能)이다. 영조 32년(1731) 진사시에 합격하고 영조 33년(1757) 식년문과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으로 환로에 나갔다. 영조 34년(1758) 사간원 정언과 이조좌랑을 지내고 영조 35년(1759) 이조정랑으로 승차하였다. 영조 39년(1763) 홍문관 부교리가 되고 다시 수찬으로 옮기었다가 중학교수가 되었으며 이어 사간원 헌납과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영조 40년(1764) 수찬으로 있다가 영조 41년(1765) 광주에 굶주린 백성을 위해 안집어사를 명받고 내려가 일을 잘 처리하고 돌아왔다. 영조 42년(1766) 가선대부로 승차하고 안주목사로 외직에 나갔다. 영조 47년(1771) 홍문관 교리가 되고 세자시강원 보덕과 필선을 거치고 동년 9월에 동지사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대사간이 되었다. 영조 48년(1772) 7월에 우부승지로서 왕의 출납을 행하였고 영조 49년(1773) 황해도 관찰사로 외직에 나갔다. 영조 51년(1775) 한성부좌윤과 승정원 도승지를 거쳐 동년 10월 예조참판이 되었다. 정조 원년(1776)에 정후겸(鄭厚謙)과 가까이 지난다는 이유로 삭탈관직(削奪官職)이 되었고 함경도 명천으로 귀양을 갔다.

묘소는 고동동 산 23-8번지에 초배 정부인 풍양조씨와 계배 광주정씨와 인좌(寅坐)합폄이다.

이진수(李晉秀, 1762~1796)

자는 대경(大卿)이고 호는 경수(景秀)이다. 정조 9년(1785) 음보로 헌릉(獻陵) 참봉으로 환로에 나갔고 정조 11년(1787) 선전관이 되었다가

정조 13년(1789) 무과에 급제하여 훈원원정이 되었다. 정조 17년(1793) 승정원 우승지로 승차하였으나 3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증직으로 가선대부 병조참판을 제수 받았다.

묘소는 사송동 산 66-1번지에 정부인 인천조씨 합폄이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위치하며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비두와 화강암의 비좌가 있다.

이방(李昉, 1767~미상)

자는 언승(彦昇)이다. 음보로 환로에 나가 사복시정을 지냈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 자좌(子坐)에 초배숙인 양천허씨와 계배숙인 강릉김씨 그리고 삼배숙인 반남박씨가 합폄이다.

이항(李沆, 1774~1825)

자는 여정(汝精)이다. 순조 6년(1806) 별시문과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간원 정언으로 환로에 나갔다. 동년 이조정랑으로 옮기고, 순조 8년(1808) 다시 사간원 정언이 되었는데 피혐(避嫌)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순조 12년(1812) 홍문관 교리와 수찬을 지내고 순조 13년(1813) 사간원 헌납이 되고 순조 14년(1814) 세자시강원 겸사서가 되었고 부수찬에 있다가 파직되었다. 순조 15년(1815) 사헌부 헌납이 되고 순조 18년(1818)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순조 20년(1820) 동지사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순조 21년(1821) 세자시강원 겸 필선이 되었다가 다시 사간원 사간으로 옮기었다가 동년 9월에 종묘번전의 독시보관으로 일을 잘 처리하여 자급이 승급되었다. 순조 24년(1824) 통정대부로 승차(陞差)하면서 형조참의가 되고 동년 관서사포사로 파견되어 일을 잘 처리하였고 순조 25년(1825)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외직에 나갔다가 순직하였다.

묘소는 상적동 산 24번지 간좌(艮坐)에 있으며, 배위 숙부인 동래정씨는 광주 쌍령리 유좌(酉坐)에 모셔져 있다.

 이 유(李游, 1781~1855)

자는 입중(立中)이다. 순조 14년(1814) 생원시에 합격하여 음보로 환로에 나가 여러 관직을 거치고 서흥(瑞興)부사를 지냈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숙부인 대구서씨와 자좌(子坐)합폄이다.

 이 우신(李宇信, 1793~1846)

자는 석여(錫汝)이다. 음보로 환로에 나가 무슨 벼슬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종직인지 증직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족보에는 정삼품 통정대부 이조참의를 제수 받았다.

묘소는 상적동 산 24번지 선영 신좌(申坐)에 숙부인 양천허씨와 합폄이다.

 이 정빈(李正彬, 1823~1891)

자는 정여(正汝)이다. 음보로 환로에 나가서 의금부에서 도사를 지냈는데 품계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 간좌(艮坐)에 공인 경주김씨와 합폄이다.

 이 민태(李敏泰, 1827~1914)

자는 내경(來卿)이다. 음보로 환로에 나가 고종 4년(1867) 통례원인의를 거쳐 의금부 도사와 현릉령을 지냈다. 고종 7년(1870) 영희전령으로 옮겼다가 태인현감으로 외직으로 나갔다. 고종 13년(1876) 선혜청의 세납을 지연시켰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이후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광무(光武) 6년(1902) 정삼품 비서원승(秘書院丞)을 지냈다.

묘소는 고등동 선영에 배위 숙인과 합편이다.

 이민규(李敏奎, 1830~1900)

자는 선도(善道)이다. 음보로 환로에 나가 고종 6년(1869) 군기시 주부를 거치고 고종 7년(1870) 훈련원 주부가 되었다. 고종 11년(1874) 도총부 도사가 되고 고종 12년(1875) 전라도수군우후가 되어 외직으로 나갔다. 이후에 내직으로 돌아와 선공감가감역을 지내다가 신병으로 체직을 청하여 쉬다가 고종 19년(1882) 오위장이 되었고, 고종 24년(1887) 사헌부 감찰이 되었다가 고종 27년(1890) 경모궁령(景慕宮令)과 경릉령(景陵令)을 역임한 후에 고종 30년(1893) 제천현감으로 외직으로 나갔고, 고종 31년(1894) 시흥현령과 적성현감을 지내고 환로를 마감하였다.

묘소는 상적동 산 24번지 선영 경좌(庚坐)에 초배 광주이씨와 계배 진주강씨 삼배 안동김씨와 합편이다.

 이원영(李源永, 1837~1861)

자는 여심(汝深)이다. 음조로 환로에 나가 여러 벼슬을 지냈는데 임오 군란 때에 명성황후께서 피난을 가실 때에 현감을 지낸 이원영의 집에서 머물고 가신 기록이 명성황후 일기에 적취리(笛吹里)에서 머무신 기록이 확인되었다. 명성황후의 오라버니인 민승호의 처남이기도 하다. 후에 종이품 가선대부 이조참판을 지냈다.

묘소는 상적동 산 24번지 임좌(壬坐)에 정부인 기계유씨와 합편이다.

 이위(李緯, 1839~1921)

자는 성여(盛汝)이고 호는 성재(盛齋)이다. 음보로 환로에 나가 선공감가감역을 거쳐 고종 17년(1880) 군자감 봉사와 직장과 주부를 거쳤다. 고종 19년(1882) 증광시에 문과 급제하였다. 이어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가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고 양근군수로 외직에 나갔다. 고종 20년(1883) 강릉부사를 거치고 고종 21년(1884) 정주목사를 지냈다. 고종 22년(1885) 승정원 동부승지와 공조참의를 지내고 고종 23년(1886) 참의내무부사 겸 우부승지로 수문사와 농무사를 겸하였다. 고종 24년(1887) 문과 초시이소 상시관을 거쳐 북청부사로 외직에 나갔다. 고종 25년(1888) 덕원부사 겸 원산향감리로 나갔고 고종 27년(1890) 이조참의로 갔다가 동년 9월에 병조참판으로 옮겼다. 동년 12월 공조참판으로 옮기면서 무과 초시상시관(初試上試官)을 겸하였고 고종 28년(1891) 한성부우윤이 되고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을 겸하였다. 동년 6월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고종 32년(1895) 강릉부사 겸 강릉 재판소장(裁判所長)으로 나갔다가 사직상소를 올려 면직되어 지내다가 융희(隆熙) 12년(1921) 3월 18일에 졸하였다.

묘소는 고등동 산 6번지에 초배 증정부인 강릉김씨와 계배 정부인 장흥고씨 그리고 삼배 정부인 연안이씨와 합폄이다.

이민고(李敏皐, 1849~미상)

자는 좌성(佐聖)이다. 고종 4년(1867) 무과(武科)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와 훈련원 관관을 지냈다. 고종 7년(1870) 내승(內乘)이 되었고, 이후 선전관을 거쳐 외직으로 나가 초산부사를 역임하고 내직으로 들어와 가선대부병조참판을 지냈다.

묘소는 운중동 선영에 정부인 해주오씨와 합폄이다.

이민각(李敏莊, 1895~1965)

공은 개화기의 육영 사업가이다. 한문을 수학하고 일본 압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육뿐이라는 신념으로 1930년 학술강습소를 개설하여 후학을 직접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대왕공립보통학교가 대

왕국민학교로 개교하고 왕남분교를 설치하자 강습소와 합병하여 지금의 왕남초등학교가 있게 한 공로가 인정되어 1956년 대한교육연합회장(大韓教育聯合會)으로부터 공로상(功勞賞)을 수상하였고 1963년 경기도지사(京畿道知事)의 감사상(感謝賞)을 받은 숨은 교육공로자이다.

묘소는 고등동 산 37-29번지 선영에 배위 경주김씨와 합편이다.

III. 결론

상기와 같이 덕수이씨 선대조의 묘역을 두루 조사하였으나 빈약한 자료와 때로는 족보에서조차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묘의 주소나 좌향이 정확하지 못한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여 본 결과는 여러 양반가의 능묘(陵墓)와 비교하여 볼 때 석물이나 비석의 규모는 거의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용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서 크기와 양식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비석이나 묘표는 4척(尺)의 규격에 맞추어져 있으며 상석의 전후에는 혼유석과 향로석이 갖추어져 있었고 문인석과 망주석 중 한가지의 석물이 거의 유사한 거리에 배치되었으며 규격도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였다. 모든 선현들의 묘역에 석물을 일일이 정리하지 않은 것은 거의 일치된 크기와 문양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분의 석물 이외에는 생략하였다. 동자석의 경우 문양이나 규모가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 주자가례에 준용하여 편찬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아들인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이 썼다는 《가례집람(家禮輯覽)》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통의 신도비는 운수 방부형의 비두에 만개한 꽃의 운문이 새겨진 가운데 전면 일문과 후면 월문이 새겨진 빼어난 모양이고 이경민의 신도비 또한 독특한 양상이라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은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이함의 향로석을 위시한 이래와 이회유의 향로석과 이함과 이심의 장명등도 돋보이는 석물 가운데 하나이다. 문인석과 동자석의 경우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문양이 제각기 다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묘역은 명당의 조건으로 좌향(坐向)중에 가장 좋다는 자좌(子坐)나 해좌(亥坐)는 몇 기(基)밖에 안 되는데도 덕수이씨가 이 지역에서 대대로 세거하면서 걸출한 문인현사와 탁월한 무재를 지니고 지략이 뛰어난 무장을 배출한 것으로 보아 굳이 묘를 잘 써서라는 말보다는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끈질기게 후손들에게 성인군자의 올바른 가치관인 충효덕례(忠孝德禮)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의 가르침을 치열하게 교육시킴으로써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충효덕례(忠孝德禮)의 성리사상(性理思想)의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명심(銘心)하게 하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을 스스로 실행(實行)하게 하면서 천리(天理)인 혈육(血肉)의 관계인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철저하게 지켜오면서 오례(五禮)의 질서(秩序)를 숭상(崇尚)하여 조상숭배(祖上崇拜)의 정신을 함양(涵養)시킨 결과라고 본다.

이와 같이 수백 년간을 성남시에 세거하며 조상의 행적을 기리고 양반가의 법통(法統)을 전해 오고 있는 문중의 선대 묘역을 살펴보고 부족한 자료의 상태라지만 좀 더 널리 조사하고 깊이 있고 정밀하게 연구하여 각각의 문중들이 지닌 장,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변천(變遷)하는 시대의 흐름을 초월(超越)하여 가꾸어온 과거(過去)의 토양(土壤) 위에 미래(未來)라는 성남의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및 資料

朝鮮王朝實錄, 太白山史庫 影印本

承政院日記

德水李氏世譜, 八刊 增補

德水李氏世譜, 九刊

城南人物誌, 2010년 7월 5일 성남문화원 발행

大旺마을지, 2004년 12월 30일 성남문화원 발행

城南市史, 1993년 10월 20일 성남시사편찬위원회

城南市史, 2004년 12월 1일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지역 특수교육 실태 연구

조남두

(신구대학교 교수)

◆ 차례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특수교육이론
2.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황

III. 성남시 특수교육 현황

1. 성남시 특수교육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어느 사회에 있거나 교육이란 그 사회의 정치 철학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신체적·정신적 정서와 사회적·교육적인 문제 및 이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은 장애자가 있든 없든 개개인에게 반드시 달성되고 성취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은 근래에 와서 보편적으로 정착된 이념

이지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민주주의 근본철학과 함께 지속되고 실천되어온 것이다. 즉 20세기에 들어와 휴머니즘의 사조는 존 듀이의 민주주의적 교육론을 계기로 하여 교육사조의 밑받침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개개인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이 교육사조에 있어서 심신장애아 또는 어떤 유형의 문제아동이란 모두 독립된 하나의 인간인 이상, 그들도 가능한 한 최대의 바람직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교육을 통한 재할 및 사회적 기여가 반드시 지향되고 달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발달의 이탈 정도가 있는 없는 제한된 능력 속에서도 생산적인 민주시민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생을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복지사회의 구현과 실천이야말로 바로 특수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정주영, 1981).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 학습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한 교육개혁(1995. 5. 31)이 선포된 이후 지금까지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신교육 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방적 교육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 복지사회 건설을 지표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한 나라의 교육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적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특수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김민희, 2009).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들의 개인 및 사회·경제적 생활자립을 길러 사회의 주류에 통합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등성의 실현을 위한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국가적 이상 아래 특수교육 행정가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교육기회 확대, 보다 양질의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박춘남, 2001).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완전 취학과 무상교육의 확대, 통합교육 기회 및 직업 진로교육의 실시 등 선진국이 지향하는 특수교육의 추세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큼 성장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분리주의에서 통합주의로 전환함과 동시에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있다(김원경, 1997).

이리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여 오늘날의 특수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은 특수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정서, 사회적 결손 및 이탈의 정도를 치료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특수아동의 배출에 대한 예방(prevention)과 교육교정(education remedial work)을 강조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와 정상화를 향한 교육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는 데 있다. 물론 많은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정상화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상기능을 위한 방향에 있어 목표는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정주영, 1981).

국가 정책의 체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특수교육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정책과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

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특수교육이론

특수교육은 임상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또는 응용과학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진단하여 진단결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교정 계획을 통해 바람직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 및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마치 특수교육자는 교육계에 있어서 일종의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특수교사의 자격이 매우 엄격하고, 적어도 일반교육에 있어서 3년 이상의 경험과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사람은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인접분야인 의학·생리학·사회학·정신분석학·교육학·사회사업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연구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특수아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 및 결손을 극복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경제적·사회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정주영, 1981).

1) 특수교육 관련 용어의 개념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법령으로는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그 중 특수아동 지원에 가장 영향을 미친 법령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있

다(김종현 외, 2007).

특수교육진흥법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박춘남, 2001).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특수학교교원”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특수교육법 제2조 제2호).

2)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5. 3. 24 [[시행일 2005. 9. 25]]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9.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97·12·13]

③ 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3호).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는 곳은 특수교육기관과 일반학급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가정 등으로 특수학교 교원이 순회하거나 파견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4호).

우리나라의 특수학급 설치는 1971년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최초로 교육 가능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이래, 1970년대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위 학급 부진아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974년에 전국적으로 210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이래 특수학급의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김관호, 2002).

4) 장애인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항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합교육의 이념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조 제2항에서 “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황

1) 기본 현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2011년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모두 82,665명이다. 이들은 특수학교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등의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특수학교 수는 2011년 현재 155개교이며, 설립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특수학교의 설립주체별 현황은 국립 5개교, 공립 59개교, 사립 91개교이며, 155개 특수학교의 3,842학급에 24,58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사 수는 7,054명이다. 이를 다시 장애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1〉 특수학교 설립별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립	5	166	946	334
공립	59	1,733	11,313	3,168
사립	91	1,943	12,321	3,552
계	155	3,842	24,580	7,05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실태조사서.

〈표 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수

(단위: 개교)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국립	1	1	1	1	1	5
공립	2	4	47	5	1	59
사립	9	13	52	12	5	91
계	12	18	100	18	7	155
경기도	0	3	23	1	1	2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표 2〉에 의하면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8개교, 정신지체학교 100개교, 지체장애학교 18개교, 정서장애학교가 7개교이다. 이 중에 경기도에는 청각장애 3개교, 정신지체 23개교, 지체장애 1개교, 정서장애 1개교 등 28개교가 설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반학교의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특수학급은 6,245개의 유·초·중·고에 8,415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수는 43,183명이며, 교사수는 8,658명이다. 그리고 운영형태별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3〉 일반학교의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현황

구 분	설치 학교수	설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254	287	924	289
초등학교	3,781	4,897	22,414	4,883
중학교	1,461	1,971	10,951	1,999
고등학교	747	1,258	8,878	1,482
전공과	2	2	16	5
계	6,245	8,415	43,183	8,65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표 4〉 운영형태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수

구분	전일제	시간제	계
계	13,679	8,415	22,094
경기도	2,549	2,114	4,66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통계

〈표 4〉에 의하면 전일제 13,679학급, 시간제 8,415학급이다. 이중 경기도에는 전일제 2,549학급, 시간제 2,114학급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수교육지원센터 수는 187개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 5〉와 같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은 〈표 5〉에 의하면 전담인력이 709명이고, 보조원이 56명이다. 전담인력 709명 중에서 정규직은 33.4%인 237명이고 나머지 472명은 계약직이다. 즉 운영 인력의 3분의 1만이 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에 25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센터 수	전담 인력 배치수										연간 지원 예산
		특수교사		재활복지교사		행정직		계			보조 원수	
		정규	강사	정규	강사	정규	계약	정규	계약	계		
계	187	149	412	55	55	8	13	237	472	709	56	78,963
경기	25	20	31	18	6		3	38	37	75	2	6,10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학생 현황

2011년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장애영아(0~2세)	195	0	0	161	356
유치원(3~5세)	783	924	1,660	0	3,367
초등학교(6~11세)	7,115	22,414	5,595	0	35,124
중학교(12~14세)	6,079	10,951	3,478	0	20,508
고등학교(15~17세)	7,553	8,878	4,008	0	20,439
전공과	2,855	16	0	0	2,871
계	24,580	43,183	14,741	161	82,66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표 6〉과 같이 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별로 구분하면 특수학교

의 학생이 24,580명으로 29.7%이며, 일반학교의 학생이 57,924명으로 70.1%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학생이 161명으로 0.2%이다. 이런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은 특수학교의 학생보다 일반학교의 학생이 2.36배 많으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에 비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나타내어 준다.

또한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57,924명 중에서 74.6%인 43,183명은 특수학급에, 25.4%인 14,741명은 <표 7>과 같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표 7〉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학급 배치현황

(단위 :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1,119	1,481	1,660
초등학교	2,637	5,349	5,595
중학교	1,557	3,201	3,478
고등학교	1,285	3,648	4,008
계	6,598	13,679	14,74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통계

그리고 2011년 현재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적을 두고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표 8>과 같이 7,090명이다.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을 받고 있는 장소별로 구분하면 가정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1,217명으로 17.2%,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1,869명으로 26.4%, 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41명으로 0.6%,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3,963명으로 55.9%이며,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 752명(10.6%), 초등학교 3,128명(44.1%), 중학교 1,823명(25.7%), 고등학교 1,387명(19.6%)이다. 그리고 2011년 현재 병원

〈표 8〉 순회교육 운영 현황

구분	학 생 수										학 급 수	교 사 수
	기 관					학 교 과 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소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391	603	3	0	997	68	352	259	318	997	228	240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521	1,122	29	291	1,963	23	1,052	538	350	1,963	426	520
특수교육지원 센터	305	144	9	3,672	4,130	661	1,724	1,026	719	4,130	0	676
계	1,217	1,869	41	3,963	7,090	752	3,128	1,823	1,387	7,090	654	1,436

주 1)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포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학교는 32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월 평균 1,190명이다. 이런 학생 현황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4분의 1 이상이 일반학급에서만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8.6%가 가정, 시설 및 병원 등에서 순회 교육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어 준다.

한편 2011년 2월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5,532명 중에서 45.3%인 2,504명이 진학을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3) 교원 현황

2011년 현재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표 9〉와 같이 특수학교 6,734명, 특수학급 8,658명으로 총 15,392명이다. 이들 중에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특수학교의 경우 96.3%이고, 특수학급의 경우 95.3%로 전체적으로는 95.7%이다.

〈표 9〉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사 자격 소지 비율

구 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전체	자격증 소지	미 소 지	자격증 소지 비율	전체	자격증 소지	미 소 지	자격증 소지 비율	전체	자격증 소지	미 소 지	자격증 소지 비율(%)
계	6,734	6,486	248	96.3	8,658	8,250	408	95.3	15,392	14,736	656	95.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은 8,936명으로 특수학교에 2,294명, 특수학급에 5,930명, 일반학급에 712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은 시·도교육청의 장학관 15명과 장학사 35명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사 201명으로 모두 251명이다. 이들 중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수는 장학관의 경우 3명으로 6.7%이나 장학사의 경우에는 158명으로 66.9%이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 전문직의 낮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 비율은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구조의 열악한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4) 전망 및 과제

2011년 현재 전국 155개 특수학교와 8,415개 특수학급 등에서 82,665명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15,392명의 교원들로부터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29.7%인 24,580명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70.1%인 57,924명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57,924명 중에서 74.6%인 43,183명은 시간제나 전일제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25.4%인 14,741명은 일반학급에서만 교육을 받고 있다. 일

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17.8%를 차지한다. 이러한 특수교육 현황은 전 세계적 공통적 동향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통합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서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교육의 강화로 전망되는 특수교육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첫째, 특수교육은 학교 급별 특수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완전 취학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간 격차를 줄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은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통합학급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이후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비의 산출준거와 산출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III. 성남시 특수교육 현황

1. 성남시 특수교육 현황

2012년 3월 현재 성남의 인구수는 978,796명이며, 등록 장애인은

36,436명으로 구체적인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의하면 지체장애인이 18,944명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 시각장애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0> 장애인 등록현황

2012년 3월 현재(단위: 명)

구 분	지 체	시 각	청 각	언 어	정 신 지 체	뇌 병 변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변 형	장 루 요 루	간 질	합 계
성남시	18,944	3,826	3,213	245	2,316	4,118	341	1,325	1,121	220	238	156	39	198	136	36,436

자료: 성남시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팀

1) 특수학교 현황

성남시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2개의 특수학교와 114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2개의 특수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남혜은학교

먼저 학급편제 및 학생수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학급편제 및 학생수

과정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총계
		학년	0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순회	계	1	2	
학급수		1	1	1	1	1	2	2	8	3	3	3	9	3	3	3	2	11	4	4	8	37
학생수		2	3	4	5	6	9	11	38	18	19	18	55	19	21	18	8	66	25	35	60	221

<표 11>에 의하면 유치원은 1개 학급에 2명이며, 초등학교는 8개 학급

에 38명, 중학교는 9개 학급에 55명, 고등학교는 11개 학급에 66명, 전공과는 8개 학급에 60명 등 37개 학급에 221명이 재학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장애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장애 유형별 현황

구분 과정	학생수	지적 장애	중복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유치원	2	2	2						
초등학교	38	38	5	2	2			7	
중학교	55	55	8	4	1	1		6	
고등학교	66	66	3	3	6		1	2	
전공과	60	60	2		2			4	
계	221	221	20	9	11	1	1	19	

<표 12>에서와 같이 221명의 지적장애 학생을 중복장애로 세분화하면 뇌병변장애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19명, 지체장애 11명의 순서로 밝혀졌다.

한편 졸업생들의 진로현황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졸업생 진로 현황(2010학년도 고등부, 전공과)

고등부		시설	진학 (전공과)	계	전공과		복지관	취업	보호 시설	가사	계
남	14	1	13	14	남	14	2	4	2	6	14
여	10	2	8	10	여	5			1	4	5
계	24	3	21	24	계	19	2	4	3	10	19

〈표 13〉에 의하면 고등부 24명 중 시설에 3명, 전공과 진학 21명이며, 전공과 졸업생 19명 중 복지관 2명, 취업 4명, 보호시설 3명, 가사 1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원 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유치	초등	중등	보건	영양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총계
인원	1	1	1	12	60	1	1	2	11	22	112

(2) 성은학교

먼저 학급편제 및 학생수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학급편제 및 학생수

과정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총계
학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1	2	계	
학급수	2	1	1	1	1	2	8	3	2	2	7	3	2	2	7	4	4	8	30
학생수	9	6	6	6	7	14	48	22	13	13	48	18	13	13	44	28	28	56	196

〈표 15〉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8개 학급에 48명, 중학교는 7개 학급에 48명, 고등학교는 7개 학급에 44명, 전공과는 8개 학급에 56명 등 30개 학급에 196명이 재학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장애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에서와 같이 195명의 장애학생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신지체 장애가 99명으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55명, 지체장애 34명의 순서로 밝혀졌다.

한편 졸업생들의 진로현황을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6〉 장애 유형별 현황

과정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장애	정서행 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 통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기타	계
초등학교	0	0	18	7	2	18	1	0	0	0	0	46
중학교	0	0	21	11	1	14	0	0	0	1	0	48
고등학교	0	0	29	5	0	11	0	0	0	0	0	45
전공과	0	1	31	11	0	12	0	0	0	1	0	56
계	0	1	99	34	3	55	1	0	0	2	0	195
백분율(%)	0.00	0.51	50.77	17.44	1.54	28.21	0.51	0.00	0.00	1.26	0.00	100.00

〈표 17〉 졸업생 수 및 진로현황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계	14	18	26	18	76
진로현황	취업	복지관	가사	기타	계
계	0	7	1	11	19

〈표 17〉에 의하면 76명의 졸업생 중 복지관 7명, 가사 1명, 기타 1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원 현황은 〈표 18〉과 같다.

〈표 18〉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기간제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	합계
인원	1	1	13	24	26	13	9	87

2) 특수학급 현황

성남시 관내 특수학급(순회학급)의 운영현황은 〈표 19〉와 같다.

〈표 19〉 성남 관내 특수학급(순회학급) 현황

2011. 3. 1 현재

과 정	학교수	학급수	
유치원	3	특수	4
초등학교	33	특수	53
		순회	5
중학교	20	특수	28
		순회	3
고등학교	14	특수	20
		순회	1

〈표 19〉에 의하면 3개의 유치원에 특수학급 4개 학급, 33개의 초등학교에 53개의 특수학급과 5개의 순회학급, 20개의 중학교에 28개의 특수학급과 3개의 순회학급, 14개의 고등학교에 20개의 특수학급과 1개의 순회 학급 등 70개의 교육기관에서 105개의 특수학급과 9개의 순회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3) 특수보육시설 현황

〈표 20〉 특수보육시설 현황

2012. 3. 31. 현재

구분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시간 연장형	휴일 보육	24 시간	0세아 전용	총계
계	2	1	20	0	0	65	2	1	2	93

〈표 20〉에 의하면 특수보육시설은 총 93개이며, 시간연장형이 65개로 가장 많고, 장애아 통합이 20개로 2개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 장애인시설 현황

성남시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35개(수정구 5개, 중원구 19개, 분당구 11개)가 있으며, 이중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망재활원

소망재활원 이용 장애인은 식사하기, 세수하기, 옷 입기, 목욕하기 등 신변처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요보호대상자들이다. 이용 장애인 현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이용 장애인 현황(성별 · 연령 · 장애유형별)

2011년 1월 현재

장애유형							연령별		성별		
계	지체		지적		뇌병변		발달	4~9세	2	남	여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0~19세	17		
104	32	1	57	7	6	1		20~29세	44	49	55
	33		64		6	1		30~39세	32		
								40세이상	9		

〈표 21〉에 의하면 교육대상인 4~9세가 2명, 10~19세가 17명으로 나머지는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현황은 <표 22>와 같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최중증 외상장애인 집중케어,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지원,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영양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다.

〈표 22〉 직원현황

2011년 1월 현재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	생활재활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전원	위생원	조리원	사무원	해피빌	기타	계
1	1	1	43	1	1	1	1	1	1	2	1	1	2	58

(2) 분당 우리 교회 한마음 복지관

성남시립 장애인단 한마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집정원은 만3세반 6명, 만4세반 12명, 만5세반 12명으로 총 30명이다. 이곳에서는 중증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 화교육을 통하여 장애정도를 최소화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마음 복지관에서는 치료적 접근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 및 재활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치료교육사업,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과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성 향상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업,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증대를 위해 직업재활에 필요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등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사업, 지역복지사업, 주간보호센터, 레포츠센터, 한마음도서관, 심리상담센터, 정보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5) 기타 현황

성남교육지원청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목적은 ① 성남지역 순회교육 대상학생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

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확대 ② 경기도 성남 교육지원청의 관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③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④ 순회교육 및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확대 등이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내용으로 상담지원, 치료지원, 장애공익지원/특수교육보조원, 교재교구 대여, 보조공학기기 대여, 통학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먼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정책의 부재와 임시방편의 땀질식 정책의 추진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학교급간 연계교육체제가 미흡하고 기능이 단순하다. 넷째, 특수교육 전공교사와 지원인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여섯째, 통합교육 환경 열악 및 실천능력이 부족하다. 일곱째, 교육과정의 직업교육체제가 부족하다. 여덟째, 기관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다. 아홉째, 조기교육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다. 열 번째,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진단평가 및 성취검사 도구가 부족하다. 열한 번째,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미흡하다. 열두 번째, 특수교육 전문행정 지원 서비스 체제가 미흡하다(박춘남, 2001).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시설 및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시설, 설비 등이 부족하다. 또한 관공서, 학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자신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하여 생각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이 부족하다. 장애 아동들에게 가르쳐야 할 행동은 특정한 직업기술, 생산력, 인간관계 기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학교교육과정 안에서만 실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시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성남지역은 이러한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이 활발하지 못한 것 같다.

넷째,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모든 교육은 같은 맥락에서 출발되고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겠지만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에 비해 또 다른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박춘남, 2001).

2) 개선방안

상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특수학교의 수를 늘리고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순회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특수학교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2개의 특수학교로는 부족하므로 공립 특수학교의 증설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민과 함께하는 특수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특수교육시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재활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직업기술 교육이나 인간관계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취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보센터가 특수교육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관심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중화될 때 전 국민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이다(박춘남, 2001).

I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정책과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특수교육 관련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수교육의 기본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전망 및 과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특수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특수학교 현황으로는 성남혜은학교와 성은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생수, 장애유형별 현황, 졸업생의 진로현황, 교직원 현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 밖에 특수학급(순회학급)현황, 특수보육시설현황, 장애자시설현황, 기타 특수교육 관련 실태 분석을 통해 성남시 지역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은 학교 급별 특수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완전 취학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은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통합학급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이후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비의 산출준거와 산출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성남지역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확대 못지않게 특수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수교육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한 특수교육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부모,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 특수학교 간의 유기적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될 때 성남시의 특수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개혁위원회(1995. 5. 31). 제1차 교육개혁 방안.

교육과학기술부(2011. 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 통계자료 SM2011-14.

김관호(2002). 장애인 통합교육 발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문정(2008). 장애인 통합교육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희(2009). 장애인 특수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현 외(2007). 특수아동의 이해와 지도. 서울: 공동체.
- 박춘남(2001). 울산광역시 특수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소망재활원(2011).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곳. 홍보자료.
- 양희택 외(2011). 장애인 복지 이해와 실천. 서울: 정민사.
- 유아교육진흥법(2004.1.29).
- 정무성 외(2012). 장애인복지론. 서울: 정민사.
- 정주영(1997). 아동복지편람.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정주영(1981). 장애인복지편람.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황병건(2006). 교육소의 장애인의 수확실태 및 지원방안.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성남아리랑’의 가치와 작품성에 관한 연구

권 일

(연구위원 · 성남시립합창단 공연설계)

◆ 차례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아리랑의 개념과 기록
2. 아리랑의 근원 설화

III. 성남아리랑 작품 연구

1. 성남아리랑 이란
2. 성남아리랑 작품 분석
3. 성남아리랑의 구성과 내용

IV. 성남아리랑의 가치와 발전 방안

1. 성남아리랑의 가치
2. 성남아리랑의 발전방향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리랑’은 한민족의 소리이다. 한국 사람이면, 언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그 소리를 할 줄 안다. 아득한 옛날부터 농부에게는 권농가가 되었고, 결혼한 여인들은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이 노래로 달랬으며, 마을 잔치의 시작과 끝에 빠지지 않고 이 노래는 등장한다. 아픔과 기쁨, 갈등과 화해, 어둠과 밝음이 섰거 치는 ‘삶 살이’ 속에서 부닥쳐지는 현실과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삶의 소리, 열린 소리가 바로 ‘아리랑’이다. 지구촌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화해의 움직임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통일한국의 국가(國歌)’로 첫 번째로 지목되는 노래가 또한 ‘아리랑’이다.¹⁾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의 기술 발전에서 비롯된 가치 혼돈과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오는 정체성의 급격한 재정립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인류적 보편 현상으로서 21세기 문화의 특징의 한 단면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한 민족과 국가, 사회와 개인의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고유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남아리랑’은 2008년 12월 한춘섭(시조시인, 성남문화원장), 권일(성남시립합창단 상임단원, 공연설계), 이선택(성남시립합창단 전임작곡가) 등 세 사람이 성남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창작되어진 국내 최초의 다큐음악극²⁾으로, 성남의 역사와 문화를 시대별, 계절별로 전 4악장으로 구성하여 성남의 과거 역사와 문화의 상징을 다큐

1) 한국일보 2000, 6월 19일자 신문자료.

2) 다큐음악극이란 ; 다큐멘터리와 음악, 그리고 드라마가 하나로 이루어진 공연장르. 2009년 성남시립합창단이 최초로 성남아리랑을 시작으로 발표함.

멘터리와 합창음악, 그리고 드라마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성남아리랑’은 성남의 고유한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성’과 성남 근·현대를 관통한 질곡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보편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시조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음악이 함께 구성되는 작품의 ‘다양성’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뮤지컬, 연극, 클래식공연, 축제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 역사의 소리이며, 성남 역사의 소리이기도 한 ‘성남아리랑’에 대한 예술적 가치와 작품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성을 연구는 이루어져야 한다. 성남 문화를 대표할 만한 작품으로 서의 가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을 요약해 보면 첫째, 성남의 문화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성남아리랑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둘째, 시대적 상황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으며, 셋째, 그 동안 발표했던 ‘성남아리랑’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선 아리랑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 어원과 뿌리를 알아본 뒤, 성남아리랑의 구성과 내용을 1악장 ‘빛과 소리와 의 만남’, 2악장 생명의 젖줄 ‘탄천’,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의 노랫말과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남아리랑의 가치와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다양한 공연 장르로의 개발, 역사관련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의 개발, 그리고 성남의 대표 공연예술 작품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리랑'의 개념과 기록

1) '아리랑'의 개념

① 아리랑 정의

'××아리랑'이라고 하여 뒤에 '아리랑'을 붙인 다른 아리랑과 구별하기 위해 《본조(本調)아리랑》이라고도 한다. 어느 때부터 불리기 시작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대로부터 조금씩 첨가·개조되면서 오늘날의 노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남녀노소 사이에서 가장 널리 애창되는 이 노래의 기본 장단은 세마치 장단으로 우리의 정서에 알맞고, 내용도 한말(韓末)에서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이 겨레의 비분을 표백(表白)한 것으로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별조(別調) 아리랑이 불리며, 장단과 사설(辭說)도 매우 다양하다.

즉, 《본조 아리랑》, 《신 아리랑》은 현재의 곡조와 같으나, 이 밖에도 《밀양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긴 아리랑》, 《별조 아리랑》, 《아리랑 세상》 등 종류가 매우 많고, 그 유래설(由來說) 또한 갖가지이다.³⁾

② 아리랑의 기원

아리랑은 구비시가⁴⁾란 점과 민중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점이 그 근원을 캐는 데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 보니, 화자의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은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을 것이고, 또

3) 두산 세계대백과 Encyber.

4) 구비시가(口碑詩歌)란, 구전되는 노래를 뜻한다.

전승자의 대부분이 글을 모르는 민중들이어서 기록으로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아리랑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너무도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 있다. 아리랑의 근원을 밝힌 지금까지의 제학설을 보면 아랑설, 알영설, 아이롱설(我耳聾設), 아이롱설(啞而聾設), 아리낭설, 아랑위설, 아미일영설, 낙랑설, 알리오설, 아리설, 구음설(口音設 : 후렴설), 아린설, 알설, 아리설, 아라리설, 메아리설 기타 등등 20여 종에 이른다.⁵⁾ 그런데 아직도 아리랑의 근원문제를 풀고자 하는 글들이 더러 나오는 것을 보면 아리랑의 근원을 밝히는 작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아리랑의 근원을 밝히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본 연구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일 뿐더러 본 논문의 성격과는 다른 문제라 인식되어,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우선 자료나 기록에 남아 있는 아리랑의 뿌리를 살펴 본 후,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기원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아랑설(阿娘說) : 옛날 밀양 사또의 딸 아랑이 통인(通引)의 요구에 항거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일을 애도한 데서 비롯하였다.

② 알영설(閼英說) :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비알영을 찬미하여 '알영 알영' 하고 노래 부른 것이 '아리랑 아리랑' 으로 변하였다.

③ 아이롱설(我耳聾說) :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 백성들이 원납금(願納金) 성화에 못건더 "단원아이롱 불문원납성(但願我耳聾 不聞願納聲 : 원하노니 내 귀나 어두워져라, 원납소리 듣기도 싫구나" 하고

5) 임동권, '아리랑의 기원에 대하여' 『韓國 民俗學 제1집』, (서울: 민속학회, 서울 1969)의 논문을 박상훈, 「각 지방 아리랑의 음악적 특징 및 비교·분석 연구」(서울: 중앙대학교 2001 pp.5~6에서 재인용함.)

부른 ‘아이룽(我耳聾)’이 ‘아리랑’으로 와전되었다.

④ 아리랑설(我離娘說): 역시 흥선대원군 시절 경복궁 공사에 부역 온 인부들이 부모처자가 있는 고향 생각을 하며 ‘아리랑(我離娘) 아리랑’ 노래한 것이 발단이었다는 등의 유래가 있다.

이 밖에도 다른 발생설이 전하나 오히려 구음(口音)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유래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울 듯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 노래는 외국에도 널리 소개되어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⁶⁾

2) 아리랑에 대한 기록

아리랑은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는 서양인의 기록이 앞서고 있다. 1988년 ‘제1회 아리랑제’에서 나운영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1828년에 ‘아리랑’이 악보와 함께 미국에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지금의 ‘경기도 아리랑(본조아리랑)’과 거의 같다는 사실이다.”⁷⁾ 외국인에 의해 채보된 최초의 악보라는 것이다.

1985년 조선일보 10월 30일자 신문에는 그 당시 “가장 오래된 아리랑 樂譜 발견”이란 타이틀로 H. B. 헬버트란 선교사의 ‘아리랑’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H. B. 헬버트는 가사 소개와 채보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노래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중략)… 나 개인적인 견

6) 이보형, 「아리랑 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韓國民謠學』 제5집, 한국 민요학회, 1997. 11.

7) 김연갑, 「아리랑 그 맛, 멋 그리고…」(서울 집문당, 1988). pp.68~69

해로는 이 노래는 3520여 일간 지속되어 왔으며, 1883년에 대중적 애호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중략)… 나는 어느 누구도 그 이상 정확한 숫자를 밝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가락은 즉흥곡의 명수인 조선인에 의해 수많은 즉흥곡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렴은 변하지 않고 쓰인다.”

그는 군데군데 우리 글과 한자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아리랑’이란 말이 낭군을 사랑한다는 한자어 ‘애랑(愛郎)’의 음역이란 설과, ‘아르’가 러시아를 지칭한다는 설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아리랑’에 대한 외국의 기록은 일본 노부오의 「조선반도」(1901)에도 있고, 역시 선교사 알렌이 1908년에 낸 「Things Koreans」에도 있다. 그러나, 헐버트의 기록에는 어느 모로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우리들의 기록으로는 황현의 기록이 최초이다. 1900년에 펴낸 「매천야록」에 있는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⁸⁾

“매일 밤 등불을 켜고는 광대며 놀이패를 불러다가 새로운 소리의 요염한 가락을 울리게 하였으니 이를 일러서 ‘아리랑 타령’이라 하였거니와 타령이란 것은 연곡의 속칭이다.”

이 기록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 이 시기에는 궁중에서도 ‘아리랑’이 불려졌고,
- ‘타령’으로 인식되었고
- ‘아리랑’이라는 현재의 명칭이 이미 정착되었고 한자 표현을 “阿里”으로 했으며,
- 아리랑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⁹⁾

8) 박상훈, 「각 지방 아리랑의 음악적 특징 및 비교·분석 연구」(서울: 중앙대학교 2001)

9) 이창식, 「아리랑, 아리랑학, 아리랑 콘텐츠」, 『한국민요학』 제21집, 2007. 1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리랑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기록에 의해 아리랑의 진가를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삶의 노래로서의 아리랑’이 아닌 문헌 속의 ‘아리랑’을 아리랑의 전부로 보는 오류를 범치 않기 위해 그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근원설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아리랑’의 근원 설화

① 정선아라리

“산과 산을 이어 빨래 줄을 걸 만하고 해가 하늘 중천에 있을 때만 밝은 동네.”

모두 정선이 깊은 골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세가 <아리랑>을 키워내는 데는 적지였던 것이다. ‘<아리랑>을 피압박의 소산’이라고 하는 이의 편에서 본다면 딱 들어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가장 척박한 오지 중의 오지가 정선 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800여 수의 노랫말을 가진 ‘아리랑 천지’가 된 것이다.

노랫말이 많은 만큼 여기에 얹힌 사연도 많다. 근원설화적인 고려 일곱 유신에 얹힌 얘기 말고도 조흔의 폐습에서 오는 여인의 한이 서린 ‘물레방아 도는 내력’이라든가 이웃 삼척으로 소금 장사 나간 낭군이 오지 않아 기다리던 여인네의 애절한 ‘소금장사 사연’ 등 수없이 많다.

이러한 여러 사연 중에서도 정선 아리랑을 그야말로 아리랑답게 하는 얘기가 바로 ‘하우라지 처녀의 이야기’다.¹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0) 김연갑, 「우리에게 아리랑이란 무엇인가?—아리랑학 개론」(서울 집문당, 1988)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 주소
 아우라지 지장구야 배 좀 건네 주게
 짜리꼴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② 밀양아리랑

채색으로 단청된 아랑각은
 아랑의 유혼이 깃들여 있네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이 아랑각을 빛추네

조선조 명종 때, 밀양에 부사가 부임 첫날을 넘기지 못하는 변고가 생겼다. 조정에서는 아무도 부임하지 않으려는 밀양에 담이 크고 용기 있는 자를 지원 받아 보내게 되었다.

장안에 가장 장대한 기골로 소문난 사람이 지원하여 부임 첫날을 맞게 되었다. 드디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바람이 불어치며 산발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부사는 큰 칼을 빼들고 귀신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귀신은 “모든 부사들이 내 모습에 질려 죽었는데 오늘에야 제 한을 풀어 줄 사람을 만나 기쁩니다. 저는 이 밀양부의 통인에게 억울하게 정절과 목숨을 빼기고 저쪽 대숲에 묻혀 있으니, 그 통인을 잡아 제 한을 풀어 주고 나를 거둬 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일 그 통인의 머리 위에 흰 나비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밀양에 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처녀 귀신과 약속한 대로 통인을 잡아 처단하고 처녀의 묘까지 만들어 주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밀양 주민들은 아랑각을 지어 그 처녀의 정절을 기리고 소원을 기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밀양아리

랑>이 되었다는 것이다.¹¹⁾

③ 진도아리랑

문경새재는 왜 고갯가

구부야 구부구부 눈물이로고나

이제 진도아리랑의 사연을 알아보자. 진도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입술이 짹짹 달라붙고 휘휘 갱기는 소리"가 진도아리랑이라고 했다. 그러니 사연 또한 끈끈하지 않을 리 없다.

진도의 한 당골에 세습 박수가 되는 것을 비판한 총각이 있었다. 총각은 사랑하는 처녀와 혼약을 남긴 채 진도에서 도망쳐 버린다. 진도를 도망친 총각은 상민이었지만 덩치 좋고 흰칠하게 생긴 탓에 양반집에서 머슴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주인집에는 예쁜 처녀가 있었다. 이 처녀는 집안에서 남정네를 못 보다 머슴의 사내다움을 보고 그만 반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었고, 그런 사랑 놀음은 이내 부모들에게 들통이 나서 사단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총각은 다시 쫓겨나게 되었고 여기에 처녀도 보따리를 싣다. 둘은 문경고개를 넘어 다시 진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와 보니 옛날의 처녀는 턱을 고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들은 양가집 머느리를 맞게 되었다고 야단이었다. 이 통에 기다렸던 처녀는 눈물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노래가 진도아리랑이라고 했다. 이런 연유 탓인지는 몰라도 진도아리랑은 여성이 닦하는 노래 말이 많다. 그리고 노래의 맛도 여자가 불러야 제 맛이 난다.

11) 김연갑, 「우리에게 아리랑이란 무엇인가?—아리랑학 개론」(서울 집문당, 1988)

그런데 진도의 아리랑꾼인 박병훈 씨는 남자가 부를 때는 장작 패는 듯한 굵은 목소리로 불러야 제 맞이고, 그 맛은 추사의 글씨체를 연상하면 된다고 했다. 이렇게 아리랑은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다함’의 소망이고, 만나지 못함에 대한 ‘만남’의 소망이며, 맺힌 것에 대한 ‘풀림’의 소망으로서, 소망의 삶의 궤적인 것이다.

‘아리랑 고개’란 또 무슨 뜻일까. 아리랑엔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가시는 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온 겨레가 뜻도 모른 채 즐거우나 슬플 때 함께 부르곤 하였으니, 여기엔 필시 신비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원을 바라는 겨레말의 꽃일 것이고, 함께 불러 한 마음이 되는 희망과 축복의 말일 것이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것에서 신비와 영원을 발견한다. 속을 다 드러낸 것에선 한계가 있을 뿐이다.

아리랑은 한과 서러움과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흥과 살맛이 나게 하고, 마음을 환희와 광명으로 차오르게 만들며, 우리를 영원의 하늘과 닿게 해주는 신비의 기원어(祈願語)가 아닐까 한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에 의해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영원의 말, 기원의 말, 신비의 말이다. 그런 말로써 겨레의 노래가 된 것이다.¹²⁾

III. ‘성남아리랑’ 작품 연구

1. ‘성남아리랑’ 이란

성남시립합창단은 성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네 가지 테마로

12) 조용호, 『아리랑의 비밀화원』, 집문당, 2007.

구성, 다큐멘터리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국내 최초 명품 다큐 음악 공연 '2009 성남아리랑' (작시 :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 시조시인/ 작곡 : 이선택) 1악장 '빛과 소리의 만남' 이 그 해 4월 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공연되었다. 성남아리랑은 이천 년 성남의 역사와 문화를,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시조시인, 1941~)이, 심혈을 기울여 4악장으로 작시해, 성남의 아름답고 찬란했던 역사를 음악 다큐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성남아리랑' 은 1악장 '빛과 소리의 만남',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4악장 축복의 땅 '성남'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2009년 4월 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의 첫 무대에 처음 소개된 1악장 '빛과 소리와 만남' 에선, 백제의 건국 설화에 나오는 온조대왕의 어머니인 소서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성남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공연으로, 성남아리랑을 작시한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의 시 낭송, 그리고 고수와 소리꾼이 소서노와 그녀의 아들 온조대왕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며, 성남시립합창단이 웅장한 '성남아리랑' 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성남역사의 빛을 독창과 합창으로 연주하게 된 무대였다.

2악장은 2010년 10월 2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생명의 젓줄 '탄천' 을 발표하게 되었다. 1악장과 비슷한 구성으로 시 낭송, 그리고 성남의 고려시대를 상징하는 탄천을 배경으로 하는 다큐영상, 역사적 인물인 이집과 이지직의 나라 사랑과 효 이야기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악장의 흐름을 이어주며, 공연내용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2012년 7월 26일, '성남시립합창단 송성철 4대 상임지휘자 취임 기념 음악회' 의 첫 무대를 성남아리랑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을 발표하였다. 남한산성은 성남시의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문화

유산으로, 고대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의 융광로라 할 수 있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안녕을 보장하는 ‘국가 안전 보장제’로 주목 받았던, 역사의 현장이었다.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은 성남의 조선시대 역사를 배경으로 시작하는, ‘조선 산하’, ‘삼학사의 합창소리’ 등과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성남의 모습을 표현한 ‘남한산에 오르다’, ‘성남이여’ 총 4곡을 성남시야외공연장(분당구소재)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4악장은 2013년 10월, 성남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1악장, 2악장, 3악장과 함께 ‘성남아리랑’ 전 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2009년에 시작된 ‘성남아리랑 프로젝트’의 대장정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성남의 역사를 백제, 고려, 조선, 현재와 미래로 시대별, 계절별로 악장을 구성하여 성남의 모든 역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와 음악, 드라마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2. ‘성남아리랑’ 작품 분석

성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의 공연작품인 ‘성남아리랑’은 한춘섭(시조시인, 성남문화원장)의 작사와, 이선택(성남시립합창단 전임작곡가) 그리고 권일(성남시립합창단 상임단원, 공연설계)의 기획과 연출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2009년 4월 9일 ‘빛과 소리와 만남’ 시작으로 2010년 10월 29일, 2악장 생명의 젖줄 ‘탄천’, 2012년 7월 26일,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이 공연된 작품이다.

“작품분석은 한춘섭의 작사와 다큐멘터리 대본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언어적 구상(Verbalimage)에서 시작하여 필요에 따른 구상의 구체화(found image)를 거쳐 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created image-sketch)하고 최종적으로 현실화(concrete object-amodel)”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

안 각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작업을 완성해 간다.¹³⁾

먼저 이 작품을 공연화 한 배경을 정리하고 구체화 과정을 통해 작품에 관한 분석에 들어 가겠다.

1) '성남아리랑' 제 1악장 '빛과 소리와의 만남' 배경 및 작품해설

'성남아리랑'은 성남의 백제-고려-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미래의 희망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1) 1악장 '빛과 소리와의 만남' 배경

지금으로부터 이천년 전 한강 남쪽에 '온조백제'를 건국한 온조대왕과 그의 어머니 소서노는 "조선 역사상 유일한 건국 여왕일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이"라고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말했으며, 이로써 비류, 온조 두 아들을 데리고 남하하게 만든 고주몽의 고구려 숨결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중국 환인(桓因)의 '오녀산성'과 '대방고지' 그리고, '비류백제의 땅' '미추홀'과 '한수' 남쪽 '하남위례성' 고읍(古邑)을 살필수록 웅당, 이천년 전 성남 역사의 상징, 옛 땅 '탄천-남한산성' 물과 흙과 바람과 역사 이야기는 생생하게 '우리 혼' 이고, 거룩한 뿌리임을 알게 대입시켰다.

온조대왕의 어머니 '소서노'는 《삼국사기》《삼국유사》에 행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그녀의 삶이 짐작되며, 치밀한 전략으로 고구려 건국의 고주몽을 도왔으나, 다만, 그와의 숙명적 만남과 이별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수천 명 백성들을 거느린 채 남하(南下)해 '비류백제'를 미추홀(現 인천)에, '온조 백제'를 위례성(現 하남)에 건국하게 되기까지 위대한 공헌을 남긴 여걸(女傑)이 아닐 수 없고 우리 성남시 옛 역사의 진실

13) 박미희 「뮤지컬 〈피아노의 삶인〉의 무대의상 연구」-주인공 오세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1993. p31

된 이야기가 밝혀짐으로써 영원한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게 될 메시지다.¹⁴⁾

본 연구자가 ‘빛과 소리와 의 만남’에서 소서노와 온조대왕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초기 기획에서 한춘섭(시조시인, 성남문화원장 1941~)을 만나 성남아리랑 프로젝트에 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자리에서였다. 당시 ‘주몽’¹⁵⁾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주몽과 소서노에 관한 역사적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지금의 성남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남 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인가를 성남아리랑의 1악장 ‘빛과 소리와 의 만남’을 통하여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충실하게 가사로 읊졌다.

사진1 ¹⁶⁾



14) 한춘섭 「성남아리랑 1악장 ‘빛과 소리와 의 만남’」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2009. p.2

15) MBC 드라마, 총 81부작, 2006. 05. 15~2007. 03. 06 종영.

16) 1악장 빛과 소리와 의 만남 시낭송 ‘성남아리랑’ -한춘섭(시조시인, 성남문화원장)

사진2 ¹⁷⁾



사진3 ¹⁸⁾



(2) 1악장 '빛과 소리와와 만남' 주요가사

소서노 ¹⁹⁾

그리던 님과 함께 세상을 가졌었네.
 활 쏘고 말 달리며, 부러움도 없었네.
 운명의 이별이 올 줄 내 어이 알았으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바람결 내 사랑아
 땅에 묻힐 님이라면 머리라도 풀으련만,
 가슴에 피명이 지듯 목 놓아 울고 싶다.

이젠 정말 떠나야 하네. 눈물조차 감추고,
 원망도 풀어놓고, 등짐도 풀어놓고,
 서럽게 주저앉아서 있을 수만 없었네.

17) 1악장 빛과 소리와와 만남 온조대왕-박창준(성남시립합창단 상임단원)

18) 1악장 빛과 소리와와 만남 소서노-정소영(성남시립합창단 상임단원)

19) 성남아리랑 1악장 '빛과 소리와와 만남' 中 '소서노' 가사/ 작시 한춘섭

꿈꾸던 이 나라에 영웅을 만들고서
다시 한 번 그렇게, 어머니로 살고 싶었네.
천년 세세 이어갈 국모로 살고 싶었네.

온조대왕²⁰⁾

압록강변 동남뱃길, 너른 땅, 고난의 땅
“다시 시작 하리라.” 두 아들 수레타고
“이 나라, 백제이외다! 하늘에 알립니다.”

백제사람 목도소리, “어영-차, 어영-차”
성남시민 다 함께, “어기어-차, 어기영-차”

사나이로 뜨겁게 외쳐보는 한강남쪽
기필코 거룩한 땅! 불끈 권 두주먹이
“만만세! 큰 성남 만만세! 다 함께 외쳐보리.”

백제인도 목도소리, “어영-차, 어영-차”
성남시민 다 함께, “어기어-차, 어기영-차”

(3) 1악장 ‘빛과 소리와 의 만남’ 작품해설-음악중심으로
극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성남아리랑”은 총 4개의 악장으로 이뤄져 있
다.

그중에서 첫 번째 악장인 “빛과 소리의 만남”은 4개의 곡이 있는데, 첫

20) 성남아리랑 1악장 ‘빛과 소리와 의 만남’ 中 ‘온조대왕’ 가사/ 작시 한춘섭

번째 곡인 “성남아리랑”은 한국의 대표 노래인 아리랑의 선율과 새로이 창작된 선율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곡 전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전통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느낌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작곡되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법들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곡인 “소서노”는 소프라노 독창곡으로서 온조대왕의 어머니인 소서노의 심정을 단조의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 전개해 나가고 있고, 세 번째 곡인 “온조대왕”은 건국할 당시 기개와 포부를 8분의 10박자의 활기찬 리듬으로 힘 있게 표현한 테너 독창곡이다.

마지막 네 번째 곡인 “빛과 소리의 만남”은 백제로부터 현재까지 이어가는 성남을 웅장하고 힘찬 느낌을 주려고 했고 다음 악장과 연결될 수 있는 음악적인 요소들이 나타나 있다.

1악장은 전반적으로 힘차고 활기찬 곡들이 많고 전체의 주제인 아리랑 선율이 등장함으로써 시작을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전개 또는 포괄하는 중요한 음악어법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²¹⁾

(4) 1악장 ‘빛과 소리와 만남’ 주요 곡 악보²²⁾

21) 성남아리랑 작품해설 1악장~3악장 이선택(성남아리랑 작곡자, 성남시립합창단 전임작곡자), 2012.

22) 성남아리랑 1악장 빛과 소리와 만남 중 ‘빛과 소리’와의 만남(한춘섭 작시, 이선택 작곡) 2009.’

5'20"

빛과 소리의 만남

I장 "빛과 소리의 만남" IV
(S. A. T. B.)

만준섭 작사

이진태 작곡

$\text{♩} = 60$

accor. p. *pp* *p*

귀 부 르 나 뵈 이 시 는 지 이 람 속

f *p*

성 남 시 립 합 창 단

보 아 라 이 별은 보 아 라 나 시 또 시 작 하 리

라 세 기쁜 왔 나니 새 기쁜 왔 나니

꽃 피고 인으키 세 우 이 아 부의 불-꽃

이 꽃 피고 인으키 세 우 이

아 쉽게 문-은 제 아 세 쉽은 문-이 무

고 신 화를 이-루 기 라

세 세만 년 수 평이유 성-남 세 세만 년 수 평이유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voice and piano. It consists of three systems. Each system has a vocal line with lyrics, a bass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features a prominent triplet pattern in the right hand.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the music is in a major key with a 2/4 time signature.

장녀 사 세상 기 습 기 습 계

신 명으로 안 기 우 라 신 명으로 안 기 우

- 112 -

라 신 나 부 부 나 살 기 실 은 신 나 부 부 나 화 실 은

영 난 영 난 '구 구' 살 고 실 은 영 난 영 난 '구 구' 살 고 실 은

- 112 -

2) '성남아리랑' 제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배경 및 작품해설

(1)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배경

일천 년 전 한강 남쪽에 자리잡은 한성 백제의 땅 성남은, '탄천' 그리고 남한산과 청계산의 맑은 물과 아름다운 산, 그리고 바람의 역사는, 생생한 '우리의 혼' 이고, 거룩한 힘의 원천이다. 고려는 불교 숭상이 지나쳐 외환과 내란을 여러 차례 겪었던 봉건사회 왕조였다. 권문세족의 횡포에 맞섰던 신진사류들의 애국적 정치개혁사상과 의지에 굶핍을 모르던, 청백리의 정신을 이 땅, 역사 위에서 찾아내어, 효심과 애국심이 고을고을에 전해 오는 전설상의 이야기들을 예술과 접목시켜, 역사 존중, 그리고 호국불교에 의한 향반 선비들의 애국 서사시 민족예술이 자존심으로 꽃 피운 시대였다.²³⁾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에서는 성남시 옛 탄

사진4 ²⁴⁾



23) 한춘섭 「성남아리랑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2010. p.3

24)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탄천-석종국, 둔촌-안효영(성남시립합창단 상임단원)

천 별판 역사 이야기 속에 둔촌 선생과 그 아들 탄천 청백리 인물들의 '나라 사랑'이 진실했음을 알려주고, 성남의 명소 탄천 문화의 본질을 밝혀내어 '충효, 청백리의 제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 보았다.

2악장 후반부에서는 아름다운 탄천 냇가의 모습과 희망과 행복을 주는 탄천의 영원한 모습을 기원하는 내용을 가사에 담았다.

(2)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주요가사

탄천의 눈물²⁵⁾

둔촌 : “아들아, 만날 수 없어도 슬퍼하지 말거라”

“살다 보면 슬픔도 바람 같이 사라지고”

“한 세상 이별의 아픔 셋강물에 보내거라.”

탄천 : “아버지, 지난 밤 꿈자리 어떠셨나요?”

“몰아친 비바람도 언젠가 멎겠지요.”

“불효자 선잠 깨어서 대문 앞을 살폈어요.”

둔촌 :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술씨 떨어져서 다복 술발 이루니”

“장부는 세상 풍파에 뜻을 세워 살거라”

탄천 : “아버지, 내 아버지! 만 년 푸른 내아버지”

“탄천 물 그림자에 속 울음 흘러 흘러”

25) 성남아리랑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중 '탄천의 눈물' 가사/ 작시 한춘섭

“한 세상 나라 걱정에 어른으로 사셨네요.”

합창 : “지금도 나는 가리라, 셋강따라 나는 가리라.

보듬고 살아야 하리, 미움도 잊으리라.

탄천은 아름다운 물굽이 눈부신 이 땅이여.”

탄천사랑²⁶⁾

이끼 낀 한 평생이 천년만 가겠느냐
고려왕조 허리 굽힌 황토 길 찢빛인데
물살에 씻김굿 한 판 다시 사는 성남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리움 노을 속에 안겨드는 청계산아!
백제 땅 통일 신라 이 땅을 살고 왔네
열두 달, 풀고 감기리 ‘성남 탄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사람 모인 느티 정자, 사 계절 모여 사네
억새 풀 우거진 속 백로 날개 펼쳐지면
밝은 해 달려 온 아침 ‘성남 탄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비바람 폭풍 속에 군마달린 너른 들판

26) 성남아리랑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中 ‘탄천사랑’ 가사 일부/ 작사 한춘섭

쟁쟁 보검소리 천세 만세 외쳤다
 높은 산 큰 어른 이야기 '성남 탄천',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3)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작품해설—음악중심으로

두 번째 악장인 “생명의 젓줄 탄천”은 고려시대의 이야기로 첫 번째 곡인 “탄천의 하루”는 어린이들의 합창과 플룻, 오보에 그리고 하프의 반주로 마치 한 폭의 풍경이 그려 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두 번째 곡인 “탄천의 눈물”은 아버지인 둔촌(바리톤)과 아들인 탄천(테너)의 대화로 되어 있는데 총8번의 전조가 있고 뮤지컬스타일의 드라마틱한 음악전개, 마지막에는 합창이 함께 노래한다. 세 번째 곡인 “탄천 연가”는 재즈의 선율과 화성을 사용하고 있는 Intro, 4분의 6박자의 리드미컬한 A부분 그리고 춤곡형식을 갖고 있는 B부분으로 작곡되었다. “탄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마지막 곡은 어린이 합창으로 시작하여 굿거리장단의 A부분, 자진모리장단의 후렴구, 마지막은 휘모리로 신명나게 진행되는데 제1주제 선율인 아리랑은 자진모리로, 제2주제 선율도 단조로 바뀌어서 1악장의 첫 곡과는 다른 느낌을 표현하려 하였다.²⁷⁾

(4)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주요 곡 악보²⁸⁾

27) 성남아리랑 작품해설 1악장~3악장 이선택(성남아리랑 작곡자, 성남시립합창단 전임작곡자), 2012.

28) 성남아리랑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중 '탄천연가' (한춘섭 작시, 이선택 작곡) 2010.'

탄천 연가

2악장 "생명의 빛을 탄천 연가" III

(S A T B Mixed Choir, 장구, 모듬북, 부수타악 & Piano)

한준식 작시

이신택 작곡



성남시립합창단



프 랑스 인 우 니 가 이 사 랑 을 숭 보 신 것 같

이 만 주 를 시 하 이 사 랑

광 우 니 성 나
사 랑 우 니 성 나

35

우 우

배 민 수 있 나 만 이 세 성 님 이 번 라

37

우

37 열 마 스 님 네 가 애 누 꽃 저 름 수 이 와 미 구 고

41

무 사

이 딱 주 름 신 하 이 사 랑

3) '성남아리랑' 제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배경 및 작품해설

(1)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배경

성남역사의 상징,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인 '남한산성'은 우리 성남시의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문화유산으로,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의 융광로라 할 수 있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안경을 보장하는 '국가 안전보장처'로 주목 받았던, 역사의 현장이다.²⁹⁾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북한산성(北漢山城)과 더불어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중의 하나였다. 1624년 조선 인조 때 신라 시절 옛 성터를 활용하여 축성된 곳으로, 남한산성은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치욕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청나라의 군대를 피해 남한산성으로 내려왔다.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성 안에서는 주화파와 주전파 사이에 여러 차례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왕자들이 피신해있던 강화도가 청군에 함락당하고 청군은 화포를 쏘아대어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등 압박을 가하자 인조는 성문을 열고 나가 삼전도에서 항복의 예를 갖추었던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남한산성은 외침에 항거한 충신들의 고고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청과의 화의를 반대하고 척화를 주장한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의 충절과 충의를 남한산성의 역사 안에서 밝혀내어 진실한 나라사랑의 의미와 이들의 애국혼을 성남아리랑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에서 나타내었다.³⁰⁾

29) 한춘섭 「남한산성」(2010)

30) 한춘섭 「성남아리랑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2012, p.3

사진5 ³¹⁾



사진6 ³²⁾



31)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시당송 '조선산하' -한춘섭(시조시인, 성남문화원장)

32)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무대모습(성남시립합창단, 성남시립국악단, 지휘 : 송성철 성남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2)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주요 가사

남한산에 오르다³⁴⁾

산 그늘 걷어내고 성 둘레를 밝혀라
큰 기와 가마터에 사흘 낮밤 불 들여라
금강 송 용마루 올려 대궐 다시 지어 보자.
성남, 성남,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천추에 빛날 역사, 대왕께 아뢰어라
간절하면 이루리, <세계문화유산> 등재
잘 되라, 서로 잘 되라, 얼싸 안을 노래여!

33)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삼학사(문영제, 황석하, 최무룡 성남시립합창단 상임단원)

34) 성남아리랑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中 '남한산에 오르다' 가사/ 작시 한춘섭

성남, 성남,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쑥 잎새 불씨로다, 봉수 터 연기로다.

“남한산이 우뚝하네, 성의 남쪽 모여 사네,”

찬란한 도읍지여라, 다시 일어 서나니

성남, 성남,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삼학사 합창소리³⁵⁾

생이별 인질 되어 청태종의 죄인 되니

혼백 부른 도포자락 하얗게 흔들었네.

남한산이 님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리.

삼학사, 불멸의 이름 홍익한, 윤집, 오달제

님이여, 그리워라! 아리랑 아라리요.

님들이 그리워라, 그때 그날 그리워라

충신이 흘린 피는 햇불 보다 뜨거워라

조선 장부 올리는 승전고 그리워라

함께 운 역사 강나루 지금도 흐르거니,

님이여, 그리워라! 아리랑 아라리요.

현절사 님의 사당, 들꽃 꺾어 바치네

여기 편히 쉬리라, 고이 편히 쉬시라

서러움도 버렸나니 아픔도 버렸나니

그리운 아침의 나라, 안겨드는 남한산아!

35) 성남아리랑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中 '삼학사의 합창소리' 가사/ 작시 한춘섭

님이여, 그리워라!아리랑 아라리요.

(3)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작품해설—음악중심으로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한산성과 절개의 상징인 삼학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세 번째 악장은 음악적으로 1, 2악장과는 다른 힘차고 웅장한 리듬과 과감한 선율을 사용하였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곡인 “조선 산하”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2주제 선율을 힘차게 편곡하였고 도입부에서는 Unison을, B부분은 싱크페이션 리듬에 의한 변박을 사용하여 역동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두 번째 곡인 “삼학사 합창소리”는 끝까지 조선에 대한 절개를 지킨 홍익한(테너), 윤집(바리톤), 오달제(베이스)의 삼중창으로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조의 선율로 작곡하였고 테너와 바리톤, 베이스의 대선율이 서로 주고받거나 또는 Homophonic(단성부적)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곡인 “남한산에 오르다”는 혼성 8성부 아카펠라와 모듬북으로 구성되어 있고 끊임없는 연결을 통해 변화를 주고 있는 변박리듬과 굿거리장단, 5음계 선율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느낌을 주었고 coda에는 모듬북의 솔로로 대미를 장식한다.

마지막 곡인 “성남이여”는 조선시대와 현재를 연결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밝고 힘찬 성남을 표현하기 위하여 첫 번째 악장에서도 나왔던 제1, 2주제선율이 다시 등장하고 새로운 선율이 나오는 B부분에서는 아기가기 하면서도 힘찬 느낌을 주기위해서 템포가 점점 빠르게 전개되어 진다. 아리랑 선율은 이 곡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나타내고 있고 더욱더 웅장하게 편곡되어 전 악장의 균형과 통일성을 주고 있다.³⁶⁾

36) 성남아리랑 작품해설 1악장~3악장 이선택(성남아리랑 작곡자, 성남시립합창단 전임작곡자), 2012.

(4)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주요 곡 악보³⁷⁾

조 선 산 하

한춘섭 시

3악장 "역사의 자존 남한산성" I

이선택 작곡

(SATH & Piano)

♩ = 84

Piano

The piano introduction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is in 4/4 time and features a complex, rhythmic melody in the right hand with many beamed sixteenth and thirty-second notes, while the left hand plays a steady, rhythmic accompaniment.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is theme, with the right hand melody becoming more melodic and the left hand providing a consistent harmonic and rhythmic foundation.

성 남 시 립 합 창 단

8

저 는 도, 숨 고 모 인

8

11

게 국 사 잊 마 아 가 유 지 원 남 이 가

The vocal and piano accompaniment section is divided into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vocal melody in the treble clef and piano accompaniment in the bass clef, with the lyrics '저 는 도, 숨 고 모 인'.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vocal melody and piano accompaniment. The third system shows the vocal melody and piano accompaniment with the lyrics '게 국 사 잊 마 아 가 유 지 원 남 이 가'. The piano accompaniment is a rhythmic, chordal texture that supports the vocal line.

37) 성남아리랑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중 '조선산하' (한춘섭 작시, 이선택 작곡) 2009.

12

바라구장수있 어 수 황 궁 못 귀은 죽어

19

안 세심 간있 어 편

23

경 차운 위 년 리대 밭 얻 리수 리치 이

50

한 세 상— 멀리 이 다 세 국 의 것 만 아 게

50

PI.

51

한 세 상 멀리 리 세 국 의 것 만 이 리 한 세 상 멀리 리 세 국 의 것 만 이 리

하 는 는 는 가 보

54

PI.

50

한 세 상— 여러 이 나 세 국 의 것 만 아 래

50

PI.

54

한 세 상— 여러 리 게 국 의 것 만 이 래

한 세 상— 여러 리 게 국 의 것 만 이 래

한 세 상— 여러 리 게 국 의 것 만 이 래

54

PI.

3. 성남아리랑의 구성과 내용

이제부터 본 연구자가 다른 창작 합창작품과 달리 '성남아리랑'은 어떤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성남아리랑 구성과 내용

(1) 성남아리랑의 작품구성

공연의 구성은 시 낭송-영상다큐멘터리-합창곡발표로 구성한다. 기획당시에는 인터미션(intermission)을 2회를 염두에 두고 총 3부로 구성했었다.

그러나 준비단계에서 인터미션(intermission)을 2회로 공연하기로 결정되었다. 기획 초기, 성남아리랑은 성남시립합창단 매 정기연주회의 1부, 2부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3부에서는 성남아리랑이 아닌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 곡 등을 선보이기로 했었다. 성남아리랑의 내용이 어렵고, 아직은 관객들에게 익숙한 내용과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3부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 팝이다, 오페라 합창들을 공연 구성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부 '성남아리랑'에서 관객들이 최대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인터미션 없이 1부 전체를 성남아리랑으로 구성하고 지휘자의 의도로 2부를 대중적인 곡들로 공연의 분위기를 활기차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성남아리랑 다큐음악극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시낭송, 다큐멘터리, 소리꾼의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해설, 그리고 웅장하고 화려한 타악기의 연주와 우렁찬 성남시립합창단의 하나된 목소리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 울려 퍼졌다.

성남아리랑의 시작은 매 연주의 시작을 한춘섭(성남문화원장, 시조시인)의 시 낭송으로 시작된다. 악장 중 가장 주제가 되는 시를 정해 작사가 직접 시낭송을 아리랑 배경음악과 함께 낭송해 나간다. 바로 관객들의 집중을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다큐멘터리 영상 상영이다. 적게는 1주일에서 20일 이상 제작이 소요되는 다큐영상은 전문 피디와 카메라 감독 등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함께 하였다. 다큐영상의 제작은 관객들에게 ‘성남아리랑’의 악장별 주제와 프로젝트의 추진 이유, 그리고 매 악장을 영상으로 소개하여 관객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끝으로 작품발표 부분에서는 성남시립국악단, 성남시립교향학단이 함께 참여하여 무대를 웅장한 악기소리로 꾸며 주었으며, 그에 힘입어 성남시립합창단의 연주는 빛날 수 있었다. 악장 마다 나오는 주역들 1악장 ‘빛과 소리와와의 만남’-소서노, 온조대왕, 2악장 ‘생명의 젖줄 탄천’에서는 둔촌, 탄천,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에서는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이 출연하여 매 악장의 주인공으로서 연기와 음악과 더불어 화려한 의상을 선이기도 했다.

‘성남아리랑’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성남아리랑의 내용(공연 구성)

① 1악장 : 빛과 소리의 만남(백제 온조대왕 어머니인 소서노 이야기)

1) 오프닝 다큐 영상

- 성남아리랑 소개.
- 백제시대 온조대왕의 어머니인 ‘소서노’를 배경으로 한 내용.
- 성남의 역사는 백제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 온다는 내용을 소개.

2) 성남아리랑 시낭송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님의 시낭송.

3) 고수등장

- 성남아리랑의 시작을 알리고, 성남아리랑의 이야기 소개

4) 합창 '성남아리랑'

5) 고수등장

- 1악장에 전개될 소서노 이야기와 백제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남의 역사를 소개.

6) 여성 독창

- 소서노 독창.

7) 남성 독창과 합창 '온조대왕'

- 소서노의 아들인 온조대왕의 이야기.

8) 합창 '빛과 소리의 만남' — 웅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

- 백제에서 성남까지 오는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웅장한 합창.

② 2악장 : 생명의 젖줄 '탄천' (사람...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다...)

1) 오프닝 다큐 영상

- 성남아리랑 소개.
- 2악장에 소개될 고려시대 탄천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이야기.
- 탄천의 상징, 그리고 나라사랑과 안녕을 기원했던 둔촌과 그의 아들 탄천의 나라사랑 이야기.
- 성남에서 서울,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탄천의 희망적 메시지를 담는다.

2) 성남아리랑 시낭송 '생명의 젖줄 탄천'

- 한춘섭 성남 문화원장의 시낭송.

3) '탄천을 그리다' (애니메이션 구성)

4) '탄천의 하루' - 성남시립소년소녀 합창단

- 탄천의 의미와 상징적 배경을 소개하는 내용

5) 탄천의 눈물' (애니메이션 구성)

- 나라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던, 둔촌과 탄천의 이야기

6) '탄천의 눈물' - 남성 이중창

- 둔촌과 그의 아들 탄천의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

7) '탄천 연가' - 성남시립합창단

- 탄천이 상징하는 가족사랑, 그리고 나라사랑 이야기

8) 생명의 젖줄 탄천 '성남시립합창단' /성남시립소년소녀 합창단

- 웅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
- 성남에서 서울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생명의 젖줄 탄천' 을 상징한다.

③ 3악장 :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1) 오프닝 다큐 영상

- 성남아리랑 소개.
- 3악장에 소개될 조선시대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이야기.
- 남한산성의 역사이야기, 그리고 충절과 충의 상징 인물 윤집, 홍익한, 오달제의 애국이야기
- 성남의 자랑, 우리나라 역사의 상징, 세계의 자랑이 될 남한산성의

희망적 메시지를 담는다.

2) 성남아리랑 시낭송 '조선산하'

- 한춘섭 성남 문화원장의 시낭송.

3) 조선 산하

- 가슴 아픈 조선의 이야기와 이를 곳곳이 지켜나가는 우리 민족의 울타리 남한산성.

4) 삼학사의 합창소리

- 윤집, 홍익한, 오달제의 충절과 애국이야기.

5) 남한산에 오르다

- 성남의 자랑, 세계의 자랑이 될 희망의 남한산의 웅장한 메시지를 전달.

6) 성남이여

- 성남 역사의 모태인 '빛과 소리의 만남' 그리고, 민족의 혈맥 '생명의 젖줄 탄천' 과 역사의 자존 '남한산성' 긴 여정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축복의 땅 '성남' 을 알리는 대서사시로 웅장하게 구성한다.

IV. 성남아리랑의 가치와 발전 방안

1. 성남아리랑의 가치

지금까지 성남시 역사 안에서 시 특색의 시대별 테마를 사건과 대표인물을 통해 새 도시 얼굴을 음악에서 창작 명작으로 공연된 예술성과를

연구의 첫 시도로 논의하였다.

‘성남아리랑’ 노랫말의 작가 한춘섭 시조시인의 문단활동과, 향토문화의 큰 역할을 그의 저서 몇 군데 속에서 찾아보면

—청계산 골짜기마다 우리나라 역사 속 큰 인물들의 묘소가 적지 않으며, 남한산 골짜기마다 피 향내 뿌렸던 위인들의 발그림자가 지금도 어려 있지 않은가?³⁸⁾

—남한산성과 그 둘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유사 이래, 최고의 문명사회를 누리게 된 데에는 우리 조상들이 흠을 일구어 곡식을 심어 가꾸던 정성과, 나라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그 밑거름이 되었음³⁹⁾

자주 입버릇처럼 드러낸 ‘내 삶의 현 거처’에 대한 애정이 깊게 자리한 문인이자 지역사랑 주인임을 알 수 있다. 그의 글 구석구석에 깔려진 성남사랑 모습은 노랫말에서도 짙은 감동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한춘섭 작사자의 노랫말 숨씨는 시 문학성을 바탕으로 그 어느 구절에서나 성남 역사 스토리가 전달되며, 김명옥 박사의 지적과 같이 “향토색의 서정 시조시 바탕위에 깊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담아내는 작가”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꾸며진 글이 아니고, 성남시 문화 예술계의 산 증인답게 전체 4악장을 각 시대별로 총 결산한다는 다짐이 역력하다.

이쩌면, 성남시 40여년 발걸음마다 모든 관객의 가슴에 와 닿을 만한 대표작 아리랑에 가치를 보다 세심한 손놀림으로 관계자 모두의 정교로운 예술혼을 자리매김시켜야 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38) <성남문화유산>(1999, 1/ 머리글) 일부

39) <남한산성>(2010, 4/ 발간사) 일부

2천 년 전의 <운조백제> 물과 흙과 바람조차 우리의 뿌리라고 전제한 그의 해설을 비롯하여 ‘성남아리랑’의 자존심은 기록과도 같아 생생한 신 도시 발전의 손짓이며, 희망 담겨진 성남의 희망 메시지로 끊임없이 다듬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지식의 전파가 아니라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감동 전파이기 때문이다.

2. 성남아리랑의 발전방향

예술가가 작품의 제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객과의 소통, 그리고 관객에게 주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의 실패를 단순히 객석을 채우지 못한다거나, 흥행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성남시립합창단이 기획한 ‘성남아리랑’ 같은 지역의 공연예술 문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지역의 창작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우수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알리고, 지역예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남아리랑과 같은 작품을 창작하여 한 지역의 예술단체의 발전, 더 나아가 문화예술 발전의 방법으로 성남아리랑을 발전시킬 실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창작에 대한 목표와 사명

시립합창단은 시립단체로서 시 재정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보니 고객 지향적 전문 연주단체의 성격보다는 정부의 행정 기구적인 성격이 많아 프로그램 기획이나 마케팅 등 상대적으로 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운영상에 전근대적인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 예술단체의 발전을 통한 지방문화 발전의 시작은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역 예술단체가 보다 주도적으로 변화의 시발점을 제공하는 아래로부터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남아리랑과 같은 지역을 위한 예술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사명을 먼저 확립하여야 하며, 목표와 사명을 인식하여야 한다.

▶ 성남아리랑의 목표 : 시민들에게 성남의 문화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성남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 성남아리랑의 사명 : 성남아리랑에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들과 어우러져 문화를 향유 하므로 삶에 질을 높이게 한다. 또, 이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수한 연주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2) 시민과의 소통

성남아리랑을 알리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열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관객 혹은 잠재관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상시적인 창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 ① 성남아리랑 관련 웹사이트 개설
- ② 성남아리랑 웹진 제작
- ③ 공연평가관련 시민 설문조사
- ④ 성남시립예술단 전체가 하는 대규모 공연 및 축제 발전
- ⑤ 성남아리랑 기념 음반 제작 및 홍보발송
- ⑥ 성남아리랑 서포터즈 모집

3) 기획의 참신성

시민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적인 기획으로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전문 인력의 확보가 일차적인 해결책이 되겠

으나, 오늘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힘을 얻어가는 것처럼, 문화예술 기획에서도 지역 예술단체 외부의 전문가 혹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예에게 위촉하여 기획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술문화기획 콘테스트, 예술문화기획 전문 인력 풀(pool)을 예술단체 차원에서 시행해 봄직하다.

문화예술의 시설 특성을 활용한 질 높은 공연 및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등을 통해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색다른 운영기획 방법으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지망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며 문화예술단체들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관객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기획력으로 지역 관객들의 문화향유 능력 개발 및 중장기적 문화예술 수요기반 확대발전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획으로 뛰어 들 필요성을 가진다.

4) 프로모션의 체계화

개별 예술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홍보 전략은 그 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의 결정체로서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이의 시행 상의 문제 혹은 원칙의 정립과 공연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최적의 매체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성남시립예술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매체광고(신문, 지역방송, 전문지, 인터넷 등)
- ② 각종 옥외광고(벽보, 육교, 플랜카드 등)
- ③ 기타 광고(DM발송, 전화 등)

개별 공연에 따른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홍보전략 수립은 홍보의 효과를 낮출 뿐 아니라 효과적인 예산의 수립과 체계적인 집행에도 방해를 준다.

따라서 몇 개 모델별로 연령별, 취향별, 장르별에 따른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해 프로모션 플랜을 사전에 만들어 몇 번의 시범 적용과 결과 측정을 통해 하나의 매뉴얼로 시스템화 함으로서 공연이 거듭될수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프로모션 플랜을 만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공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5) 성남아리랑의 장기적 발전 방안

예술문화 발전의 핵심 요인은 관객과의 관계 형성이며, 이러한 관계 형성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도면밀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제공할 때 일정한 기호(취향)가 형성되어 소비가 가능해지는 경험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 지는 것이며 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의 주체는 예술단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와 국내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개발 사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지역 예술단체를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다.

6)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교육정보정책은 새로운 지식과 예술교육콘텐츠 및 방법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존 정보를 공유, 축적하는 쪽에 많은 관심이 놓여 있는 듯하다. 즉 어떠한 문화예술 가치 및 지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보다는 우선은 국내외에 산재한 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 축적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축적 및 공유상황 마련으로부터 한 단계 나아가서, 새로운 문화예술지식과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정보들은 예술교육

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는 현장 지식과 업무방식을 포함하는 수준의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이로부터 창조적 상상력과 목적의식이 가미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 ① 시민의 문화 향유력, 창의력 고취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② 학교 교육을 지식 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전환
- ③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교육간 연계 강화
- ④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7) 지역 상황에 맞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남시립예술단과 같은 지역 예술단체를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먼저, 지역 예술단체와 협력과 교류를 통한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설 문화학교와 지역예술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 문화 전수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전문 예술인과 예술경영인 양성 프로그램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성남시립합창단의 창작 다큐음악극 ‘성남아리랑의 가치와 작품성에 관한 연구’를 정리했다.

본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성남아리랑’과 같은 창작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글(작사)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공연을 위한 노래,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작사 혹은 시나리오가 곧 작품의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작사는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합창음악에서 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을 너무 강조하여 오히려 작품 전체의 완성도를 떨어

뜨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의 창작 작품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요소의 매력만을 좇다 보면 상대적으로 작품이 추구하는 본질이 약해지기 쉽다. 적지 않은 창작 작품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극본의 결함(Book Trouble)’ 때문이다.

“좋은 글이 좋은 창작 작품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창작물은 문학성이 높은 시, 소설, 희곡 등을 각색하여 만든 경우도 많다.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을 가지고 「마이 페어 레이디」를 만든 경우,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가지고 「레 미제라블」을 만든 경우가 그것이다. 결국 이들은 높은 문학성을 지닌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감성과 주제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성남아리랑의 가치는 높다고 생각한다. ‘성남아리랑’ 노랫말의 작가 한춘섭 시조시인의 애정 깊은 성남사랑 마음은 그의 가사 한 줄 한 줄에 배어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가사로 인해 성남의 문화와 역사를 ‘성남아리랑’ 작품을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고, 향토색이 짙은 글 속에서 우리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데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성남아리랑’의 가사(작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끝으로 ‘성남아리랑’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어떤 문화원형을 창작소재로, 어떤 문화콘텐츠 창작물을 창출하더라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허와 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문화콘텐츠 창작물의 허와 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

정성이 결여된 문화콘텐츠 창작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남아리랑의 문화콘텐츠산업으로의 변신은 무한하다. 미래에 선보일 아리랑 문화상품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성남아리랑'의 스토리텔링 창작 시도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성남아리랑'의 창조적 수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성남아리랑'은 시, 소설, 희곡,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 여러 장르의 원천 자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예술적 가치 창출은 '성남아리랑'을 통한 문화상품의 스토리텔링화가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창작의 변종장르로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산은 전통문화 정체성의 활력뿐 아니라 한류의 경제력과 상상력이 되고 있다. '성남아리랑'은 스토리원형은 문학콘텐츠의 원형자원으로 예술작품 창작에 또 다른 변신을 보여줄 것이다. 가장 아리랑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에는 이의가 없다. 이러한 아리랑작품의 성공 여부는 디지털 기술에 기대어 아날로그적 예술형상화 수준과 수요자의 동시대적 반응에 달려 있을 것이다. 아리랑의 발생과 원리를 충실히 가치창조할 때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인류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리라고 관측된다.

'성남아리랑'의 문화와 예술작품의 창출은 지속되어야 한다. 아리랑의 전승문법, 창조원리, 다성적 소통 등으로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류(韓流)로 인해 21세기 지구촌 트렌드에 너무 잘 맞는다. 이 방면의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치유적 문화공유인자가 성남아리랑에 있음을 거듭 촉구하고 종족과 이념을 넘어서서 함께 실천적인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성남아리랑'이라는 작품에 자원에 대한 문화전략과 상품화 방안은 다양한 국면에서의 활성화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1. 성남아리랑 전체 노랫말 모음(1악장~3악장)

부록 1-1) 제 1악장 '빛과 소리와의 만남'

1. 성남아리랑

한춘섭

산줄기 건너서 들판 지나 수풀 사이
아침은 오색 빛으로 어둠을 밀어냈다.
남한산에 올라서 휘 돌아본 炭川 벌은
그리움이 산이라면, 풀고 갈 물도 있어
부푼 꿈 희망 안고서 예까지 와 살았으리
밝은 해 아침의 나라, 사랑 사랑 '성남아리랑'

온조대왕 어머니 소서노의 새로운 땅,
한성백제 큰 도읍지 신천지를 열었다.
처음은 다, 그렇게 물설고 낮선 채로
사람 모여 살았으리, 이 천년이 아득해도
부푼 꿈 희망 안고서 예까지 와 살았으리
밝은 해 아침의 나라, 사랑 사랑 '성남아리랑'

2. 합창 '성남아리랑'

산줄기도 건너뛴 들판 지나 솔 수풀이
높다란 산성 계곡 피라미도 살던 냇물에
이웃들 사계절 따라 향기롭던 영장산아...

아침은 아침대로 살만하던 세월 속에
탄천 옆 모래톱이 멀리서 스러지고
복사꽃 서낭당 길로 향기 날려 살고 싶네...

감나무 밤나무길 오솔 진 앞 여울 길
징, 팽과리 북, 장고에 모두모두 손을 잡고
“풍년에 북 내리소서” 두 손 모아 감축 하네...

3. 여성독창—소서노

그리던 님과 함께 세상을 가졌었네.
활 쏘고 말 달리며, 부러움도 없었네.
운명의 이별이 올 줄 내 어이 알았으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바람결 내 사랑아
땅에 묻힐 님이라면 머리라도 풀으련만,
가슴에 피멍이 지듯 목 놓아 울고 싶다.

이젠 정말 떠나야 하네. 눈물조차 감추고,
원망도 풀어놓고, 등짐도 풀어놓고,
서럽게 주저앉아서 있을 수만 없었네.

꿈꾸던 이 나라에 영웅을 만들고서
다시 한 번 그렇게, 어머니로 살고 싶었네.
천년 세세 이어갈 국모로 살고 싶었네.

4. 온조대왕과 합창

압록강변 동남뱃길, 너른 땅, 고난의 땅
“다시 시작하리라.” 두 아들 수레 타고
“이 나라, 백제이외다! 하늘에 알립니다.”

백제사람 목도소리, “어영-차, 어영-차”
성남시민 다 함께, “어기어-차, 어기영-차”

사나이로 뜨겁게 외쳐보는 한강 남쪽
기필코 거룩한 땅! 불끈 쥔 두주먹이
“만만세! 큰 성남 만만세! 다 함께 외쳐보리.”

백제인도 목도소리, “어영-차, 어영-차”
성남시민 다 함께, “어기어-차, 어기영-차”

5. 합창 ‘빛과 소리의 만남’

검푸르다 붉어지는 저, 여명을 보아라!
다시 또, 시작하라! 새 기별은 왔나니.
풀씨도 일으켜 세울, 이 아침의 돈을 해야!

전설은 묻어두고, 신화를 이루거라!
歲歲萬年 수명 이을城南, 너를 보듬느니
새 세상, 가슴 가슴에 神明으로 안겨오라!

성남은 城의 南쪽, 누구나 살고 싶은
가지 못할 데도 없고, 오지 못할 이도 없는
나들 門, 새 길을 열어 相生하는 우리성남!

부록 1-2) 제 2악장 생명의 젓줄 '탄천'

1. 탄천의 하루

그리운 물오리
물길을 저어 와요

산 빛 산까지 꿈 길을 날아와요
물살 햇살 아래 꽃들이 피어나요
밤하늘 반딧불이 별빛으로 다가와요
풀 이슬 등지에는 아기 오리 잠들어요

탄천은 성남의 행복
모두모두 사랑해요.

2. 탄천의 눈물

둔촌- “아들아, 만날 수 없어도 슬퍼하지 말거라”
“살다 보면 슬픔도 바람 같이 사라지고”
“한 세상 이별의 아픔 섯강물에 보내거라.”
탄천- “아버지, 지난 밤 꿈자리 어떠셨나요?”
“몰아친 비바람도 언젠가 멎겠지요”

“불효자 선잠 깨어서 대문 앞을 살폈어요.”
 둔촌-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솔씨 떨어져서 다복 술밭 이루니”
 “장부는 세상 풍파에 뜻을 세워 살거라”
 탄천- “아버지, 내 아버지! 만 년 푸른 내 아버지”
 “탄천 물 그림자에 속 울음 흘러 흘러”
 “한 세상 나라 걱정에 어른으로 사셨네요”
 합창- “지금도 나는 가리라, 샛강 따라 나는 가리라.
 보듬고 살아야 하리, 미움도 잊으리라.
 탄천은 아름다운 물굽이 눈부신 이 땅이여.”

3. 탄천 연가

버릴 수 없는 나날, 이제 정녕, 이별하고
 고향마을 숲내가에 들꽃처럼 숨어 살며
 단군이 땀 흘린 산하여! 사랑사랑, 우리 성남

천년 한 눈물 고여, 푸른 물살 굽이도는
 고려 혼 청백 정신 화드득 숯불인데
 탄천이 서럽다 하여 고운님 떠 보내랴

흐르고 흐르거라, 있던 일이 없겠느냐?
 보고 싶은 인연 끈에 빛바랜 편지 한 장
 남겨둔 당부의 말씀, 새겨보는 탄천 연가

4. 탄천 사랑(성남시립 합창단/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이끼 낀 한 평생이 천년만 가겠느냐
고려왕조 허리 굽힌 황토 길 핏빛인데
물살에 씻김굿 한 판 다시 사는 성남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리움 노을 속에 안겨드는 청계산아!
백제 땅 통일 신라 이 땅을 살고 갔네
열두 달, 풀고 감기리 '성남 탄천',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사람 모인 느티 정자, 사 계절 모여 사네
역새 풀 우거진 속 백로 날개 펼쳐지면
밝은 해 달려 온 아침 '성남 탄천',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골 저 골 첩첩 둘레, 냇물이고 강이어라
성남 땅 허리춤에 굽이도는 탄천 여울
새겨둔 역사 돌다리 잊지 못할 솟대 언덕.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비바람 폭풍 속에 군마달린 너른 들판
쟁쟁 보검소리 천세 만세 외쳤다
높은 산 큰 어른 이야기 '성남 탄천',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부록 1-3) 제 3악장 민족의 자존 '남한산성'

1. 조선 산하

하늘도 숨 고르던 개국의 깃발 아래
폭풍처럼 달려 와, 바람 가르 장수 있어
수창궁 옛 길을 돌아 한 세상 열었어라.

청사진 휘날리며, 말달려 소리치며,
먹구름 몰아내어 해와 달을 보듬었네
조선이 지켜 온 산성, 터 다지는 소리로다.

쉽고도 만만한 일 세상에는 없었네.
눈물로 새긴 한글, 불로 새긴 금속활자
누리는 출렁거렸네, 새 천지가 되었네.

2. 삼학사 합창소리

생이별 인질 되어 청태종의 죄인 되니
혼백 부른 도포자락 하얗게 흔들었네.
남한산이 님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리.
삼학사, 불멸의 이름 〈홍익한—윤집—오달제〉
님이여, 그리워라! 아리랑 아라리요.

님들이 그리워라, 그때 그날 그리워라
충신이 흘린 피는 햇불보다 뜨거워라

조선 장부 올리는 승전고 그리워라
함께 운 역사 강나루 지금도 흐르거니,
님이여, 그리워라! 아리랑 아라리요.

현절사 님의 사당, 들꽃 꺾어 바치네
여기 편히 쉬리라, 고이 편히 쉬시라
서러움도 버렸나니 아픔도 버렸나니
그리운 아침의 나라, 안겨드는 남한산아!
님이여, 그리워라! 아리랑 아라리요.

3. 남한산에 오르다

산 그늘 걷어내고 성 둘레를 밝혀라
큰 기와 가마터에 사흘 낮밤 불들여라
금강 송 용마루 올려 대궐 다시 지어 보자.
성남, 성남,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천추에 빛날 역사, 대왕께 아뢰어라
간절하면 이루리, <세계문화유산> 등재
잘 되라, 서로 잘 되라, 얼싸 안을 노래여!
성남, 성남,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쑥 잎새 불씨로다, 봉수 터 연기로다.
“남한산이 우뚝하네, 성의 남쪽 모여 사네,”
찬란한 도읍지여라, 다시 일어서나니
성남, 성남,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4. 성남이여!

변방에서 중심으로 사십 리 탄천 따라
힘차게 나래 치는 생동의 땅이거늘
삼죽오 태양신 따라, 오래 오래 여기 사네.

사람들 모여 산 지 한두 해 아니었네
성남대로 분당선, 판교 여는 신분당선
나들문 새 길을 열어 오래 오래 여기 사네.

전설은 묻어 두고, 신화를 이루거라.
모두가 그러 하던 기쁜 나날 좋은 세상
열리네, 창창한 하늘, 오래 오래 여기 사네.

참고문헌

두산 세계대백과 Encyber,

위키백과사전

박관수, 『어러리의 이해』, 민속원, 2004.

박민일, 『아리랑의 文學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성경인·장사훈, 『조선의 민요』, 국제음악문화사, 1959.

양주동, 「도령과 아리랑 : 古語研究二題」, 『민족문화』 제4권 2호, 민족문화사, 1959.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韓國民謠學』 제5집, 한국 민요학회, 1997. 11.

이재돈, 『中國語 音韻學』, 학고방, 2007.

- 이창식, 「아리랑, 아리랑학, 아리랑 콘텐츠」, 『한국민요학』 제21집, 2007. 12.
- 조규익, 『고전시가의 변이와 지속』, 학고방, 2006.
- 조규익, 「頌禱 모티프의 연원과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조남현 외, 『아리랑 연구』, 해냄, 1996.
- 조용호, 『아리랑의 비밀화원』, 집문당, 2007.
- 최철 · 설성경,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 김시업, 「근대민요 아리랑의 성격 형성」, (창작과 비평사, 1985)
- 김연갑, 『아리랑』(집문당, 1988)
- 조용호, 『아리랑 연구 저작권 총서』(저작권위원회, 2002. 8~2010. 5)
- 조용호, 「아리랑 연구의 現況과 課題」, 『제23차 전국학술대회』(중앙어문학회, 2010. 1. 28)
- 조용호, 「아리랑 후렴구 연구」, 『온지학회 학술대회』(온지학회, 2010. 3. 20)
- 성남문화원(2001)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 월간아트뷰(2008)
- 디지털성남문화대전
- 성남문화원 <30년사>(2008)
- 한춘섭 <남한산성>(2010)
- 한춘섭<성남문화유산>(1999)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20주년 좌담회

향토문화연구소 20년의 회고와 성남문화발전 방향 찾기

- ▶ 일시 _ 2012년 7월 20일(금요일) 오후 3시
- ▶ 장소 _ 성남문화원 원장실
- ▶ 참석 _ **한춘섭**(원장, 시조시인, 국문학자, 향토사학자)
한동역(소장, 향토사학자, 성남시 세거문증협의회 회장)
문수진(신구대 명예교수, 한국사)
전봉구(동서울대 교수, 건축학)
조남두(신구대 교수, 교육행정학)
최만순(부원장, ING개발 대표, 도시공학)
김주홍(나공사 미래사업본부 차장, 역사고고학)
서종원(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연구교수, 민속학)
정성권(동국대 박물관 연구원, 불교미술사)
윤종준(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한국사)
- ▶ 사회 _ **김정진**(문화원 사무국장)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정을 토대로 미래의 성남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연구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편집자 주)

사회자 : 오늘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 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발전에 대한 여러 연구위원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모로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하면서 기탄없는 고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 좌담회에 앞서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는 배부한 인쇄물로 대신함)

한춘섭 원장 :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연구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우리 향토문화연구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 번 회고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해 보고자 해서입니다. 20년 전 처음으로 제가 연구소 설치 제안을 제출하던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도 연구소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당시의 여건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이뤄냈



한춘섭 원장

“

좌담회를 마련하게 된 것은 우리 향토문화연구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 번 회고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해 보고자 해서입니다. 20년 전 처음으로 제가 연구소 설치 제안을 제출하던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도 연구소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당시의 여건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년이 되었는데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한 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동익 소장

“

성남문화원에 연구소가 문을 연 지 20년 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성백제와 관련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문중협의회가 만들어지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연구소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었는데, 20년이면 사람도 성인이 되는데 성남문화원 내 향토문화연구소가 20년 동안 시의 역사와 문화생활을 연구해 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새삼 선배 위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원장님도 큰 고생을 하신 끝에 이만큼 발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주년이 되었는데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한 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진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 이어서 한동익 향토문화연구소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동익 소장 : 모두들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문화원에 연구소가 문을 연 지 20년 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성백제와 관련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문중협의회가 만들어지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연구소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었는데, 20년이면 사람도 성인이 되는데 성남문화원 내 향토문화연구소가 20년 동안 시의 역사와 문화생활을 연구해 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새삼 선배 위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원장님도 큰 고생을 하신 끝에 이만큼 발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성백제와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작년에 개최하였고, 올해에도 이와 관련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몇몇 분들이 전화를 통해 “한성백제사와 성남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문화원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지요. 보람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더 좋은 논문들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좌담회에 앞서 윤종준 상임위원의 그간 연구소의 성과와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종준 위원 : 오늘 좌담회는 우리 향토문화연구소가 1993년 9월 20일에 설립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립 초기의 여러 가지 문화적 현황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간 연구소의 사업성과는 눈부시게 많습니다. 학술회의 개최 17회를 비롯해 수차에 걸친 마을지 발간도 주목되는 것이고, 특히 《성남문화연구》는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행되었으며, 문화원에서 성남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300편에 가깝습니다. 다른 어느 기관도 보유하지 못한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여섯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씩 짚어 나가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과 승격될



문수진 교수

“문화원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장님이 열성적으로 일을 추진하시고 앞으로 같이 해나가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저쪽 강남구 송파구 등등 광주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 이제 다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남의 거주자 관련자들이 정체성을 잃은듯한데 서울이나 하남 등이 광주였고, 성남의 독립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광주문화권의 개념에서 인식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진통을 겪었지만, 원장님 제안으로 만들어진 '광주문화권협의회' 같은 기구를 적극 활용해서 문화적 통합을 먼저 해나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봉구 교수

“우리 시는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농촌사회에서 전형적인 도시사회로 변화한 도시발전사의 모델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건축문화에서도 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최근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서 연구 논문을 쓰면서 우리 시에 존재하는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도시적 특징을 일부 보존해야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수도곡산 달동네 박물관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시 승격 이전이나 70년대 초기의 도시 구조는 꼭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무렵의 시대적 상황에 관련한 문화적 여건이랄지, 특징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연구위원님들께서 전공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섭 원장 : 시 승격을 전후한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대해서 60년대 무렵을 짧게 대답해 주시고 각자 순서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익 소장 : 우리 성남이 시가 되기 전에는 말 그대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 농촌 마을에는 전통적으로 선비들의 문화가 대대로 이어져 왔고, 애국심으로 가득 찬 선비문화, 이런 정신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의병이니 만세운동이니 나라를 되찾는 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정신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춘섭 원장 : 한동익 소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젊은 연구위원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죠.

서종원 위원 : 성남지역이 옛날에 광주 문화권에 속해 있었는데 어떤 문화적 특징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교육이라든가, 생업과 시장 쪽 이런 것들까지도 기본적으로 살펴볼 때 어떤 문화적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상권에서는 광주와 송파 등과 비교할 때 기착점이 되었다거나, 교육권, 생업권 등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성남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문수진 교수 : 성남은 고대에는 한성백제의 영역에 속하고 근현대에 와서는 광주문화권의 영역에 속

하는 역사적 배경을 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말죽거리에서 지방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했지요. 근세에 와서 한동안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사통팔달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 변했습니다.

전봉구 교수 : 우리 시는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농촌사회에서 전형적인 도시사회로 변화한 도시 발전사의 모델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건축 문화에서도 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최만순 부원장 : 제가 보기에 성남문화를 도시 전체로 봤을 때 계도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실제로 시 승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원주민들과 외부로부터 이주해 온 주민들 간의 문화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몇 개의 주제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문화가 다르고 각 구마다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봉구 교수 : 최근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서 연구 논문을 쓰면서 우리 시에 존재하는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도시적 특징을 일부 보존해야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수도곡산 달동네 박물관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시 승격 이



조남두 교수

“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환경, 도시, 교통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문화 활동은 갈등 해소를 쉽게 해 준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도시에 입주하는 이주민뿐 아니라 요즘은 다문화 가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남한산성은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전통문화체험이라든가 자연관찰 학습장으로도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전이나 70년대 초기의 도시 구조는 꼭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조남두 교수 : 성남은 급속한 변화를 겪은 만큼 교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도시입니다. 조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인구 구성이 워낙 다양하고 지방색도 다양한 데다가 생활 환경 역시 신규 도심 사이에 격차가 있어서 시민을 동일한 애향심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윤종준 위원 : 1960년대 초에 모란개척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활동이 있었고, 그 후 광주대단지 개척사업이 시작되면서 외지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원주민들과 갈등은 없었나요?

한동역 소장 : 원주민들의 생계는 농사를 대대로 지어왔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외지인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들에게는 생계수단이 없으니까 원주민들의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전봉구 교수 : 모란개척단이 활동하던 초창기 활동과 후일의 모란개척단 사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란개척단이 지닌 긍정적인 평가도 큰 것으로 아는데요.

한춘섭 원장 : 모란개척단 활동은 60년대 초부터 시작한 자발적인 잘 살아보기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고, 71년도의 개척단사건은 김창숙 대령에 의해 주도된 것은 맞지만, 당시 사회현실 자체가 불안정했고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불던 때였습니다. 모란시장이라고 하는 민속시장을 개설한 것이라든지, 모란우체국 설립, 모란중학원(풍생중고등학교의 전신)의 설립 추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겠지요. 모란시장은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거치면서 폐장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어엿한 민속 풍물시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정진 국장 : 1970년대를 전후로 한 4H운동이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동익 소장 : 그 당시 새마을운동이나 4H운동은 전국민적 운동이었기 때문에 성남지역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요.

윤중준 위원 : 그러면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원장님께서 향토문화연구소 설치 청원서를 1992년 10월 10일에 최초로 제출하셨는데, 20년 전의 성남문화 환경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덧붙여서 문화원 설립 초기의 상황은 어땠나요?

한춘섭 원장 : 오늘 이 자리는 향토문화연구 15년, 20년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럴 게 아니라 뜻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보자고 마련한 자리인데, 지난날을 생각하면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간 저나 여러 교수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해 주셨고, 함께 활동했던 이들 중에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당시에 문화원에 연구소를 설립해야겠다는 당위성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적극 나서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때 제가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약 일 년만인 1993년 9월 20일에 성남문화원 이사회에서 설립 인준을 받고 다음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원을 설립할 당시에는 이렇다 할 건물도 없어서 그 당시 설립자인 조명천 원장의 개인 소유 건



최민순 부원장

“제가 보기에 성남문화를 도시 전체로 봤을 때 계도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실제로 시 승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원주민들과 외부로부터 이주해 온 주민들 간의 문화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몇 개의 주제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문화가 다르고 각 구마다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관련 교육이 있지요?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큰 파급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김주홍 박사

“연구소를 개소한 직후에 특징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전통문화나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을 것 같습니다.

성남은 90년대 초에 분당이 개발되고 근저에는 도촌동이나 판교와 위례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 때에도 원주민과 새로 입주하는 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들을 정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은 문화원에서 문화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으면 합니다.”

물에서 문화원 첫 사무실이 꾸려졌습니다.

정성권 위원 : 그 당시에 문화원에서 시민 대상으로 펼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한춘섭 원장 : 문화원이 처음 문을 열고 시작한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촛불문화회라든지 웅변대회 등이 있었지요. 향토사 연구 같은 것은 아직 뿌리를 내리기에는 이른 시기였죠.

김주홍 위원 :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원이 설립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개소한 직후에 특징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전통문화나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을 것 같습니다.

한춘섭 원장 : 연구소에서 첫 번째 회의 때 추진한 사업이 향토문화 연구논문 공모였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를 맺은 것이 1994년에 창간된 《성남문화연구》 논문집이고, 올해 19집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향토문화연구소의 첫 사업은 연구 사업에 바로 뛰어들어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논문집을 발행해 온 것입니다. 《성남문화연구》 논문집 19집까지 총 138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성남문화연구》 창간호를 1994년 5월 20일에 발행했는데, 이때에도 오늘과 같은 좌담회를 가지고 연구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을 수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억나는 것은 그 해에 영창대군 묘지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그 해

11월에 2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향토문화재인 묘지명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지만, 아쉽게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박물관 설립 운영을 숙원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저 다음으로 문수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까요? 주변 지역과의 연계라든지….

문수진 교수 : 원장님께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 많이 있지요. 문화원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장님이 열성적으로 일을 추진하시고 앞으로 같이 해나가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저쪽 강남구 송파구 등등 광주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 이제 다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남의 거주자 관련자들이 정체성을 잃은듯한데 서울이나 하남 등이 광주였고, 성남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광주문화권의 개념에서 인식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진통을 겪었지만, 원장님 제안으로 만들어진 ‘광주문화권협의회’ 같은 기구를 적극 활용해서 문화적 통합을 먼저 해나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춘섭 원장 : 성남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문화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이 성남문화원을 위해 할 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적 통합이라면 김주홍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느낀 점 말씀해 주세요.

김주홍 박사 : 성남은 90년대 초에 분당이 개발되고 근자에는 도촌동이나 판교와 위례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 때에도 원주민과 새로 입주하는 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고, 앞으로 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들을 정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은 문화원에서 문화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춘섭 원장 :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남두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두 교수 : 주민들 간의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환경, 도시, 교통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문화 활동은 갈등 해소를 쉽게 해 준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도시에 입주하는 이주민뿐 아니라 요즘은 다문화 가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최만순 부원장 : 현재 성남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관련 교육이 있지요?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큰 파급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윤종준 위원 : 네, 지금 성남문화해설사 제5기 과정을 2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성남의 문화를 해설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현문화의집에 '성남학아카데미' 강좌가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고자 하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과제는 해설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찾아가는 내 고장 바로 알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한춘섭 원장 :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남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특색이 있다고 할까요? 우리 고장 향토문화유적을 보존하는 일을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향토유적 1호부터 9호까지는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한 성과로 이뤄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의 인물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진 국장 :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청원해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것이

9호까지 지정되었습니다. 신종군 이효백 묘역이라든지 하대원동의 광주이씨 묘역 등이 있습니다.

문수진 교수 : 지금까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문중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문화재 지정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문화재 지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문화 행사를 개발하고 문화콘텐츠화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종원 위원 : 요즘은 과거와 달리 문화에도 체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문화재 관리도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건축 문화재를 사용 금지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템플스테이, 서원스테이, 서당체험, 나아가서는 숙박체험 등으로 활용 중심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도 훌륭한 사당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하고 우리 연구소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합니다.

전봉구 교수 :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인천의 달동네박물관도 주택 보존지구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성남시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모두 철거할 것이 아니라 일정 지구는 보존해서 관광자원화 해야 하고, 연구소에서 건축물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서종원 위원

“ 요즘은 과거와 달리 문화에도 체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문화재 관리도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건축 문화재를 사용 금지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템플스테이, 서원스테이, 서당체험, 나아가서는 숙박체험 등으로 활용 중심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도 훌륭한 사당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하고 우리 연구소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에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상여소리도 있고, 구미동 오리돌 농악이나 이매동 지경다지기 놀이도 있지요. ”



정성권 위원

“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다양한 외국어로 된 설명서와 교재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글 교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어로 만들어진 교재를 그림과 삽화, 사진까지 곁들여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남문화원에서 영어 교재로 만든다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이 도시화 건설로 인해 파괴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구술자료의 채집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6.25 전쟁이라든지 현대사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추진해서 기록화해 나가야겠습니다. ”

한동익 소장 : 현재 성남에는 세거문중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일인데, 경기문화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종가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백 년 동안 내려온 세거 문중의 뿌리를 찾아 나가고, 나아가서는 한성백제 시기에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의 군사문화를 찾아내는 것도 뿌리 찾기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춘섭 원장 : 요즘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남한산성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곧 세계유산 지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성권 위원 :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다양한 외국어로 된 설명서와 교재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글 교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어로 만들어진 교재를 그림과 삽화, 사진까지 곁들여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남문화원에서 영어 교재로 만든다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진 국장 :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나요?

문수진 교수 : 지금 우리 성남이 도시화 되면서 많은 것을 파괴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잃고 도시 건설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전쟁으로 사라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요? 이제 우리는 번듯한 종가 하나라도 잘 지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산성도 인류공통의 문화유산으로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 된다면 국제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외에 관광자원으로서도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조남두 교수 : 남한산성은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전통문화체험이라든가 자연관찰 학습장으로도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한춘섭 원장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끝으로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연구소의 미래지향 가치에 대해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시는 것으로 이 자리를 파하겠습니다.

김정진 국장 : 오늘 이 좌담회가 연구소 발전을 위한 작은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원의 숙원사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천림산 봉수 복원, 단독원사의 건립, 시립박물관 건립 운영 등입니다. 현재 시사편찬위원회는 5월부터 설치되어 현판식을 갖고, 2년여에 걸친 편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은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박물관은 현재 판교박물관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문화원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노력 중입



김정진 국장

“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청원해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것이 9호까지 지정되었습니다. 신증군 이호백 묘역이라든지 하대원동의 광주이씨 묘역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좌담회가 연구소 발전을 위한 작은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원의 숙원사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천림산 봉수 복원, 단독원사의 건립, 시립박물관 건립 운영 등입니다. 현재 시사편찬위원회는 5월부터 설치되어 현판식을 갖고, 2년여에 걸친 편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은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박물관은 현재 판교박물관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문화원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윤종준 위원

“오늘 좌담회는 우리 향토문화연구소가 1993년 9월 20일에 설립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립 초기의 여러 가지 문화적 현황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간 연구소의 사업성과는 눈부시게 많습니다. 학술회의 개최 17회를 비롯해 수차례 걸친 마을지 발간도 주목되는 것이고, 특히 《성남문화연구》는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행되었으며, 문화원에서 성남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300편에 가깝습니다. 다른 어느 기관도 보유하지 못한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다.

한춘섭 원장 : 우리 문화원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립박물관의 운영이 있습니다. 앞으로 착실히 준비를 해서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40주년이 되는 해에 10년 단위로 편찬되는 역사책을 선보이게 됩니다. 우리 연구위원 여러분들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억 소장 : 우리 향토문화연구소가 앞으로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찾고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찬란했던 한성백제시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남한산성이 지금의 석성으로 개축되기까지의 자취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조대왕 때에도 백제시대의 옛 성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상여소리 보존 등 민속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최만순 부원장 : 우리가 자칫하면 개발의 논리로 잃기 쉬운 현대문화도 잘 보존하고 연구해 나가기를 바라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성남시를 상징하는 표징비건립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서종원 위원 : 성남에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상여소리도 있고, 구미동 오리뜰 농악이나 이매동 지경



다지기 놀이도 있지요. 특히 판교 쌍용 거줄다리기는 여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전승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한 흥행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줄을 꼬는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놀이 과정에서도 이런 놀이는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봉구 교수 : 지금 천립산 봉수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김주홍 박사와 윤종준 위원하고 현지 답사도 다니고, 금년에는 봉수 복원을 위한 복원 설계를 시도하는 논문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남두 교수 : 다문화의 시대, 원주민과 새로 전입하는 주민과의 문화적 융합을 위해 좋은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시민들에게 제공되기 위해 연구소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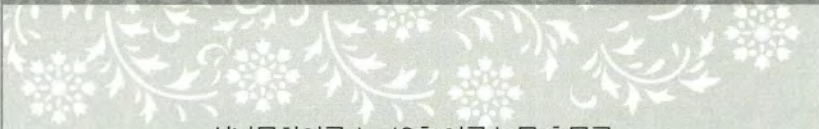
문수진 교수 : 문화해설사는 남한산성에서도 활동하는지, 우리 쪽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정성권 위원 : 앞으로 구술자료의 채집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6.25전쟁이라든지 현대사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추진해서 기록화해 나가야겠습니다.

한춘섭 원장 : 이 좌담회는 특정한 학술적 토론회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다소간 이야기의 주제가 뒤섞이는 느낌도 있었고, 이 자리가 과한 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나서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향토문화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였다고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위원 여러분들께 《성남시40년사》 편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성남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9월 20일에 개최되는 20주년 기념식 때 모두 뵙게 되길 바랍니다.



부 록



성남문화연구 1~18호 연구 논문 총목록

학술회의 1~17회 연구 논문 총목록

학술토론회 1~10회 연구 논문 총목록

성남문화연구

1호(1994)

김창환(金昌煥), '城南市の地形環境 研究'

박상규(朴相圭), '城南地域의地名性格 考察' -百濟語와 高句麗語의인要素를 中心으로-

어순영(魚順英), '民族文化宣揚에 관한 小考'

이형구(李亨求), '永昌大君 墓誌銘 發見과 永昌大君 略史'

장삼현(張三鉉), '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墳墓를 中心으로-

전보삼(全寶三), '碧巖 覺性禪師의生涯와 思想'

한춘섭(韓春燮), '城南 漢詩 同人 [詩集] 資料 考察'

2호(1994)

김창환(金昌煥),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박상규(朴相圭), '城南市 地名研究' -壽井區 高登洞 '도랑터' 를 中心으로-

백남옥(白南郁), '百濟의 초기 疆域에 관한 研究'

어순영(魚順英), 전재열(全在烈),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전보삼(全寶三), '南漢山城의 民族精神 研究'

한춘섭(韓春燮), '모란地域의 鄉土史 정리'

3호(1995)

김창환(金昌煥), '성남시의 인구증가와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Ⅰ)'

박상규(朴相圭), '성남지역의 지명어 '재' 연구'

백남옥(白南郁), '고대 남한산고'

소진광(蘇鎭光), '성남의 산업구조'

장삼현(張三鉉), '금광동 광산 김씨에 관한 연구'

장철수(張哲秀), '경기지역과 동구릉의 문화적 연관성'

전보삼(全寶三), '인조대왕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 연구'

한춘섭(韓春燮),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허창무(許昌武),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활동'

조병로(趙炳魯),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Ⅰ)'

4호(1997)

- 허창무,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본 남한산성의 위상과 가치 재조명'
장철수, '南漢山城 百濟 始祖 溫祚王廟의 建立過程'
백남옥, '百濟 漢城時代의 都城에 관한 연구'
조병로, '17, 8세기 南漢山城의 再修築에 관한 一考察'
장삼현, '南漢山城과 義理思想에 對한 研究'
박상규, '三田渡 대청환제 공덕비문의 원문재구와 보존책에 관한 연구'
전보삼, '南漢山城 文化財 現況과 保存策에 관한 研究'
한춘섭, '남한산성 가톨릭 殉敎史 고찰'
김창환, '남한산성의 지형환경 연구'
소진광, '南漢山城의 가치와 활용방안'

5호(1999)

- 백남옥, '삼국의 전성기의 성남지역에 대한 考察'
조병로, '朝鮮後期 南漢山城의 修築과 防禦施設(II)'
장철수, '남한산성 현절사의 建立過程'
전보삼, '南漢山城 文化遺蹟의 保存과 懸案에 대하여'
조유전, '南漢山城과 北漢山城 比較 研究'
한춘섭, '遁村 李集의 研究'
최종민, '경기도 동남부 지방의 상여소리와 달구소리 연구'
천화숙, '1920년대 조선 여자기독교청년회의 연합회의 농촌사업과 경기지역'
소진광,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성남시 정부의 역할'
허창무, '城南과 瀋陽間 姊妹都市 結緣의 歷史的 意義와 21世紀를 향한 協力強化 方案'

6호(2000)

- 백남옥, '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김기빈, '병자호란과 분당의 땅이름'
천화숙, '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兪珥卿'
한춘섭,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허창무, '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장철수, '성남의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박순임, '성남에 있어서 시민 교양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지교현,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방안'
소진광, '사회적 자본형성과 성남시 발전방향'
전보삼, '산성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7호(2001)

- 조병로, '朝鮮時代 天臨山烽燧의 沿革과 位置'
백남옥, '조선후기 金陵 南公轍의 정치운영론'
김기빈, '남한산성의 門樓·樓亭·寺刹 등의 명칭에 대한 小考'
한춘섭, '近現代 城南의 歷史 試論'
지교현, '성남「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원형'
허창무, '가칭『성남시향토문화전자대전(CD-Rom)』의 研究 계획'

8호(2001)

- 조유전, '유적·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역사(古代歷史)'
백남옥, '高麗末과 朝鮮初의 城南地域에 관한 考察'
문수진, '성남시의 集姓村 研究'
김기빈, '성남시 관내 淸溪山의 여러 地名에 관한 調査 研究'
지교현, '「삼학사전」과 향정의리의 유학적 평가'
천화숙, '한국근대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남 여성운동' -YMCA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춘섭, '학고(鶴阜) 권오선 文士의 漢詩 연구'

9호(2002)

- 백남옥, '伯濟國'의 성립과 성남지역'
문수진, '羅末麗初의 支配勢力과 城南'
조유전, '發掘調査를 통해 본 南漢山城 行宮址'
정은경, '19세기 城南地域의 농민항쟁'
서승갑, '일제 강점기 성남지역의 노동운동'
한춘섭, '박태현 작곡가의 예술활동 연구'
김기빈, '淸溪山의 여러 地名에 관한 調査·研究(2)'
한동역, '일제에 의해 변경된 성남지역의 지명연구'
박종민, '널다리 쌍용줄다리기의 내용과 의미'

10호(2003)

- 김기빈, '성남지역의 「地名偶合」 또는 「豫言性」 지명의 사례연구'
박종민, '지역사회 喪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백남옥, '百濟 初期의 領域擴大와 地方統治'
서승갑, '협동전선의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의 신간회 운동'
전보삼, '성남의 정체성에 관한 일고찰'
정은경, '근대 城南地域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한동역, '성남지역 왕실문화의 연구'
한춘섭, '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11호(2004)

채수명, '탄천문화 방출방법론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천화숙, '조선후기 감위의 개화사상'

한동익, '울리마을 구비문화 연구'

한춘섭, '龜川君 생애에서 얻어진 詩文 研究'

허흥식, '樂生地域 延安李氏의 世居와 重要자료'

현영조, '환경과 문화관점에서 본 도시공간 연구'

12호(2005)

조유전, '분당지역의 선사문화 시론'

김덕목, '성남의 무속신앙'

채수명, '모란시장문화 창출방법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천은복, '성남지역의 불교의례 연구'

한동익, '성남지역의 왕실문화의 연구II'

한춘섭, '성남의 忠孝 인물 조사'

13호(2006)

손환일, '연성군 이근 묘비 삼족오의 위상과 가치'

문수진, '조선 초기 성남의 인물 검토'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윤종준, '조선의 유형 집행과 양녕대군 이제의 광주 안치'

14호(2007)

한춘섭,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찾기'

손환일, '조선시대 경기도 성남지역 금석문의 서체'

문수진, '양란의 극복과 성남지역'

이영, '남한산성의 원형경관 복원에 대하여'

윤종준, '한말 성남지역 의병전쟁 연구'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세계'

15호(2008)

손환일, '경기도 성남지역 조선시대 석비의 표제양식과 서체고찰'

윤종준, '천립산 봉수 복원사업의 추진 경과와 봉수 운영의 실태'

김위성, '성남시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개선연구'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조남두, '성남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연구'

이수철, '지방화 시대에 문화적 요구의 대응을 위한 성남문화원의 역할'

16호(2009)

문수진, 조선시대 시장의 발달과 성남 모란시장

손환일, 한지(韓紙)의 현대적 실용화 전략

조남두, 성남지역의 취학전 교육 실태조사 연구

윤종준, 탄천(炭川)의 지명 유래와 역사 고찰

권 일, 성남시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일,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특성 연구

17호(2010)

한동억, 성남지역의 역사와 충절

백종오, 조선시대 봉수유적의 문화자원 활용방안

김주홍,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봉수표기

윤종준, 명선·명해공주에 대한 고찰

강진갑, 성남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이수철, '모란민속5일장'의 성립과 발전의 사회적 의미

18호(2011)

한동억,城南의百濟傳説·說話

김주홍,城南地域의先賢墓域(II)-淸州韓氏

서종원, 판교 쌍용거(巨) 줄다리기 재고찰

문수진, 성남학 연구의 현주소

최만순, 성남시 역사문화 환경의 특성 연구

조남두, 성남지역 다문화 교육 조사 연구

학술회의

제1회(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 백남옥, '백제한성시대의 남한산성'
조병로, '최근에 발견된 남한산성수축비에 대하여'
진 완, '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
전보삼,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張 杰, '병자호란과 조선'
박상규, '지명어를 통해서 본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
차용걸, '한국의 산성연구 동향과 과제'
小田富士雄, '서일본 고대산성에 관한 최근의 조사성과'
孫玉良, '동북 역대산성의 흥망성쇠 학술'
소진광,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2회(남한산성과 삼학사)

- 유승국, '남한산성과 삼학사의 절의정신'
千文甲, '삼학사의 민족정신과 그의 기념비'
전보삼, '한 · 중 사행로 답사 보고'
정옥자, '병자호란시 삼학사의 활동과 의의'
장철수, '조선 현절사의 건립배경'
張玉興,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
한춘섭, '삼학사의 시문학 고찰'
姜相順, '삼학사 사상과 인조와의 갈등'
지교현, '상도와 권변의 생존철학'

제3회(향토인물연구 - 둔촌(遁村) 이집(李集)선생)

- 민병하, '둔촌선생의 성리학적 지위(遁村先生の 性理學的 地位)'
최영희, '갑자사화와 광이(甲子士禍와 廣李)'

제3회(향토인물연구 - 여류문사, 강정일당)

- 한춘섭, '한국여인의 표상(여류문사 강정일당 작품세계)'
김미란, '강정일당의 생애와 문학(姜靜一堂의 生涯와 文學)'

제4회(향토인물연구 - 白軒 李景奭과 金陵 南公轍)

- 이성무, '성남문화와 백헌 정신'
신원봉, '백헌 이경석의 노검정신'
이은순, '백헌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
강혜선, '백헌 이경석 시세계 연구'
이장희, '정조 순조연간의 학풍과 남공철의 위상'
지교현, '금릉 남공철의 생애와 학문'
박순임, '금릉 남공철의 문학론'

제5회(향토인물연구 - 문정공 한계희)

- 문수진, '문정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
지교현, '울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독립운동'

제6회(향토인물연구 - 아천군 이증)

- 정은경, '선조조 정치세력의 동향과 이증의 활동'
박순임, '이증의 한시 연구'

제7회(조선시대 청백리정신의 현대적 조명)

- 이서행, '공직부패와 청백리 윤리'
문수진, '조선시대 청백리제도와 기능'
한춘섭, '탄천 이지직의 청백리 정신'
지교현,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제8회(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 유준기, '한국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박민영, '성남지역의 의병 항쟁'
서승갑,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한상도,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제9회(광주 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 손정목, '8.10사건의 경위 - 서울시의 입장에서'
하동근, '8.10사건에 대한 입장들'
박태순, '밑에서부터 본 8.10사건'

제10회(성남지역에서 천장된 역사인물 연구)

- 박상건, '남이흥(南以興)장군의 생애(生涯)와 충장정신(忠壯精神)'
정성희, '정묘호란 시기 안주성 전투와 남이흥 장군'

한춘섭, '삼봉 이극증의 인물 알기'
유주희, '이극증의 생애와 정치활동'

제11회(삼죽오와 성남문화)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 삼죽오의 위상과 가치'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죽오 신앙에 대하여(발해 연안 鳥類 숭배 사상과 聯
關하여)'
허흥식, '삼죽오의 동북아시아 기원과 사상의 계승'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제12회(판교의 문화와 전통)

현영조, '판교의 전통적 경관에 관한 연구'
서승갑, '조선시대 교통망에서 본 판교'
신익철, '판교와 한시'
최은수, '복식류에 표현한 금박에 관한 소고'

제13회(판교 · 도촌지구 발굴문화재의 보존방안)

윤선영, 판교 지구 문화유적 발굴의 성과
안성민, 판교 지역 문화유적의 시대구분과 문화사적 의미
김주홍, 성남지역 문화재 분포현황과 보존의 방향
윤종준, 성남의 역사적 특징과 문화유적 보존방안

제14회(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

윤종준, '모란의 과거와 미래'
이수철, '모란 민속 5일장의 사회사적 의미'
이상열, '모란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
손환일, '간판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

제15회(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연구)

이만열, 신간회 활동의 역사적 의의(기조강연)
김인식, 신간회와 민족협동전선운동
조성운, 일제하 광주(성남)지역 신간회지회 조직과 활동
성주현,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의 인물들

제16회(Smart 성남, 도시 만들기)

곽정근, 성남시 주민 중심의 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
최만순, 성남시 도시 변천과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공간 정책 방향 연구

전봉구, 성남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현영조, 남한산성의 전통적 경관과 고건축

제17회(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양기석, 백제사 속의 성남

서정석, 위례성 · 한산 · 한성에 대하여

최맹식, 백제 한성시기 기와에 관한 소고

한동억, 성남지역의 지명유래에 나타난 역사

학술토론회

제1회(松山 조건 인물 연구)

문수진, '고려말기 정세(高麗末期 政勢)'

한춘섭, '송산 조건 인물 연구(松山 趙狷 人物 研究)'

제2회(판교지역 연성군 이곤 금석문 연구)

허흥식, '향토사와 문중에서의 역할'

한춘섭, '연이, 연성군의 가계연구'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의 양식·문양·서체에 관하여'

이민식, '연성군 문중의 금석문 분포현황과 성격'

제3회(조선 초기 광주이씨 인물연구)

김문택, '탄천 이지직의 관직생활과 청백리'

배 성, '이극규의 생애와 정치활동'

김학수, '이극기의 가계와 관직활동'

박병련, '조선전기 士林/勳舊 葛藤과 士林이데올로기의 政治的 政當化'

한춘섭, '廣李 門中 武人 列傳'

제4회(전주이씨 신증군 이효백 연구)

이용규, '신증군 이효백의 가문과 생애'

윤종준, '신증군 이효백의 시대적 배경'

손환일, '신증군 이효백 묘소의 조성물'

제5회(동천 남상목 의병장 공훈 재조명)

김상기, '남상목 선열의 의병운동의 역사적 배경' (기조강연)

윤종준, '남상목 의병부대의 정미의병과 무장투쟁'

서승갑, '동천 남상목 의병장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과 기념사업 추진 방략'

제6회(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 석조물 연구)

문수진, '조선의 건국과 청주한씨의 성장'

손환일, '경기 성남 울동 청주한씨 세장지(世葬地)의 석조물'

손미숙, 한지원(韓智源)묘역의 석물 고찰
 권영애, 한명옥(韓明勗)묘역의 석조물에 대하여
 이재목, 한진(韓旬) 묘역의 석물과 서체고찰
 한동역, 栗洞 淸州韓氏 家系정리

제7회(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한동역,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윤종준, '성남출신 의병장들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서승갑,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강진갑, '성남지역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제8회(조선 초기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의 가치)

문수진, 조선의 건국과 광산김씨의 성남세거
 윤종준, 평양서윤 김순성의 관직이력에 대한 고찰
 손미숙,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 조성물의 중요성과 가치
 손환일, 김순성 묘비 서체의 중요성과 가치

제9회(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이형구, 광주군 풍납리 토성과 한성백제 왕성
 김기섭, 백제의 건국과 영토확장
 백남옥, 백제 한성시대의 남한산성
 강나리, 남한산성 역사주제 공원 개발과 세계유산

제10회(덕수 이씨 의정공파 세거연구)

문수진, 덕수 이씨 문중의 가계와 세거연구
 윤종준, 덕수 이씨 의정공파의 국가 공헌
 손환일, 조선 중기의 서체
 이희순, 조선 초기의 서체
 손미숙, 조선 중기 묘역의 석물 고찰

편집위원

한춘섭(성남문화원장, 시조시인, 국문학자)
전봉구(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동서울대 교수)
한동역(경기향토문화연구소 소장, 향토사)
정성권(동국대학교 박물관)
김주홍(내공사 위례사업단 과장, 역사고고학)
조남두(신구대 교수, 교육행정학)
윤종준(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권 일(연구위원, 성남시립합창단 공연설계)
송원흠(동양미래대학 조교수)

성남문화연구

제19호

인쇄 : 2012년 9월 15일

발행 : 2012년 9월 20일

발행인 / 한 춘 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26

전화 / (031) 756-1082, 1028

팩스 / (031) 756-1056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culture.or.kr>

e-mail / culture1082@hanmail.net

편집 · 기획 / 김정진 · 허지연

제작 / 한누리미디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 서원빌딩 202호

전화 / (02) 379-4514, 4519

팩스 / (02) 379-4516

※이 책은 성남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개소 20주년 기념식



일시 : 2012년 9월 20일(목) 15:00~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

 성남문화원

THE JOURNAL OF SEONG-NAM CULTURE

Vol.19 September 2012



Contents

Article

- Jeong, Seong-Kwon** A Study on the archaeological outcome
 in Namhansanseong fortress
- Jeon, Bong-Ku / Kim, Ju-Hong / Yoon, Jong-Jun / Song, Won-Heum**
 A Field Survey and Design on the Maintenance and Reconstruction of
 the Signal Fire Stand in M · T, Cheolimsan, SeongNam-City
- Han, Choon-Seoup** Research of Seowon & Sadang in SeongNam-city
- Han, Dong-Eok** Ancestory Graves in SeongNam(2)
 Focusing on the Graves of Duksu Lee Family
- Jo, Nam-Doo** A Study to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in SeongNam-City
- Kwon, Il** The value of Seongnam Arirang and work research
-

Publish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N PROVINCIAL
CULTURE OF SEONG-NAM**

6926, Shinheung1-dong, Sujeong-gu, Seongnam-City, 461-161, KOREA